

성차 인식 및 성평등 실태조사를 통한 성 주류화 전략 확산 방안

주혜진 · 장은정

성차 인식 및 성평등 실태조사를 통한 성 주류화 전략 확산 방안

주혜진 · 대전발전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책임연구위원
장은정 ·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연구진

- 연구책임 • 주혜진 / 대전발전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책임연구위원
- 공동연구 • 장온정 /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목 차 -

▣ 연구요약	7
제 1 장 서론	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방법	5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9
제 2 장 성평등과 성 주류화에 관한 이론적 고찰	13
제1절 성평등에 대한 이해	13
제2절 성평등 전략으로서 성 주류화	15
제3절 지역사회와 성 주류화 인프라	18
1. 대전지역의 지역 및 인구 특성화 현황	18
2. 대전지역 성 주류화 제도 추진 현황 및 특성	19
3. 주요 성 주류화 정책 추진 현황	24
제 3 장 대전광역시 성평등 지수 현황 보고서	31
제1절 지역 성평등 지수 개발	31
제2절 대전광역시 성평등 지수 점검 현황과 과제	33
1. 여성의 대표성 제고 영역	33
2. 여성의 경제 세력화 영역	34
3. 여성의 삶의 질 영역	35
4. 소외여성 사회통합 영역	36

제 4 장 대전광역시민 성차인식(性差認識) 조사 결과 분석	41
제1절 영역별 성차인식 조사 결과 분석	41
1. 가정생활 영역에서의 성차인식	41
2. 직장생활 영역에서의 성차인식	47
3. 남녀관계 영역에서의 성차인식	51
제2절 소결	56
제 5 장 대전광역시민의 성평등 실태 인식과 요구 조사결과 분석 ...	61
제1절 대전광역시의 성평등 실태에 대한 시민 의식 분석	61
1. 대전지역의 성평등 실태와 성차별 경험에 대한 인식	61
2. 대전지역의 영역별 성평등 수준에 대한 평가	68
제2절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요구 분석	84
1.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요구	84
2. 성별에 따른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요구	86
3. 거주지별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요구	89
4. 연령별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요구	96
제3절 소결	98
제 6 장 성 주류화 전략 확산을 위한 제언	103
【참고문헌】	109
【부록】	113

- 표 목 차 -

<표 1-1> 설문지 조사 내용	6
<표 1-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8
<표 2-1> 대전광역시 특성과 일반 현황	18
<표 2-2> 대전광역시 여성가구주 가구분포	19
<표 2-3> 대전광역시 복지여성국 인력 현황	21
<표 2-4> 2009~2012 대전광역시 여성정책 예산 현황	22
<표 2-5> 기초자치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담인력 현황(2012년)	23
<표 2-6> 기초자치구 과제선정위원회 구성 현황(2012년)	23
<표 2-7> 대전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수의 변화	24
<표 2-8> 2012년 성인지예산서 시범 작성 현황	26
<표 2-9> 대전광역시 공무원대상 성인지교육 및 관련 워크숍 실시 현황 ·	28
<표 3-1> 지역 성평등지수의 4개 영역과 개별 지표	32
<표 3-2> 대전광역시 대표성 영역 세부지표 비교(2010년)	33
<표 3-3> 대전광역시 경제 세력화 세부지표 비교(2010년)	35
<표 3-4> 대전광역시 삶의 질 제고 영역 세부지표 비교(2010년)	36
<표 3-5> 대전광역시 사회통합 세부지표 비교(2010년)	37
<표 4-1> 전체 가정생활 영역에서의 성평등 인식 정도	42
<표 4-2> 성별에 따른 가정생활 영역에서의 성평등 인식 정도	43
<표 4-3> 연령에 따른 가정생활 영역에서의 성평등 인식정도	45
<표 4-4> 결혼여부에 따른 가정생활 영역에서의 성 차 인식 수준	46
<표 4-5> 전체 직장생활 영역에서의 성차 인식정도	47
<표 4-6> 성별에 따른 직장생활 영역에서의 성차 인식정도	48
<표 4-7> 연령에 따른 직장생활 영역에서의 성차 인식정도	49
<표 4-8> 결혼여부에 따른 직장생활 영역에서의 성차 인식 정도	50
<표 4-9> 전체 남녀관계 영역에서의 성 차 인식 수준	51
<표 4-10> 성별에 따른 남녀관계영역에서의 성 차 인식	52

<표 4-11> 연령에 따른 남녀관계 영역에서의 성 차 인식	54
<표 4-12> 결혼여부에 따른 남녀관계 영역에서의 성 차 인식	55
<표 5-1> 대전지역의 성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	63
<표 5-2> 성차별 현장 목격 및 경험	66
<표 5-3> 여성 정치 리더 및 대표성 영역의 성평등 실태에 대한 인식	70
<표 5-4> 여성의 경제 활동 지원 관련 성평등 실태에 대한 인식	73
<표 5-5> 소외여성 지원 관련 성평등 실태에 대한 인식	76
<표 5-6> 여성의 안전성 관련한 성평등 실태에 대한 인식	79
<표 5-7> 성평등 정책추진 실태에 대한 인식	82
<표 5-8> 대전지역의 성평등 정책에 대한 요구 순위	85
<표 5-9> 성별에 따른 성평등 정책에 대한 요구 순위	87
<표 5-10> 성별에 따른 성평등 정책에 대한 요구 정도	88
<표 5-11> 지역별 성평등 정책에 대한 요구	93
<표 5-12> 연령에 따른 성평등 정책에 대한 요구 순위	96

- 그림 목 차 -

[그림 2-1] 성 주류화의 흐름도	16
[그림 3-1] 대전광역시 대표성 영역의 성평등 지표 값	34
[그림 3-2] 대전광역시 경제 세력화 영역의 성평등 지표 값	35
[그림 3-3] 대전광역시 삶의 질 영역의 성평등 지표 값	36
[그림 3-4] 대전광역시 소외여성 사회통합 영역의 성평등 지표 값	37
[그림 5-1] 성별에 따른 성평등 실태 종합 평가	62
[그림 5-2] 혼인 여부에 따른 성평등 실태 종합 평가	62
[그림 5-3] 연령에 따른 성평등 실태 종합 평가	62
[그림 5-4] 성별에 따른 성차별 목적 및 경험	65
[그림 5-5] 연령에 따른 성차별 목적 및 경험	65
[그림 5-6] 대전지역의 영역별 성평등 실태에 대한 평가	68
[그림 5-7] 성별에 따른 지역 내 여성정치 리더와 대표성에 대한 평가	69
[그림 5-8] 연령에 따른 지역내 여성 정치리더와 대표성에 대한 평가	69
[그림 5-9] 성별에 따른 지역 내 여성 경제활동 환경에 대한 평가	72
[그림 5-10] 연령에 따른 지역 내 여성 경제활동 환경에 대한 평가	72
[그림 5-11] 성별에 따른 지역 내 소외여성 지원에 대한 평가	75
[그림 5-12] 연령에 따른 지역 내 소외여성 지원에 대한 평가	75
[그림 5-13] 성별에 따른 지역 내 여성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	78
[그림 5-14] 연령에 따른 지역 내 여성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	78
[그림 5-15] 성별에 따른 지역 내 성평등 정책 추진에 대한 평가	81
[그림 5-16] 연령에 따른 지역 내 성평등 정책 추진에 대한 평가	81
[그림 5-17] 성별에 따른 성평등 정책 요구 정도	86

[그림 5-18] 지역별 성평등 정책에 대한 요구 - 동구	90
[그림 5-19] 지역별 성평등 정책에 대한 요구 - 유성구	90
[그림 5-20] 지역별 성평등 정책에 대한 요구 - 중구	91
[그림 5-21] 지역별 성평등 정책에 대한 요구 - 서구	92
[그림 5-22] 지역별 성평등 정책에 대한 요구 - 대덕구	92

요 약

■ 연구의 필요성과 방법

◇ ‘성 주류화’는 일종의 정책 패러다임으로서 성인지통계, 성별영향분석평가, 그리고 성인지예산제도라는 핵심 실천 도구를 활용한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의미함.

◇ 실제 성 주류화 확산의 수혜 당사자인 지역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인식 및 지역의 성평등 수준에 관한 조사는 수행된 바 없음.

◇ 시민들이 지닌 성 차이, 성평등에 대한 인식 및 성평등 제고를 위한 요구 파악에 대한 자료가 필요함.

◇ 성별 특성, 성차(性差)에 대한 인식, 지역 성평등 실태에 대한 시민의 의견과 분야별 성평등 수준에 대한 시민의 평가를 수렴하고, 대전시가 성평등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 지원 욕구를 파악하고자 함.

◇ 문헌연구, 설문조사, 그리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함.

◇ 대전시민 730명이 설문에 참여하였으며, 응답자의 34.1%(249명)는 40대이고, 238명(32.6%)의 응답자는 서구민이었으며, 응답자의 74.8%(539명)는 기혼자였음. 66%(479명)의 응답자는 대졸이었으며, 직업군 중에서는 사무관리직이 26.6%(196명)으로 가장 많았음.

■ 대전광역시 성평등지수 현황 보고서

◇ 여성가족부의 『2011년 16개 시·도별 성평등수준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대전광역시의 ‘여성의 대표성’의 성평등수준은 전국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보여 16개 시도에서 6위로 나타났음.

◇ 대전광역시 여성의 ‘고용률’, ‘관리직’ 지표 값은 전국평균보다 낮았고 반

면, ‘남녀임금격차 지표’ 값은 전국평균보다 높았음.

◇ 대전광역시의 삶의 질 영역의 성평등수준을 16개 시·도 지역과 비교하면,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대전광역시 여성의 기초생활보장자와 노후준비자 비율, 공적연금 성비는 전국 평균보다 높으나, 한 부모가구 저소득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음.

◇ 성평등 지수 현황 연구를 통하여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대전광역시는 범죄안 전도와 한부모 저소득가구와 관련된 정책과 함께,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고용률, 여성관리자, 남성 육아휴직 참여를 제고시키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 대전광역시민 성차인식(性差認識) 조사 결과 분석

◇ ‘가정생활’, ‘직장생활’, ‘남녀관계 형성’ 영역별로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태도를 살펴본 결과, 크게 성차별적 태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음.

◇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성평등 인식 수준이 높은 반면 자녀 훈육에 있어서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나타내고 있음.

◇ ‘여성의 업무책임감과 퇴사율과의 관계’에 대한 동의 정도는 낮게 나타났지만, 응답자의 30%정도는 ‘직장 내 남성 리더에 대한 신뢰’ 등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가정생활, 직장생활, 관계 형성 영역 모두 여성에 비해 남성들의 성차에 대한 고정관념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이 높을수록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동의 정도가 강하게 나타났으나, 30대 미만 연령의 응답자가 30대 연령의 응답자 보다 성역할 고정관념에 보다 더 강하게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혼인 상태에 있지 않는 비혼자들보다 기혼자들이 성역할 고정관념에 보다 더 강하게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전광역시민의 성평등 실태 인식과 요구 조사 결과 분석

◇ 여성 정치리더, 경제활동 지원, 범죄로부터의 안전, 소외여성 지원 등 모든 영역에서 낮은 성평등 만족도를 나타냄.

◇ 지역의 성평등 현황에 대하여 여성들의 만족도가 남성들보다 낮게 나타남.

◇ 30대미만의 연령층보다 30대와 40대가 지역의 성평등 실태에 대한 만족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응답자의 1/3이 지역 내에서 성차별을 목격 혹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보다는 여성이, 그리고 연령이 높은 50대 이상과 40대의 연령층에서 보다 많이 성차별적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남.

◇ ‘여성의 정치리더 및 대표성’ 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여 낮은 평가 점수를 받았으며, ‘소외여성에 대한 지원’ 분야와, ‘성평등 정책추진’ 분야가 그 다음으로 낮은 만족감과 평가 점수를 보임.

◇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시민들은 ‘여성의 일·가정생활 양립을 위한 정책’ 과 ‘소외여성들을 위한 경제적, 사회적 지원확대’, ‘여성을 위한 안전성 확보’ 를 가장 강하게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30대, 40대 응답자들은 ‘일·가정양립을 위한 정책’, ‘소외여성 지원’ 을 가장 필요한 성평등 정책으로 꼽았으며, 30대 미만의 응답자들은 ‘여성을 위한 안전성 확보’ 정책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성 주류화 확산을 위한 제언

◇ 성 주류화 추진 의지 선언 및 성평등 가치와 비전 공유

◇ 성 주류화 확산의 의지를 담은 비전의 핵심 내용 제안:

○ 정치와 공공부문에서 성평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는 실천방안 마련

○ 모든 정책과정에 여성과 남성의 삶의 경험과 조건을 반영하고 이를 위한 소

통의 기회 마련

-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고용기회 및 대우 보장과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 강화

- 임신·출산, 가사·돌봄 노동의 가치 인정과, 일과 가정 양립 정책 강화

- 생활 속에서 성평등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및 문화 활동 지원

- 성인지 관점을 반영한 사회 복지 체계 강화

- 여성과 남성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고 생활의 안전이 보장되는 지역 공동체 구현

- ◇ 대전시 및 기초자치구의 상황과 욕구에 근거한 성평등 목표와 비전 설정

- ◇ ‘젠더 이슈’ 중심의 접근 전략: 지역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여겨지는 문제들, 그리고 성평등적 변화가 필요한 문제들부터 정책적 이슈화 필요

- ◇ 성별, 연령별, 직업별 등 집단별로도 성 주류화 확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필요

- ◇ 젠더 거버넌스의 구축과 실행 주체별 역할 분담의 체계화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방법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성 주류화(性 主流化, Gender-Mainstreaming)는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채택된 주요 전략의 하나로, 정책과 예산에 성차(性差)를 고려한 성평등한 관점, 즉 성인지(性認知, Gender Sensitive) 관점을 통합하는 것이다(김경희 외, 2009). 다시 말하면, 성 주류화는 오랜 시간 동안 사회적 소수자였던 여성이 자신들의 경험과 삶을 의사결정과정에서 참여하여 반영하고, 이러한 참여의 과정이 사회 체계 운영 전반에서 이루어져 성평등한 상태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정치, 경제, 복지 등 모든 사회정책의 기획과 집행, 그 결과가 ‘사회적 성(性)’의 특성과 깊이 관련되어 있으므로, 성인지 관점으로 정책의 기획, 실행, 결과를 평가하고 점검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사회 정책을 통하여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전략으로, 성 주류화 전략의 궁극적 목적은 성평등(Gender Equality)을 이루는 데 있다.

‘성 주류화’라는 일종의 정책 패러다임은 성인지통계, 성별영향분석평가, 그리고 성인지예산제도라는 핵심 실천 도구를 활용하여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추진하고 있는데, 2002년 여성발전기본법이 개정되어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기반을 마련한 이래 지금까지 상당한 성장한 보이고 있다.

대전지역에서도 2006년 이후 전문가 집단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시작으로 매년 100개 남짓 정책사업을 대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실시되고 있으며, 2008년에는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성인지통계와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12년 4월에는 137개 정책사업을 대상으로 성인지예산서를 시범 작성하여 새롭게 시작되는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 실행에 대비하고 있다.

세 가지 성 주류화 전략의 도구가 사회 전반에 걸친 성평등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며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 도구들은 정부와 전문가 엘리트 집단의 주도로 추진되어 온 것 또한 사실이며, 지역사회 시민이 직접 체감하는 성평등 상태를 파악하고, 시민이 들려주는 성평등 현황 및 성평등 수준 제고를 위한 요구를 수용하여 성 주류화 확산 전략에 반영하는 노력은 그리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관련 연구들을 통하여 공무원이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성 주류화와 성평등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은 꾸준히 있어왔으나, 실제 성 주류화 확산의 수혜 당사자인 지역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인식 및 지역의 성평등 수준에 관한 조사는 수행된 바 없다. 즉, 시민들이 지닌 성 차이, 성평등에 대한 인식 및 성평등 제고를 위한 요구 파악에 대한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인 것이다.

지역사회의 성평등 수준은 지역 구성원의 인권과 복지차원을 넘어 지속적인 지역발전의 기본 전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전제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 수행되는 모든 정책의 성과가 계층과 성의 차별 없이 모든 구성원들이 정책의 수혜자가 되고 그들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 지역사회 정책들이 지역주민의 절반인 여성의 의견과 경험을 반영하지 못하고 민주적, 평등적인 정책 집행이 되지 못한다면 기득권을 가진 남성 중심의 반쪽짜리 발전을 이루게 되는 정책효율성의 한계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지금까지 일관되어 온 남성중심으로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참여하고, 모든 정책에 성평등적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차별 및 배제의 여부, 소외 등에 관한 실제 상황과 경험을 인지하고 지역 시민들의 성평등 정책에 대한 요구 파악, 지역의 정책들에 대한 모니터링 등은 지역의 성평등화를 위해 수행해야 할 과제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전 시민이 느끼는 현재 지역사회 성평등한 정도와 불평등한 경험, 그리고 시민이 원하는 성평등 제고 방안을 파악하고 이를 성 주류화의 핵

심 전략 도구 및 성평등 정책에 반영할 필요에 근거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정책의 직접적 수혜자인 대전시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성차 인식 및 성평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성별 특성, 성차에 대한 인식, 지역 성평등 실태에 대한 의견과 분야별 성평등 수준에 대한 평가를 가늠해 보았다. 또한, 이 연구는 대전시가 성평등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분야의 정책과 지원을 수행하여야 하는지 시민의 의견을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절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 설문조사, 그리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진행되었다.

1. 문헌연구

본 연구는 성평등 인식과 성 주류화에 관한 연구, 그리고 지표를 통해 본 성평등 실태조사 및 성 주류화 정책 현황 및 전략개발 등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연구의 이론적 틀을 구성하였으며 성평등 실태 분석을 위한 관련 자료로 활용하였다.

2. 전문가 면담

성 주류화 전략 사업을 선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타 시도의 전문가들을 면담하여, 성 주류화 추진체계의 구성과 운영의 변화와 최근 현안과 과제 등 실행 동향을 파악하였다.

3. 설문조사

1) 조사 설계

본 조사는 대전광역시 시민들의 성차(性差) 및 성평등에 대한 인식 정도, 그리고 성평등한 대전을 위한 정책 욕구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2년 4월에서 5월 동안 대전시 5개 기초자치구 지역의 20- 50대 주민 75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원과 응답자 간 면대면 면접형태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728부의 설문 응답지가 유의미한 분석 자료로 활용되었다.

조사도구는 기존의 성평등 인식 관련 연구를 토대로 작성한 설문지를 전문가의 자문의견 수렴을 통해 수정·보완하여 최종 구성하였으며, 조사된 설문자료는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T검증, F검증을 실시하였다.

2) 조사내용

설문조사의 주요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1〉 설문지 조사 내용

항 목	세 부 내 용
대전광역시 시민들의 성차인식(性差認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생활영역 ▶ 직장생활영역 ▶ 기타생활영역
대전광역시의 성평등 수준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성평등 수준 평가 ▶ 지역 내에서의 성차별 경험 정도 ▶ 지역의 영역별 성평등 수준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대표성 분야 - 여성의 경제세력화 분야 - 소외여성 사회통합화 분야 - 여성의 안정성 분야 - 성평등 정책수행 분야
대전광역시의 성평등 제고를 위한 정책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요구도 우선 순위 ▶ 성별에 따른 요구도 ▶ 연령에 따른 요구도 ▶ 거주지에 따른 요구도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 730명중 여성은 382명(52.3%), 남성이 348(47.7%)로 여성응답자가 약간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서구가 238명(32.6%)로 가장 많았고 중구 163명(22.3%), 유성구 135명(18.5%), 대덕구와 동구가 각각 97명(13.3%)로 구성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34.1%(249명)로 가장 많았으며 30대가 31.5%(230명), 30대미만이 18.2%(132명), 50대가 16.3%(119명)으로 구성되었다. 결혼여부는 기혼의 경우가 74.8%(539명), 미혼, 사별, 이혼 등 비혼의 경우가 25.2%(182명)으로 기혼자가 더 많은 비율로 구성되었다. 학력구성을 살펴보면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이 66%(479명), 고졸이 24%, 대학원이상이 8.5%, 중학교졸업이 1.5%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직업군을 살펴보면 사무관리직이 26.6%(19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전문직(연구, 교육 포함)이 16.8%, 판매. 서비스직이 16.6%, 가정주부가 12.8%, 자영업이 11.1% 순으로 나타났다.

〈표 1-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항 목	세 부 구 분	빈도(명)	유효 퍼센트(%)
성별	여자	382	52.3
	남자	348	47.7
	합계	730	100.0
지역	동구	97	13.3
	서구	238	32.6
	중구	163	22.3
	대덕구	97	13.3
	유성구	135	18.5
	합계	730	100.0
	연령	30세 미만	132
30~39세		230	31.5
40~49세		249	34.1
50세 이상		119	16.3
합계		730	100.0
결혼 여부	비혼(미혼, 사별, 이혼 등)	182	25.2
	기혼(사실혼 관계 포함)	539	74.8
	합계	721	100.0
학력	중학교 졸업	11	1.5
	고등학교 졸업	174	24.0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	479	66.0
	대학원이상	62	8.5
	합계	726	100.0
직업	판매/서비스직	121	16.6
	자영업	81	11.1
	사무관리직	194	26.6
	기능/작업직 (건축작업원, 기계조작원, 우편배달원, 운전기사)	41	5.6
	전문직(연구, 교육 포함)	122	16.8
	가정주부	93	12.8
	학생	32	4.4
	자원봉사 및 사회참여활동	10	1.4
	기타	34	4.7
	합계	728	100.0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이 연구는 위와 같은 연구방법을 통하여 대전지역 시민의 성평등 현황에 대한 인식, 그리고 성평등 제고를 위한 그들의 요구를 성 주류화 전략에 반영하고자 하며, 연구 결과를 통하여 다음의 효과가 기대된다:

첫째, 시민이 체감하는 지역사회의 성평등 상태와 경험, 그리고 성평등화를 위한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지역사회 성평등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둘째, 지역의 특성과 시민의 요구를 고려한 광역 및 기초자치구별 성평등 목표 설정과 주력사업에 대한 성 주류화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셋째, 시민의 성차 및 성평등 인식 현황과 이에 관여하는 여러 변인들을 파악함으로써 성평등한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개입 전략을 세우는데 기여

넷째, 지역의 성 주류화 전략에 대한 지자체의 실천 의지를 담아내는 ‘대전 성평등 현장’ 개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다섯째, 시민과 지방정부 공무원, NGO 활동가와 전문가 등 성 주류화 전략 및 정책 실행 도구에 관심 있는 집단에 대한 교육 및 홍보자료로 활용

제 2 장

성평등과 성 주류화에 관한 이론적 고찰

.....
제1절 성평등에 대한 이해

제2절 성평등 전략으로서의 성 주류화

제3절 지역사회와 성 주류화 인프라
.....

제2장 성평등과 성 주류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성평등에 대한 이해

평등은 개인의 권리이고 국가는 모든 국민이 평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조건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우리나라 헌법에도 보장된 권리이다. 성평등이란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이 서로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받고 똑같은 참여의 기회를 주며 같은 권리와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즉, ‘남녀가 인간으로서 평등해야 한다’는 의미로 여성과 남성이 지닌 비본질적인 특성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여성과 남성이 같다는 것을 뜻한다(남승희, 2000)

성평등의 개념이 갖는 의미와 관점은 단계적인 변화과정을 거쳐 확대되고 있다. 먼저 초기의 성평등의 개념은 모든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기회의 평등’을 의미하였다. 여성들에게 남성과 동일한 기회를 허용할 경우, 여성들은 남성들과 동일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따라서 기회의 평등만으로 성평등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오랜 기간 사회적으로 가부장제의 역사가 지속되는 동안 다양한 형태의 성차별이 누적됨으로써 기회의 평등만으로는 성평등을 이루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기회평등에 대한 현실적 한계로 인해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권리를 누릴 수 있게 제공되는 선결조건 즉, ‘조건의 평등’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예를 들면 여성의 일할 수 있는 기회의 평등은 직장보육시설이나 육아비 보조 등 자녀양육의 사회화와 가사노동의 부부 공동분담 등의 조건이 전제될 때 여성이 평등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기회의 평등이 그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구조상 기회와 조건이 평등화되어도 현실은 결과의 평등이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결과의 평등’을 고려하게 되었다. 형식적인 평등이 아닌 실질적 평등을 성의 관점에서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절대적 평등이 아

닌 상대적 평등이고, 결과적인 평등 상태를 추구한다.

결과의 평등을 위하여 기존의 성 차별적 관행을 제거하고 누적된 불평등함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가능할 수 있다. 적극적 평등실현조치(Affirmative Action)은 역사적으로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아온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오랜 차별로 인한 불이익을 보상해주기 위한 정책을 의미한다. 오랜 시간 동안 한 사회의 어떠한 집단이 차별을 받아왔다고 인정되면, 그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취업이나, 입학, 기타 사회적 이익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부여해주는 것이다.

적극적 조치는 성 불평등의 문제뿐 아니라, 다양한 응용도 가능하다. 능력과 조건이 다른 학생들을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올리기 위한 교육적 차원의 조치도 결과적 평등을 지향한 적극적 조치와 비슷한 맥락의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평등 패러다임은 역사적으로 누적된 차별로 인해 경쟁사회에서 요구되는 조건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 차이에 대해 적절한 배려를 하는 ‘결과의 평등’의 의미는 것은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등 개념이다.

성평등한 상황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대한 사회적 동일한 가치부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들이 수행하는 다양한 역할과 그 가치를 동일하게 인정하고 편견 없이 수용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성평등은 성별에 따른 역할과 그에 대해 불평등하게 가치를 부여해 온 관행을 유지해 온 사회 구조를 개선하고, 인간의 삶이 만들어 낸 다양하고 새로운 가치들이 균형을 이룰 때 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따라야 한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의 성평등 실현은 정부와 관료, 엘리트 지식인 집단이 주도하는 제도와 정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평등에 대한 생각, 체감도, 불만족스러운 부분 등 한 지역 사회 구성원들의 성평등에 관한 관심과 인식을 점검하고 살펴 구체적인 성평등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사회구성원들의 성평등에 관한 높은 인식수준은 기존의 성 편견적 사회적 제도와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 성평등 정책의 기획과 결정, 정책 사업의 수행, 그리고 결과 평가에 대한 참여와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이러한 참여와 협업의 과정이 지속적으로 이루

어질 때 궁극적으로 불평등한 사회구조와 부당한 차별적 상황들이 제거되고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2절 성평등 전략으로서의 성 주류화

성 주류화가 국제적 정책담론에 대두된 것은 1995년 북경에서 개최된 제4차 UN 세계여성회의를 통해서라고 알려져 있다. 유럽에서 성평등 실현 규범으로 성 주류화가 확산된 이후, UN은 빈곤, 교육, 보건, 정치적 의사결정, 경제, 인권, 여성에 대한 폭력, 무력분쟁, 제도적 장치, 환경, 미디어, 여자어린이 등 12개의 주요관심분야에서 성 주류화를 실천할 것을 촉구하여 각국 정부의 모든 정책과 사업에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책무를 부여하였다(김양희 외, 2007).

성 주류화는 주요 정책에 성인지(Gender Sensitive) 관점을 통합함으로써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고르게 영향을 미치고, 사회의 성평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시도를 의미한다(김경희 외, 2011). 과거의 여성정책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동등 대우’라는 좁은 정책 틀에 기초했다면, 성 주류화는 보다 광범위한 정책영역과 문화, 사회구조 속에 내재화된 성별 불평등 관행을 고려하며, 고용, 건강, 교육, 돌봄 등 여성의 삶 제반 영역에서 사회적 시민권으로서의 성평등을 목표로 한다고 볼 수 있다(김경희 외,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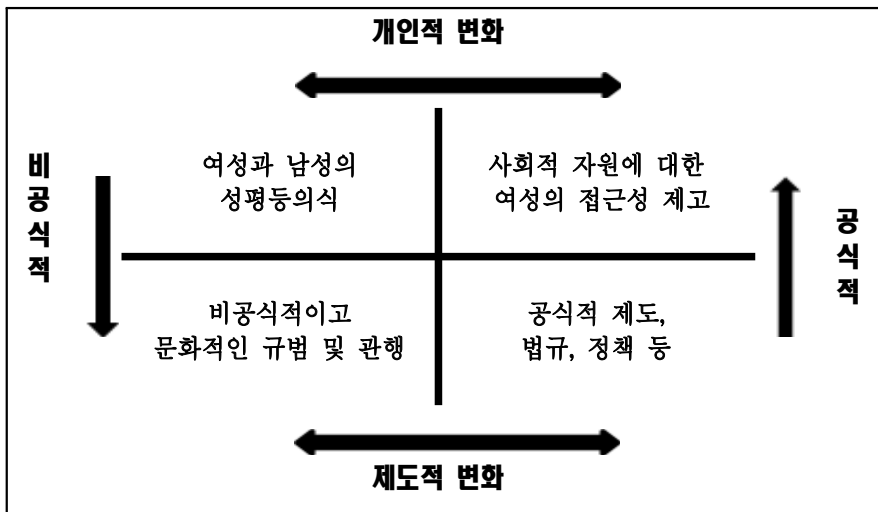
성 주류화는 다음 세 가지 단계에서의 실천을 의미한다. 먼저, 주류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이 의사결정자로 참여하여 목소리를 내는 ‘여성의 주류화(mainstreaming of women)’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하여 남녀에게 차별적 영향을 미치는 지 검토하는 ‘젠더의 주류화(mainstreaming of gender)’ 단계. 그리고 기존의 남성 중심으로 되어 있는 주류영역의 시스템과 문화에 소수의 여성이 상징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하게 참여하여 주류가 되는 ‘주류의 전환(transformation of the mainstream)’ 단계에서의 실천을 말한다.

성 주류화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성평등을 위한 전략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도구와 방법이 개발되어 왔다. 성별화 된 통계, 성평등 인식훈련, 모니터링과 평가, 성인지적 예산의 확립, 정책의 성별 분석, 법과 제도내의 평등체제 등의 도구들이 사용된다.

한 사회의 성 주류화과정은 개인적 차원의 변화 뿐 아니라 제도적 차원에서 공식적인 변화와 비공식적 변화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접근으로 이루어진다. 즉, 개인적이며 비공식적 차원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성평등 의식의 변화를 추구하고 개인적 차원이면서 공식적인 변화는 남성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졌던 사회적 자원에 대한 여성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도적 차원의 비공식적 변화는 양성평등에 위배되는 남성 중심적 규범과 관행, 인식의 변화 수 있고 제도적 차원의 공식적인 변화는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공식적인 제도, 법규 및 정책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성 주류화의 구성요소들이 다차원적으로 상호 연계되어 변화되고 재구조화될 때 성 주류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원숙연, 2009)

[그림 2-1] 성 주류화의 흐름도



(자료 : Moser,2005; Moser and Moser, 2005; 원숙연(2009), 재인용)

성 주류화를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가 하는 것도 주요한 관점 중의 하나이다. 성 주류화를 추진하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Walby, 2005; 원숙연, 2010 재인용) 먼저 의제설정접근으로 기존 정책과정을 지배하는 패러다임의 본질적 변화와 재조정을 강조하는 접근이다. 이 방식은 정책결정 과정 자체를 변화시켜서 양성평등의 목표를 최우선시 여기며 젠더를 하나의 독립된 의제로 설정하는 접근방식이다. 그러므로 기존의 남성 중심과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실질적이고 근본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득권 세력에 의한 저항을 유발할 수 있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또 다른 접근은 통합주의 접근으로 기존의 정책에 대한 도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젠더 이슈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즉, 젠더 이슈가 기존의 패러다임, 전략, 정책 우선순위 안에서만 논의되어 정책과정이나 구조의 전체적인 틀은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의 절차를 그대로 반영하는 과정으로 ‘여성’이 하나의 변수로서 고려되는 방식이다. 통합적 접근은 실질적 효과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해 소극적 접근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기득권 세력이 느끼는 성 주류화에 대한 거부감이나 위협정도가 낮아 수용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두 가지 접근의 강점과 현실적인 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상황과 이슈에 따라 조절해 나가고 있다.

실천적 성 주류화 전략을 위해서는 먼저 정책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정책의 목표와 수단, 자원배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성평등을 고려해야 하며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 이슈와 관련하여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의 역할과 책임, 현실이 어떠한지, 그리고 검토 중인 정책과 프로그램이 남성과 여성에게 어떠한 차별적 영향을 미칠 것인지 분석해야 한다.

또한 여성 뿐만 아니라 여성과 남성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의사결정의 참여, 자원에 대한 접근권과 통제권한이 성별을 분석하고 해당분야의 전반적인 목표의 달성과 성평등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여 정책의 목표와 내용, 전략, 행동 뿐 아니라 구조, 과정, 문화를 포함한 제도적 변화의 필요성을 탐색한다. 단지 수적으로 여성의 참여를 늘리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성인지적 관점이 정책과 계획수립, 자원할당

등의 과정에서 중심이 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제3절 지역사회와 성 주류화 인프라

1. 대전지역의 지역 및 인구 특성과 현황

대전의 행정구역은 대전부가 1949년 대전시로 개칭된 때 35.7km² 이었고, 1963년에 대덕군 유천면 전 지역과 산내면·회덕면 일부가 편입되어 88.21km²이었으며, 1983년에는 대덕군 회덕면·유성읍 전역과 구즉면·탄동면·기성면·진잠면 일부가 편입 203.80km²의 면적에 2구 60개 행정동으로 시세가 확대되었다. 현재는 539.97km²의 거대 광역시로 성장하여 기초자치단체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가 있다.

인구규모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2012년 초 기준 대전시의 인구는 약 150만 명으로 전국의 약 4800만의 3.13%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전 내의 인구 분포도를 살펴보면 서구에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유성구, 중구, 동구, 대덕구 순으로 거주하고 있다.

남녀비율을 보면 <표2-1>에서 보는바와 같이 동구, 유성구, 대덕구를 제외한 나머지 2개구에서 여성의 거주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대전광역시 특성과 일반 현황

지역현황	인구규모	전체			2012.4 기준 (단위:명)
		전체	여성	남성	
	대전광역시	1,520,628	758,886	761,742	
	동구	252,962	124,731	128,231	
	중구	264,365	132,386	131,979	
	서구	497,259	252,018	245,241	
	유성구	300,195	148,719	151,476	
	대덕구	205,847	101,032	104,815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지역별 65세 여성노령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중구, 동구지역이 각각 13%, 13.5%로 여성노령 거주비율이 높았으며 유성구는 여성노령인구 분포가 7.8%로 상대적으로 낮은 거주율을 보이고 있다.

가구별 특성을 살펴보면 대전지역의 한부모 가구는 9.5%(2010)로 이 중에서 모자가족(7.5%)이 부자가족(1.9%)보다 4배정도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가구주 분포에서도 여성가구주의 비율이 23.1%(2010)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표 2-2> 대전광역시 여성가구주 가구분포

연도	여성가구주 가구	여성가구주 비율(%)
1995	56,362	15.8
2000	77,260	18.5
2005	108,198	22.4
2010	121,739	23.1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대전시 여성의 교육수준은 4년제대학 졸업비율이 17%로 고학력 여성의 비율이 타 광역시보다 높으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7.2%로 전국 평균비율(49.4%)보다 낮다. 취업여성들은 90%가 넘는 대다수가 사회간접자본과 기타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대전지역 성 주류화 제도 추진 현황 및 특성

1) 추진 전략 및 도구

대전광역시 성주류화 제도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크게 법적 기반과 행정추진체제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하였고, 조례에는 성주류화 제도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들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성주류화 제도 실행을 위한 행정추진기구도 갖추고 있다.

현재 대전광역시는 「대전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2001년 제정하고 여성

발전기본법에 의한 대전광역시 여성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대전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따르면, 대전광역시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여성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의 내용은 크게, 여성정책, 여성정책위원회, 여성발전·복지기금, 요보호여성지원협의회에 관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시와 소속기관에서 조사, 관리, 발표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에 성별을 구분하여 표기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대전시는 조례를 개정(08. 6. 20)하여 성별영향평가 규정을 신설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추진을 명문화하였다. 정책평가의 경우, 시장은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여성정책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부서 평가 및 경영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각종 위원회 설치에 있어 위촉직 위원의 30퍼센트 이상을 여성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여성의 공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채용목표제를 시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육아휴직제 및 직장내 보육시설 운영, 요보호여성에 대한 보호, 여성단체 지원, 가정·학교·사회교육 과정에 남녀평등이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교과목을 편성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다.

현재 대전시는 여성발전기본조례 개정을 고려하여 출연 연구기관인 대전발전연구원에 여성발전조례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요청한 상태이며, 새롭게 개정될 여성발전기본조례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비롯한 성인지 예산제도와 성인지 통계제도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관련 과정 및 사업 강화 내용이 명문화될 예정이다.

2) 대전광역시 성 주류화 전략 추진 체계

현재 대전광역시는 복지여성국 하위 조직으로, 여성가족청소년과를 두고 있으며, 성주류화 실행 핵심 추진 조직으로 여성정책 담당 부서를 두고 있다. 2011년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보육정책계가 분리됨으로써, 여성가족청소년과는 여성정책담당, 가정복지담당, 청소년담당, 어린이안전담당의 4담당으로 구성되게 되었다.

여성정책계의 주요 업무는, ①양성평등정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②여성정책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③여성의 취업증대와 사회참여 지원 ④여성인재뱅크 운영 및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⑤여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⑥성별영향평가 확대실시 및 교육 ⑦여성인력개발센터 지원 및 지도감독 ⑧여성정책위원회 운영 등이다.

<표 2-3> 대전광역시 복지여성국 인력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복지 정책과	장애인 복지과	저출산 고령 사회과	보건 정책과	식품 안전과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계	여성 정책	가정 복지	청 소 년	아 동	기 타
인원수	106	18	12	19	24	15	18	7	4	4	3	.

자료 :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

여성정책업무부서에서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력 향상교육을 담당하는 전담인력은 1명으로 나타나 있다. 대전시의 성별영향평가 전담자는 현재,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력향상교육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및 주요여성정책추진 업무보고 등도 전담하고 있어, 성인지력향상 교육이나, 성별영향평가의 질적 향상과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이 분야 인력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

여성가족정책을 중심으로 한 대전시 복지여성국 예산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4> 2009~2012 대전광역시 여성정책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부서명	전년도 본예산	해당년도 본예산	전년도 대비 증감	증가율
2009	● 시 전체예산		25,153억		
	● 여성가족청소년과	108,406	123,513	15,107	
	- 여성복지	6,786	9,410	2,624	
	- 가족복지	1,011	900	-111	
	- 아동	14,756	17,209	2,453	
	- 보육	77,355	90,368	13,013	
	- 청소년	8,257	5,329	-2,928	
2010	● 시 전체예산		26,853억		
	● 여성가족청소년과	123,513	174,212	50,699	
	- 여성복지	9,410	7,300	-2,110	
	- 가족복지	900	1,620	720	
	- 아동	17,209	21,679	4,470	
	- 보육	90,368	137,227	46,859	
	- 청소년	5,329	5,765	436	
2011	● 시 전체예산		27,538억		
	● 여성가족청소년과	174,212	214,465	40,253	
	- 여성복지	7,300	8,125	825	
	- 가족복지	1,620	3,076	1,456	
	- 아동	21,679	23,623	1,944	
	- 보육	137,227	163,118	25,891	
	- 청소년	5,765	15,830	10,065	
2012	● 시 전체예산		29,119억		
	● 여성가족청소년과	50,672 ¹⁾	53,810	3,138	
	- 여성복지	8,125	8,924	799	
	- 가족복지	3,076	3,832	756	
	- 아동	23,623	25,099	1,476	
	- 청소년	15,155	14,550	-605	

자료: 대전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내부자료

2012년 본 예산에서 여성가족청소년과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시 본예산의 약1.8%이다. 2011년에 약7.8%를 차지하였던 것에 비하면 현저히 줄어 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2011년 추경예산 수립부터 보육분야가 여성가족청소년과 예산에서 분리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전광역시 5개 기초자치구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담인력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2011년 중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보육정책계가 분리된 결과로 전년도 예산에 변화가 있음.

<표 2-5> 기초자치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담인력 현황(2012년)

구 분	평가 주관부서장	평가 담당	총괄수행
자치구	주민(지원,복지)과장	여성업무 담당	5명(행정4, 사회복지1 / 남4, 여1)

대전광역시가 여성정책위원회를 활용하여 성별영향평가 과제에 대하여 협의하고 선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과 같이, 기초자치구에서도 유사한 과제선정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 기초자치구에서는 과제선정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여성아동분과에서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과제를 선정하고 평가 전반에 대한 자문을 받고 있다. 기초자치구의 과제선정위원회 구성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6> 기초자치구 과제선정위원회 구성 현황(2012년)

구 분	성별영향분석평가 자문 기구	구 성	비 고
동 구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위원회	17명/ 구청장, 구의원 2인/ 전문가14인	과제선정, 평가 전반 자문
서 구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실무협의회(여성분과)	6명/ 담당, 전문가5인	최종보고서 심의
대덕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여성가족분과위원회	7명/ 계장, 담당, 전문가 5인	과제선정, 심의의결, 평가전반 자문

3) 여성정책연구기관 현황

대전광역시는 2007년부터 지역 정책 개발 전문 기관인 대전발전연구원에 여성정책연구부를 신설하여 여성정책 관련 연구를 수행해 왔다. 2010년부터 여성정책연구부를 여성가족정책센터로 변경하여 도시경영연구실 소속 연구위원 2명의 겸임 체제로 운영해오다, 2011년 대전광역시로부터 출연금을 확보하여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를 개소하였다.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는 여성가족통계 발간 및 여성·가족정책 계획 수립 관련 연구, 대전여성 사회참여지표 개발 및 여성정책 현황과 개선에 대한 연구 등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여성과 가족 관련한 복지 지원 정책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지역 사회의 가족정책 전문가와 NGO·복지기관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 하고 있는 대전가족공동체포럼을 주제를 변경하여 2007년 이후 계속해서 진행해 오고 있으며, 대전성평등정책포럼도 신설하여 공무원과 연구전문가, 사회단체, 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이 참여하는 참여형 정책 실행 네트워크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대전발전연구원은 2012년 4월, 여성가족부로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지정받았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서 작성을 위한 컨설팅트단을 양성·운영하고 있다.

3. 주요 성 주류화 정책 추진 현황

1) 성별영향분석평가

2005년 이후 대전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총 450개의 자체평가 과제와 2개의 심층평가로 추진되었다. 자체평가는 대전시와 자치구의 사업 담당공무원이 직접 소관 업무에 대해 평가를 추진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심층평가는 지역 내 핵심정책을 심층 분석, 평가하는 형태로 추진되었다.

<표 2-7> 대전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수의 변화
(단위: 개)

연도	과제 수		
	전체	대전광역시	5개 자치구
2005	4	4	
2006	14	9	5
2007	23	8	15
2008	66	16	50
2009	141	19	122
2010	105	12	93
2011	99	14	85
계	452	82	370

2005년 관련 지침에 의거하여 대전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는 '05년 4개 과제를 시작으로, '06년 14개, '07 24개(심층과제 1개 과제 포함), '08년 67개 과제(심층과제 1개과제 포함)에서 '09년에는 141개 과제로 2005년도에 비해 무려 35배 가까이 평가과제를 대폭 확대되었다. '09년의 증가폭이 대단히 크게 나타난 것은 2008년도 6월 대전광역시여성발전조례에 성별영향평가 근거 규정을 마련해 둔 점으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추진 기관별로 살펴보면, 2009년을 기준으로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는 대전광역시 19개 과제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지 않음에 비하여, 자치구의 과제가 122개 과제로 전년에 비하여 대폭 증가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실제 주민과 밀착된 현장에서 집행되는 세부 내용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정착되어가고 있으며, 향후 모든 시정 사업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합의가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당시 대전시에서는 기초자치구로 하여금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적을 근거로 인센티브를 지급한 바 있어, 이러한 제도가 수행 과제 증가의 동기로도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2007년과 2008년에는 대전시 정책과제 중 중요도와 영향력을 고려한 과제를 1개 과제씩 선정하여 심층과제를 수행하였다. 2개 과제 모두 여성가족부의 지원 아래 추진되었으며, 과제의 선정과 평가는 대전광역시출연 정책연구기관과 전문 인력이 참여하여 이루어졌다. 특히 2008년 심층과제는 대전광역시가 전국 장애인복지 수범 도시로서 사업의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사업으로 평가후 자체 환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개선효과가 나타나는 등 다른 평가 과제와 질적인 면과 성과 면에서 차별화가 뚜렷하였다.

2010년 이후에도 대전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매년 100개 남짓 사업을 대상으로 수행되어져 왔으며, 광역시와 자치구의 평가서 작성 비율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 성인지예산제도

대전광역시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2년 4월 성인지예산제도의 본격 실시 전, 성인지예산서 시범 작성 기간을 가졌다. 대전광역시 및 기초자치구의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수는 총 137개였으며, 전체 성인지예산서의 예산액은 191,250백만원으로 나타났다. 평균 작성 대상 과제 수는 약 23개였으며, 평균 예산액은 31,875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중구와 대덕구가 27개로 기초자치구 중에서는 가장 많은 과제를 작성했다. 예산액을 살펴보면 서구(11,230백만원)가 가장 액수가 컸으며 동구(2,497백만원)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별 차이가 있었다.

<표 2-8> 2012년 성인지예산서 시범 작성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사업수 및 예산액	일반 공공 행정	공공 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사회 복지	보건	농림 해양 수산	산업 · 중소 기업	수송 및 교통	국도 및 지역 개발
대전광역시	과제수	1	1	1	7	3	5	2	2	1	3	4
	예산액	28	88	1,000	5,192	606	137,342	637	205	50	2,485	5,617
동구	과제수	1	1	1	1	1	4	1	0	0	1	1
	예산액	6	37	29	84	196	1,756	127	0	0	193	69
중구	과제수	6	1	0	1	2	6	3	2	1	2	3
	예산액	410	24	0	106	127	4,310	444	138	155	927	2,397
서구	과제수	6	0	1	1	1	2	2	1	1	2	2
	예산액	481	0	32	24	5	7,848	103	1,255	522	740	220

유성구	과제수	4	0	1	3	1	4	2	1	1	2	3
	예산액	324	0	339	372	70	2,030	29	51	472	496	993
대덕구	과제수	2	0	1	5	1	11	3	0	0	1	3
	예산액	369	0	480	233	70	6,614	490	0	0	962	843
합계	과제수	20	3	5	18	9	32	13	6	4	11	16
	예산액	1,618	149	1,880	6,011	1,074	159,900	1,830	1,649	1,199	5,803	10,139

위에 제시된 대전광역시 및 각 기초자치구 '기능별 성인지 예산서 총괄표'는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을 기능별로 분류해 전반적인 성인지 예산 작성현황의 검토와 예산 분야별로 전년도 예산액과의 비교를 통해 비교증감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많은 대상과제가 분석된 분야는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부분(32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일반공공행정,' '문화 및 관광' 분야로 나타났으며, 가장 예산서 수가 적은 대상은 '공공질서 및 안전'으로 나타났다. '산업·중소기업'과 '교육' 분야의 대상과제도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 '예비비' 과제는 분석되지 않았다. 예산서 대상 수 대비 예산액이 큰 분야는 '사회복지,' '국토 및 지역개발,' '수송 및 교통' 분야로 나타났으며 작은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 '일반공공행정' 분야로 나타났다.

대전광역시는 11개 분야에 대하여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여 기초자치구에 비하여 다양한 영역에 대한 예산서 작성이 이루어졌으며, 문화 및 관광 부분에서 7개의 예산서가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3) 성인지 통계

대전광역시는 여성발전기본조례를 통해 성인지적 통계 구축의 근거를 마련하고 대전발전연구원이 <대전여성가족통계>를 발간하고 있다. 또한, 「대전광역시 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12)」에 근거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및 성별통계 확립’의 일환으로 광역시와 기초자치구 통계연보, 사업체 기초통계연보 및 조사 보고서 등에 성별분리통계를 쓰도록 하고 있다.

4) 성인지 교육

대전광역시는 광역시와 기초자치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과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및 성인지예산서 작성교육, 컨설턴트와의 워크숍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표 2-9> 대전광역시 공무원대상 성인지교육 및 관련 워크숍 실시 현황
(단위: 명, 종)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의식교육	767	1,117	1,141	1,197	1,581
전문교육	19	746	484	158	223
워크숍	52	82	434	78	111
교육교재 발간	2	5	5	3	4

대전광역시는 2005년도와 2008년도 두 번에 걸쳐 성별영향평가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었고, 2007년도에는 성별영향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총 3번의 영광을 안았다. 시 자체적으로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제 3 장

대전광역시 성평등 지수 현황 보고서

제1절 지역 성평등 지수 개발

제2절 대전광역시 성평등 지수 점검 현황과 과제

제3장 대전광역시 성평등 지수 현황 보고서

제1절 지역 성평등 지수 개발

여성가족부는 지난 해 『2011년 16개 시·도별 성평등수준 및 정책과제』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성격에 부합하는 성평등 현황 파악을 위한 지표의 개발과 그에 따른 지역별 성평등 현황, 그리고 성평등 제고를 위한 과제를 제안하였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보고서를 통하여 지역의 성평등수준과 취약분야 파악, 시·도별 성평등수준 비교와 함께, 여성정책 모니터링, 실효성 점검 및 정책 우선순위 설정 등을 지원하는 기능을 가진 지역 성평등지수의 지표, 산정방법의 개발, 개발된 지수를 통해서 지역 성평등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서 발간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성평등 지수는 영역별 지표에 대한 전문가 조사결과와 함께 16개 시·도별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별 성평등지표 개발 워크숍을 2차례 개최하여, 최종 영역별 지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이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지역 성평등지수의 영역, 영역별 지표는 아래와 같이 4개 영역 17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표 3-1> 지역 성평등지수의 4개 영역과 개별 지표²⁾

부문 (지표 수)	연번	부문별 대표지표	비고
① 여성의 대표성 제고 (4개)	1-1	광역 의회의원 성비	
	1-2	기초 의회의원 성비	
	1-3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장 성비	
	1-4	5급 이상 공무원 성비	
② 여성의 경제 세력화 (4개)	2-1	고용률 성비	
	2-2	남녀 임금격차	
	2-3	관리직의 성비	
	2-4	전문직의 성비	
③ 여성의 삶의 질 제고 (5개)	3-1	가사노동시간의 성비	
	3-2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3-3	범죄피해에 대한 안전인식 성비	
	3-4	육아휴직 사용 성비	
	3-5	가정폭력 여성피해자 수	
④ 소외여성 사회통합 (4개)	4-1	기초생활보장자 성비	
	4-2	공적연금 가입자 성비	
	4-3	노후준비자 성비	
	4-4	한부모가구 중 저소득가구 비율 성비	
가점영역	5-1	여성발전기금 규모	지역여성인구 대비
	5-2	여성관련 법 및 규정	
	5-3	보육아동 대비 보육비 예산	
	5-4	성별영향평가 대상 과제 수	
	5-5	공무원대상 성인지교육 참여비율	

출처: 여성가족부(2011), 『2011년 16개 시·도별 성평등수준 및 정책과제』

2) 지역 성평등지수 산정에 필요한 각 영역의 가중치는 전문가들이 평가한 각 영역의 상대적 중요도의 기하평균을 바탕으로 각 영역의 가중치와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 CR)을 산출하여 구축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의 대표성 제고 영역의 가중치는 0.17, 여성의 경제 세력화 가중치는 0.23이며, 여성의 삶의 질 제고 영역의 가중치는 0.37, 소외여성 사회통합 영역의 가중치는 0.23이다.

제2절 대전광역시 성평등 지수 점검 현황과 과제

‘여성의 대표성 제고,’ ‘여성의 경제 세력화,’ ‘여성의 삶의 질 제고,’ ‘소외여성 사회통합’ 으로 주요 영역을 나누어 점검해 본 대전광역시의 성평등 지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여성의 대표성 제고 영역

대전광역시의 ‘여성의 대표성’의 성평등수준은 전국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보여 16개 시도에서 6위로 나타났다. 세부영역 지표를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광역의회의원’, ‘기초 의회의원’, ‘5급 공무원’ 지표 값은 전국평균보다 높았으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지수는 전체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특히 여성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이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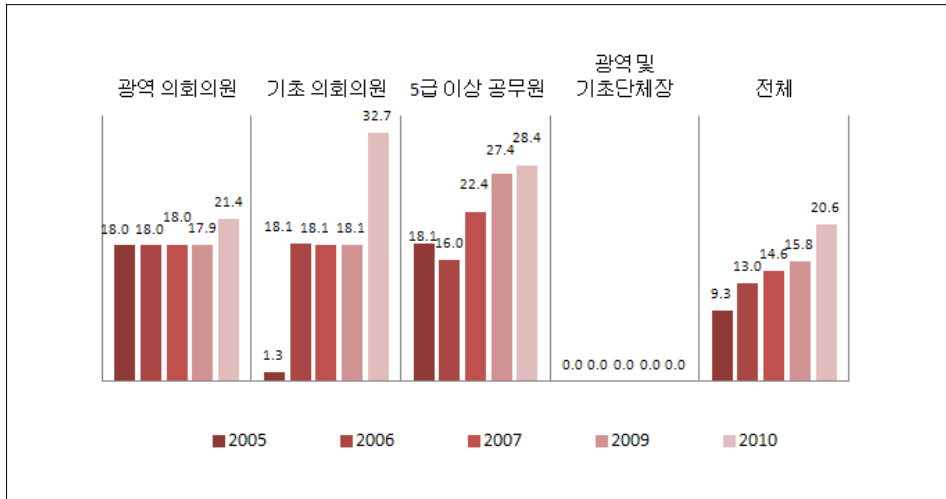
〈표 3-2〉 대전광역시 대표성 영역 세부지표 비교(2010년)

(단위 : 완전평등수준=100.0)

	광역 의회의원	기초 의회의원	5급 이상 공무원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장	전체
대전광역시	21.4	32.7	28.4	0.0	20.6
전체 1위 지역	20.8	37.8	38.0	6.2	25.7
전체평균	16.9	26.8	22.2	2.0	17.0

출처 : 여성가족부(2011), 16개 시도별 성평등 수준 및 정책과제

[그림 3-1] 대전광역시 대표성 영역의 성평등 지표 값



대표성 영역의 세부 지표별 성평등 추이를 보면 기초 의회의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5급 이상 공무원 지표 값을 보면 2006년 하락했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어 전반적으로 대전광역시의 대표성 영역의 성평등 수준은 개선되는 추이를 보였다.

2. 여성의 경제 세력화 영역

대전광역시 경제 세력화 영역의 성평등지표 값은 58.8로 전국 평균 61.0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지표 값을 전국평균과 비교하면 ‘고용률’, ‘관리직’ 지표 값은 전국평균보다 낮았고 반면, ‘남녀임금격차 지표’ 값은 전국평균보다 높았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고용율, 성별임금격차 지표 값은 다소 낮아졌으며 전문직 지표 값은 여성전문직이 남성보다 더 높아 지표 값이 지속적으로 100을 나타내고 있다 대전광역시 경제 세력화 영역의 전체 성평등 지표 값은 2008년 이후 소폭 하락하는 추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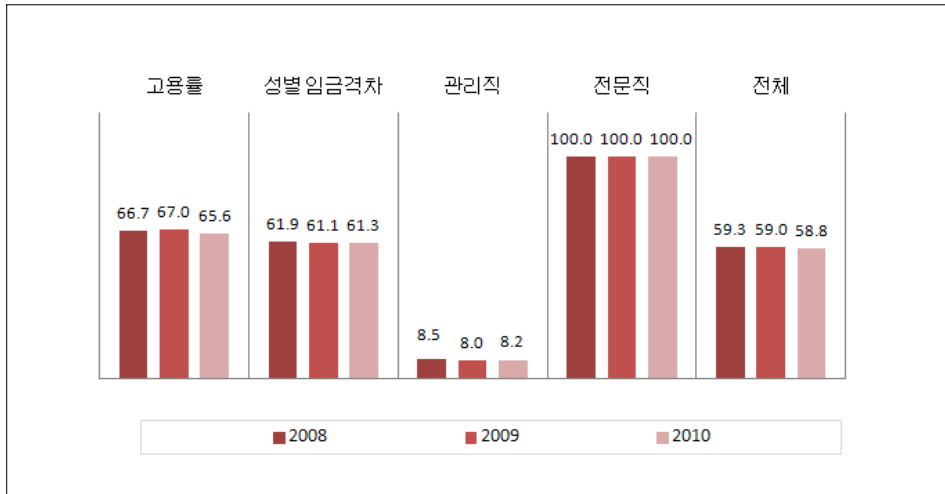
<표 3-3> 대전광역시 경제 세력화 세부지표 비교(2010년)

(단위 : 완전평등수준=100.0)

	고용률	성별 임금격차	관리직	전문직	전체
대전광역시	65.6	61.3	8.2	100.0	58.8
전체 1위 지역	79.9	63.5	14.3	100.0	64.4
전체평균	68.2	60.6	15.1	100.0	61.0

출처 : 여성가족부(2011),16개 시·도별 성평등 수준 및 정책과제

[그림 3-2] 대전광역시 경제 세력화 영역의 성평등 지표 값



3. 여성의 삶의 질 영역

대전광역시의 삶의 질 영역의 성평등수준을 16개 시·도 지역과 비교하면, 전국평균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지표 값을 전국평균과 비교하면 가사시간과 가족만족도, 가정폭력 안전도는 전국평균보다 높으나, 범죄안전도와 육아휴직의 경우는 매년 높아지고는 있지만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광역시 삶의 질 영역의 성평등수준은 2008년 53.3에서 2010년 57.3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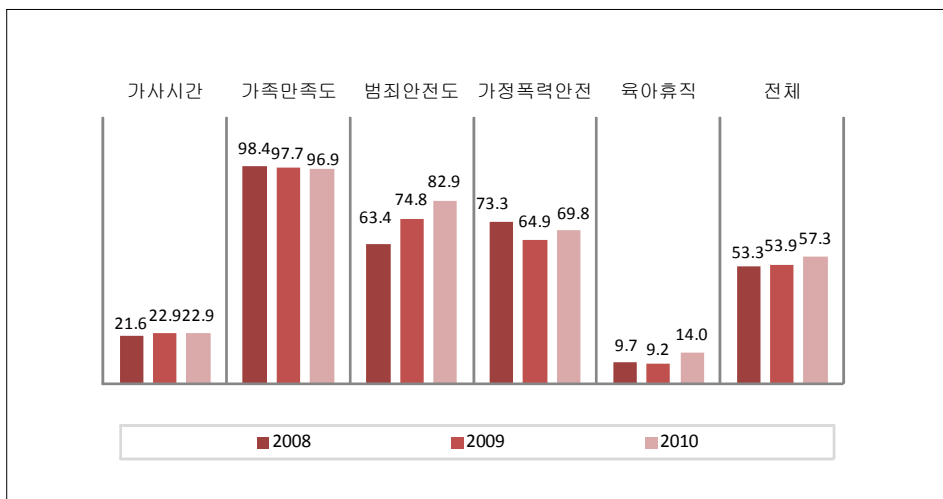
〈표 3-4〉 대전광역시 삶의 질 제고 영역 세부지표 비교(2010년)

(단위 : 완전평등수준=100.0)

	가사시간	가족만족도	범죄안전도	가정폭력안전	육아휴직	전체
대전광역시	22.9	96.9	82.9	69.8	14.0	57.3
전체 1위 지역	29.5	99.7	88.6	74.4	26.5	63.7
전체평균	20.1	93.8	86.0	65.5	20.0	57.1

출처 : 여성가족부(2011), 16개 시·도별 성평등 수준 및 정책과제

〔그림 3-3〕 대전광역시 삶의 질 영역의 성평등 지표 값



4. 소외여성 사회통합 영역

대전광역시 사회통합 영역의 성평등수준은 2008년 51.9에서 2010년 55.3으로 개선되었지만 소외여성 사회통합 영역의 성평등 수준을 16개 시·도 지역과 비교하면, 대전광역시는 전국평균보다 높은 수준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지표 값을 전국평균과 비교하면 기초생활보장자와 노후준비자 비율, 공적연금 성비는 전국평균보다 높으나, 한 부모가구 저소득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사회통합 영역의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과 비교하면 노후 준비자 비율이 가장 성평등한 지역보다 높았으나 나머지 모든 지표는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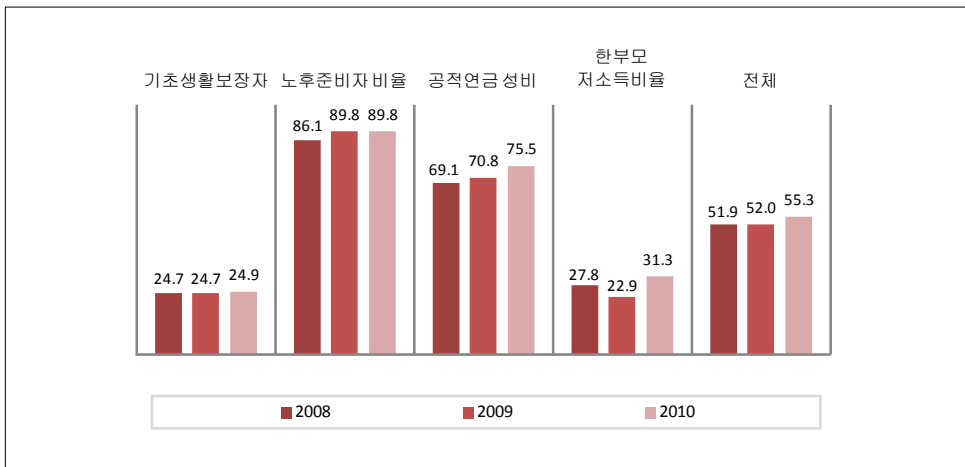
<표 3-5> 대전광역시 사회통합 세부지표 비교(2010년)

(단위 : 완전평등수준=100.0)

	기초생활보장자	노후준비자 비율	공적연금 성비	한부모 저소득비율	전체
대전광역시	24.9	89.8	75.5	31.3	55.3
전체 1위 지역	26.5	88.5	80.0	58.4	63.4
전체평균	23.4	85.5	69.7	32.1	52.7

출처 : 여성가족부(2011), 16개 시·도별 성평등 수준 및 정책과제

[그림 3-4] 대전광역시 소외여성 사회통합 영역의 성평등 지표 값



여성가족부는 4대 주요 영역별 성평등 지수 실태 분석을 통하여 대전광역시의 현 성평등 수준은 양호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몇몇 분야에서의 개선과제가 도출되었다고 진단하였다. 여성의 대표성 영역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지표를 제외하고 대체로 전국평균보다 성평등 수준이 높았고, 경제 세력화 영역은 고용률과 관리직 지표, 삶의 질 영역의 경우 범죄안전도와 육아휴직 지표 값 수준이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사회통합 영역에 있어서는 한부모가구 저소득비율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성평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불 나타났다.

이번 성평등 지수 현황 연구를 통하여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대전광역시는 범죄안전도와 한부모 저소득가구와 관련된 정책과 함께,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고용률, 여성관리자, 남성 육아휴직 참여를 제고시키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제 4 장

대전광역시민 성차인식(性差認識) 조사 결과 분석

제1절 영역별 성차인식 조사 결과 분석

제2절 소결

제4장 대전광역시민 성차인식(性差認識)

조사 결과 분석

제1절 영역별 성차인식 조사결과 분석

1. 가정생활 영역에서의 성차인식

1) 전체 가정생활영역에서의 성차인식

성차인식(性差認識)은 사회문화적 성역할(Gender Roles)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서 개인이 자주 접하는 성역할 내용과 그에 대한 태도를 묻는 질문을 제시하고 시민들의 성역할에 대한 태도, 성차별적 의식 등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사적 영역의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공간으로 가정을 설정하고, 가정생활 영역에서의 성차에 대한 인식을 ‘가정 내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의 여성책임여부’, ‘자녀성차에 따른 성역할 기대감’, ‘부부간 재산관리에 관한 인식’ 문항을 통해 살펴보았다.

문항별로 살펴보면 ‘가사와 자녀양육의 아내 책임부여’ 정도 문항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60.4%인 반면 ‘그렇다’는 19.9%로 나타났으며, 전체 평균점수는 2.15점으로 가정 일을 여성이 담당해야 한다는 인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차에 따른 성역할기대감을 묻는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문항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0.8%이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33%로 성차에 다른 자녀의 성역할 기대감에 대해서는 성평등한 의식보다는 성차에 따른 고정관념 정도가 좀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부부간 재산공동명의 관리’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64.6%,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13.8%로 결과분석 되었으며 평균점수도 4.18점으로 부부간 재산 공유에서 성평등 인식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생활영역의 전반적 성차 인식수준을 살펴보면 ‘가사노동 및 자녀양육 부담’ 과 ‘부부간 경제적 권리’ 측면에서 성평등적 인식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자녀의 성역할에 대한 기대감’ 문항에서는 성차에 따른 고정관념이 다소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 전체 가정생활 영역에서의 성평등 인식 정도³⁾

(단위: 명, %, 점)

문항	←—————→					계	평균
	전혀 아니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맞벌이를 해도 가사와 자녀양육은 아내가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279 (38.1)	163 (22.3)	141 (19.3)	97 (13.3)	48 (6.6)	728 (100.0)	2.15
남자아이는 ‘남자답게,’ 여자아이는 ‘여자답게’ 자라는 것이 바람직하다	108 (14.7)	134 (18.3)	188 (25.8)	143 (19.6)	155 (21.2)	728 (100.0)	3.06
결혼중 얻은 재산은 부부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1 (5.7)	59 (8.1)	151 (20.6)	156 (21.3)	316 (43.3)	723 (100.0)	4.18

2) 성별에 따른 가정생활영역의 성 차 인식

가정생활영역에서의 성차 인식은, t-검증 및 F-검증 결과, 성별에 따라 매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자녀양육과 가사의 책임소재가 아내에게 있다’ 문항에서 ‘그렇지 않다’ 라고 응답한 여성은 72.9%인 반면 남성은 47.5%로 ‘가사노동과 자녀양육 역할’ 에 대한 성 고정관념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성차에 따른 성역할 기대감을 나타내는 문항에서 여성은 25.7%, 남성은 57.3%가 ‘그렇다’ 라고 응답하여 남성들이 여성보다 성차에 따른 성역할 고정관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보고서 본문의 조사결과표는 설문조사지 상 10점 척도를 5점 척도로 재 정의하여 제시되어 있다. 10점 척도는 보다 섬세하게 질문에 대한 시민의 의식 결과를 볼 수 있으나, 통계적 유의미함을 측정하는데는 부적절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척도 1과 2는 ‘1’로, 3과 4는 ‘2’로, 5와 6은 ‘3’으로, 7과 8은 ‘4’로, 9와 10은 ‘5’로 척도를 재구성하였다. 숫자가 커질수록 설문에 대한 강한 긍정을 의미한다.

본 설문에 대한 10점 척도 응답 결과는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가정생활 내에서 부부의 재산관리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재산 공동명의로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여성들은 76%인 반면, 남성들은 53.5%로 여성들이 평등한 재산공유에 대한 인식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생활영역에서의 성 차에 대한 인식은 모든 항목에서 남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들이 여성에 비해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의 정도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표 4-2> 성별에 따른 가정생활 영역에서의 성평등 인식 정도

(단위: 명, %, 점)

문항	구분	전혀 아니다 ←—————→ 매우 그렇다					계	평균	t/F
		1	2	3	4	5			
맞벌이를 해도 가사와 자녀양육은 아내가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자	181 (47.6)	96 (25.3)	62 (16.3)	27 (7.1)	14 (3.7)	380 (100.0)	1.94	-7.569**
	남자	98 (28.2)	67 (19.3)	79 (22.8)	70 (20.2)	33 (9.5)	347 (100.0)	2.63	
	계	279 (38.4)	163 (22.4)	141 (19.4)	97 (13.3)	47 (6.5)	727 (100.0)		
남자아이는 ‘남자답게,’ 여자아이는 ‘여자답게’ 자라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자	83 (21.8)	89 (23.4)	110 (28.9)	53 (13.9)	45 (11.8)	380 (100.0)	2.7	-9.668**
	남자	25 (7.2)	45 (13.0)	78 (22.5)	90 (25.9)	109 (31.4)	347 (100.0)	3.61	
	계	108 (14.9)	134 (18.4)	188 (25.9)	143 (19.7)	154 (21.2)	727 (100.0)		
결혼 중에 얻은 재산은 부부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자	15 (3.9)	19 (5.0)	57 (15.0)	75 (19.7)	214 (56.3)	380 (100.0)	4.19	7.141***
	남자	26 (7.6)	39 (11.4)	94 (27.5)	81 (23.7)	102 (29.8)	342 (100.0)	3.57	
	계	41 (5.7)	58 (8.0)	151 (20.9)	156 (21.6)	316 (43.8)	722 (100.0)		

*p<.05 **p<.01 ***p<.001

3) 연령에 따른 가정생활영역의 성평등 인식

연령에 따른 가정생활에서의 성차인식 중, t-검증 및 F-검증 결과, 몇 가지 문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가사 및 자녀양육에 대한 여성의 책임여부’ 문항에서 30대 연령대에서 ‘그렇지 않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67.3%로 가장 높았으며, 50대 이상 연령대에서 49.6%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30대 미만의 연령대가 가정 내 가사 및 자녀양육에 대한 여성 일방의 책임성에 대해 30대보다 성차에 대한 고정관념이 강하게 나타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문항별로 살펴보면 ‘남자아이는 남자답게 여자아이는 여자답게 자라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문항에 30대 연령의 33.9%가 ‘그렇다’ 라고 응답했으며 50대 이상의 대사자들은 61.8%가 ‘그렇다’ 고 응답하여 성차에 대한 성역할기대에 관한 고정관념이 연령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연령별 가정생활영역에서의 성차 인식수준은 연령이 높은 50대, 40대에서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강한 것으로 드러났고, 30대미만의 젊은 연령대에서도 30대에 비해 다소 높은 성차 고정관념을 보이고 있다. 이는 연령이 어리다고 하여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으며, 젊은 연령층의 성차 인식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확대와 함께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표 4-3> 연령에 따른 가정생활 영역에서의 성평등 인식정도

(단위: 명, %, 점)

문항	구 분	←					계	평균	t/F
		전혀 아니다	1	2	3	4			
맞벌이를 해도 가사와 자녀양육은 아내가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30세 미만	49 (36.8)	29 (21.8)	30 (22.6)	15 (11.3)	10 (7.5)	133 (100.0)	2.31	4.811**
	30~39세	97 (42.4)	57 (24.9)	44 (19.2)	25 (10.9)	6 (2.6)	229 (100.0)	2.07	
	40~49세	95 (38.2)	57 (22.9)	41 (16.5)	41 (16.5)	15 (6.0)	249 (100.0)	2.29	
	50세 이상	38 (32.5)	20 (17.1)	26 (22.2)	16 (13.7)	17 (14.5)	117 (100.0)	2.61	
	계	279 (38.3)	163 (22.4)	141 (19.4)	97 (13.3)	48 (6.6)	728 (100.0)		
남자아이는 ‘남자답게,’ 여자아이는 ‘여자답게’ 자라는 것이 바람직하다.	30세 미만	22 (16.5)	27 (20.3)	37 (27.8)	26 (19.5)	21 (15.8)	133 (100.0)	2.98	8.792***
	30~39세	37 (16.1)	53 (23.0)	62 (27.0)	41 (17.8)	37 (16.1)	230 (100.0)	2.95	
	40~49세	35 (14.2)	42 (17.0)	70 (28.3)	50 (20.2)	50 (20.2)	247 (100.0)	3.15	
	50세 이상	14 (11.9)	12 (10.2)	19 (16.1)	26 (22.0)	47 (39.8)	118 (100.0)	3.68	
	계	108 (14.8)	134 (18.4)	188 (25.8)	143 (19.6)	155 (21.3)	728 (100.0)		
결혼 중에 얻은 재산은 부부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0세 미만	6 (4.6)	10 (7.7)	29 (22.3)	35 (26.9)	50 (38.5)	130 (100.0)	3.87	2.521
	30~39세	11 (4.8)	14 (6.1)	46 (20.1)	51 (22.3)	107 (46.7)	229 (100.0)	4.00	
	40~49세	11 (4.5)	22 (8.9)	52 (21.1)	49 (19.8)	113 (45.7)	247 (100.0)	3.94	
	50세 이상	13 (11.1)	13 (11.1)	24 (20.5)	21 (17.9)	46 (39.3)	117 (100.0)	3.63	
	계	41 (5.7)	59 (8.2)	151 (20.9)	156 (21.6)	316 (43.7)	723 (100.0)		

*p<.05 **p<.01 ***p<.001

4) 결혼여부에 따른 가정생활영역의 성 차 인식

결혼여부에 따른 가정생활영역의 성 차 인식은, t-검증 및 F-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모든 문항에서 비혼자(미혼, 사별, 이혼 등)들보다는 기혼자들의 경우가 남녀 성별에 따른 성역할 고정관념 정도가 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4〉 결혼여부에 따른 가정생활 영역에서의 성 차 인식 수준

(단위: 명, %, 점)

문항	구 분	←					계	평균	t/F
		전혀 아니다	1	2	3	4			
맞벌이를 해도 가사와 자녀양육은 아내가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혼 (미혼, 사별, 이혼 등)	71 (39.0)	43 (23.6)	39 (21.4)	16 (8.8)	13 (7.1)	182 (100.0)	2.21	-0.701
	기혼(사실혼 관계 포함)	205 (38.2)	118 (22.0)	99 (18.5)	80 (14.9)	34 (6.3)	536 (100.0)	2.29	
	계	276 (38.4)	161 (22.4)	138 (19.2)	96 (13.4)	47 (6.5)	718 (100.0)		
남자아이는 ‘남자답게,’ 여자아이는 ‘여자답게’ 자라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혼 (미혼, 사별, 이혼 등)	31 (17.0)	36 (19.8)	46 (25.3)	34 (18.7)	35 (19.2)	182 (100.0)	3.03	-1.264
	기혼(사실혼 관계 포함)	76 (14.2)	97 (18.1)	137 (25.6)	107 (20.0)	119 (22.2)	536 (100.0)	3.18	
	계	107 (14.9)	133 (18.5)	183 (25.5)	141 (19.6)	154 (21.4)	718 (100.0)		
결혼 중에 얻은 재산은 부부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혼 (미혼, 사별, 이혼 등)	9 (5.1)	14 (7.9)	36 (20.3)	44 (24.9)	74 (41.8)	177 (100.0)	3.90	0.115
	기혼(사실혼 관계 포함)	32 (6.0)	44 (8.2)	113 (21.1)	108 (20.1)	239 (44.6)	536 (100.0)	3.89	
	계	41 (5.8)	58 (8.1)	149 (20.9)	152 (21.3)	313 (43.9)	713 (100.0)		

*p<.05 **p<.01 ***p<.001

2. 직장생활 영역에서의 성 차 인식

1) 전체 직장생활영역에서의 성 차 인식

공적 영역의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공간으로 ‘직장’을 설정하고, 직장생활 중 경험할 수 있는 성역할에 대한 인식을 ‘직장 내 리더와 업무효율성에서의 성 차 인식’, ‘직장 내 승진과 책임감 결여에서의 성 차 인식’ 문항을 통해 살펴보았다.

문항 중 ‘직장 내 리더는 남성이어야 업무효율성이 높다’는 문항에 대해서 ‘아니다’라는 응답이 40.6%이고 ‘그렇다’는 응답이 32.1%로 나타났다. ‘여성의 퇴사율, 승진과 여성의 책임성 결여와의 관련성’을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다’는 의견이 52.9%이며 ‘관련이 있다’는 의견이 21.9%로 나타나, 응답자의 1/3정도가 직장 내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전체 직장생활 영역에서의 성 차 인식정도

(단위: 명, %, 점)

	←—————→					계	평균
	전혀 아니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직장에서 남성들이 주요 보직 및 리더의 위치에 있어야 업무 효율성이 높아진다.	169 (23.1)	128 (17.5)	196 (26.8)	152 (20.8)	82 (11.3)	727 (100.0)	2.76
여성들의 퇴사율이 높고 승진이 더딘 것은 직업에 대한 여성들의 책임성 결여 때문이다.	213 (29.2)	173 (23.7)	183 (25.1)	105 (14.4)	55 (7.5)	729 (100.0)	2.29

2) 성별에 따른 직장생활영역의 성 차 인식

성별에 따른 직장생활 영역에서의 성별에 따른 성 차 인식 정도를 살펴보면, t-검증 및 F-검증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업무효율성에 대한 질문에, 여성보다 남성들이 직장 내 업무효율성과 보직, 리더에 대한 성 차별 고정관념을 더 강하게 드러냈다.

또한 ‘여성들의 퇴사율과 승진불이익의 원인이 여성들의 (일에 대한) 책임성 결여 때문이다’ 라는 항목에서는 여성은 ‘그렇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16.3%인 반면 남성은 28.2%로 응답하여, 남성응답자의 약 1/3이 성역할과 일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4-6> 성별에 따른 직장생활 영역에서의 성차 인식정도

(단위: 명, %, 점)

		전혀 아니다 ←—————→ 매우 그렇다					계	평균	t/F
		1	2	3	4	5			
직장에서 남성들이 주요 보직 및 리더의 위치에 있어야 업무 효율성이 높아진다.	여자	125 (33.0)	77 (20.3)	94 (24.8)	51 (13.5)	32 (8.4)	379 (100.0)	2.44	-7.888***
	남자	44 (12.7)	51 (14.7)	101 (29.1)	101 (29.1)	50 (14.4)	347 (100.0)		
	계	169 (23.3)	128 (17.6)	195 (26.9)	152 (20.9)	82 (11.3)	726 (100.0)		
여성들의 퇴사율이 높고 승진이 더딘 것은 직업에 대한 여성들의 책임성 결여 때문이다.	여자	144 (37.8)	90 (23.6)	85 (22.3)	41 (10.8)	21 (5.5)	381 (100.0)	2.23	-5.672***
	남자	69 (19.9)	83 (23.9)	97 (28.0)	64 (18.4)	34 (9.8)	347 (100.0)		
	계	213 (29.3)	173 (23.8)	182 (25.0)	105 (14.4)	55 (7.6)	728 (100.0)		

*p<.05 **p<.01 ***p<.001

3) 연령에 따른 직장생활영역의 성차 인식

연령에 따른 직장생활 영역에서의 성차인식을 살펴보면, t-검증 및 F-검증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직장 내 남성리더와 보직자가 업무효율성이 높다’ 는 문항에 대해 50대 이상의 연령은 평균 3.20점으로 중간점수 이상의 긍정적 의견을 보였으며, 40대가 2.87점, 30대미만이 2.63점, 30대가 2.60점 순으로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직장 내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정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0대보다 30대미만의 연령대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동의 정도가 더 강하게 나타난 것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여성의 퇴사율과 승진불이익의 원인이 여성의 책임성 결여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50대 이상의 연령에서 2.93의 긍정적 의견을 보였으며, 40대(2.53점), 30대(2.29점), 30대미만(2.27점)순으로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직장생활내의 여성이 겪는 불이익을 여성의 책임이 결여되었다는 성역할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4-7> 연령에 따른 직장생활 영역에서의 성차 인식정도

(단위: 명, %, 점)

문항	구분	전혀 아니다 ←————→ 매우 그렇다					계	평균	t/F
		1	2	3	4	5			
직장에서 남성들이 주요 보직 및 리더의 위치에 있어야 업무 효율성이 높아진다.	30세 미만	34 (25.8)	31 (23.5)	31 (23.5)	22 (16.7)	14 (10.6)	132 (100.0)	2.63	6.456***
	30~39세	67 (29.1)	40 (17.4)	60 (26.1)	44 (19.1)	19 (8.3)	230 (100.0)	2.60	
	40~49세	52 (21.0)	44 (17.7)	67 (27.0)	54 (21.8)	31 (12.5)	248 (100.0)	2.87	
	50세 이상	16 (13.7)	13 (11.1)	38 (32.5)	32 (27.4)	18 (15.4)	117 (100.0)	3.20	
	계	169 (23.2)	128 (17.6)	196 (27.0)	152 (20.9)	82 (11.3)	727 (100.0)		
여성들의 퇴사율이 높고 승진이 더딘 것은 직업에 대한 여성들의 책임성 결여 때문이다.	30세 미만	47 (35.6)	32 (24.2)	28 (21.2)	20 (15.2)	5 (3.8)	132 (100.0)	2.27	8.407***
	30~39세	73 (31.7)	61 (26.5)	62 (27.0)	24 (10.4)	10 (4.3)	230 (100.0)	2.29	
	40~49세	71 (28.5)	54 (21.7)	65 (26.1)	39 (15.7)	20 (8.0)	249 (100.0)	2.53	
	50세 이상	22 (18.6)	26 (22.0)	28 (23.7)	22 (18.6)	20 (16.9)	118 (100.0)	2.93	
	계	213 (29.2)	173 (23.7)	183 (25.1)	105 (14.4)	55 (7.5)	729 (100.0)		

*p<.05 **p<.01 ***p<.001

4) 결혼여부에 따른 직장생활영역의 성차 인식

결혼여부에 따른 직장생활영역에서의 성차 인식수준은, t-검증 및 F-검증 결과,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문항별 응답율을 비교 분석하였을 때 다소 차이가 드러났다. ‘직장에서 남성 보직자와 리더로 인해 업무가 효율적이다’ 라는 문항에서 ‘그렇지 않다(5점 척도 중 1과 2)’ 라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비혼의 경우는 47.8%이고 기혼은 38.6%으로, 기혼자가 비혼자보다 직장생활에서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 정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의 퇴사와 승진불이익이 책임성 결여 때문이다’ 라는 문항에서는 ‘그렇지 않다(5점 척도 중 1과 2)’ 라는 부정적 응답비율이 비혼의 경우는 54.7%이고 기혼의 경우는 52.6%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 ‘그렇다(5점 척도 중 4와 5)’ 라는 긍정적 응답은 비혼의 경우 19.9%, 기혼의 경우 22.3%로 비혼자보다 기혼자들의 성차별 고정관념 동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8〉 결혼여부에 따른 직장생활 영역에서의 성차 인식 정도

(단위: 명, %, 점)

문항	구분	←					계	평균	t/F
		전혀 아니다	1	2	3	4			
직장에서 남성들이 주요 보직 및 리더의 위치에 있어야 업무 효율성이 높아진다.	비혼 (미혼, 사별, 이혼 등)	49 (27.2)	37 (20.6)	41 (22.8)	35 (19.4)	18 (10.0)	180 (100.0)	2.64	-1.746
	기혼(사실혼 관계 포함)	118 (22.0)	89 (16.6)	153 (28.5)	114 (21.2)	63 (11.7)	537 (100.0)	2.84	
	계	167 (23.3)	126 (17.6)	194 (27.1)	149 (20.8)	81 (11.3)	717 (100.0)		
여성들의 퇴사율이 높고 승진이 더딘 것은 직업에 대한 여성들의 책임성 결여 때문이다.	비혼 (미혼, 사별, 이혼 등)	56 (30.9)	43 (23.8)	46 (25.4)	23 (12.7)	13 (7.2)	181 (100.0)	2.41	-0.623
	기혼(사실혼 관계 포함)	156 (29.0)	127 (23.6)	135 (25.1)	80 (14.9)	40 (7.4)	538 (100.0)	2.48	
	계	212 (29.5)	170 (23.6)	181 (25.2)	103 (14.3)	53 (7.4)	719 (100.0)		

*p<.05 **p<.01 ***p<.001

3. 남녀관계 영역에서의 성차 인식

1) 남녀관계 영역에서의 성차 인식 수준

이 연구는 공적인 영역인 직장과 사적인 영역인 가정 내에서 경험되는 성역할에 대한 태도와 별도로, 개인과 개인 간 관계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경험되는 성차 인식을 세 가지 문항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남자의 일과 여자의 일이 따로 구분되어 있다’ 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28.3%인 반면 ‘그렇지 않다’ 라는 성평등적 응답을 한 비율은 50.1%로 남녀 성역할에 대해서는 성평등적 응답을 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관계에서 남성이 주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가’ 라는 문항에 대해서 ‘그렇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35.6%로 비교적 강한 고정관념을 보이고 있다.

‘남성의 학벌이 여자보다 높은 것이 좋은가’ 라는 문항에 대해 ‘그렇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29.5%, ‘그렇지 않다’ 고 응답한 비율이 38.8%로 성별에 따른 학벌 우위에 대한 고정관념은 동의 정도가 낮았으나, 남성학벌우위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응답율도 30%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 전체 남녀관계 영역에서의 성 차 인식 수준

(단위: 명, %, 점)

문항	←—————→					계	평균
	전혀 아니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남녀(이성)관계에서 여자보다는 남자가 주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110 (15.0)	150 (21.6)	200 (27.4)	187 (25.6)	79 (10.8)	726 (100.0)	2.99
연인이나 부부관계에서 남자의 학벌이 여자보다 높은 것이 좋다	166 (22.7)	118 (16.1)	227 (31.1)	145 (19.8)	71 (9.7)	727 (100.0)	2.72
집안일이든 바깥일이든 남자일과 여자일이 따로 있다	211 (28.8)	156 (21.3)	155 (21.2)	146 (20.0)	61 (8.3)	729 (100.0)	2.39

2) 성별에 따른 남녀관계 영역에서의 성 차 인식 수준

관계의 영역 문항에서 성별에 따른 통계적 유의미함은 t-검증 및 F-검증을 통하여 나타났다. 먼저 ‘남성주도권’에 대한 문항에서는 고정관념에 대한 평균점수가 여성이 2.7점, 남성이 3.26점으로 남성들이 여성보다 더 강하게 남성이 관계 형성에 있어 주도권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학벌’ 관련한 문항에서도 여성의 평균점수가 2.64점인 반면 남성은 2.91점으로 나타나 남성의 동의 정도가 더 강하게 나타났으며, ‘남녀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인식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답변이 여성에 비해 남성에게서 2배 정도 더 많이 나타났다. 이 문항에 대한 평균점수 비교에서도 여성은 2.26점인 반면 남성은 2.92점으로 나타나고 있어, 남성이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더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10> 성별에 따른 남녀관계 영역에서의 성차 인식

(단위: 명, %, 점)

		전혀 아니다 ←—————→ 매우 그렇다					계	평균	t/F
		1	2	3	4	5			
남녀(이성)관계에서 여자보다는 남자가 주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여자	79 (20.7)	91 (23.9)	106 (27.8)	76 (19.9)	29 (7.6)	381 (100.0)	2.70	-6.276***
	남자	31 (9.0)	59 (17.2)	94 (27.3)	111 (32.3)	49 (14.2)	344 (100.0)		
	계	110 (15.2)	150 (20.7)	200 (27.6)	187 (25.8)	78 (10.8)	725 (100.0)		
연인이나 부부관계에서 남자의 학벌이 여자보다 높은 것이 좋다	여자	101 (26.6)	66 (17.4)	115 (30.3)	63 (16.6)	35 (9.2)	380 (100.0)	2.64	-2.864**
	남자	65 (18.8)	52 (15.0)	112 (32.4)	82 (23.7)	35 (10.1)	346 (100.0)		
	계	166 (22.9)	118 (16.3)	227 (31.3)	145 (20.0)	70 (9.6)	726 (100.0)		
집안일이든 바깥일이든 남자일과 여자일이 따로 있다	여자	144 (37.8)	85 (22.3)	79 (20.7)	56 (14.7)	17 (4.5)	381 (100.0)	2.26	-7.009***
	남자	67 (19.3)	71 (20.5)	76 (21.9)	89 (25.6)	44 (12.7)	347 (100.0)		
	계	211 (29.0)	156 (21.4)	155 (21.3)	145 (19.9)	61 (8.4)	728 (100.0)		

*p<.05 **p<.01 ***p<.001

3) 연령에 따른 남녀관계 영역에서의 성 차 인식

연령에 따른 남녀관계 영역에서의 성별 고정관념에 대한 인식수준을 살펴보면, t-검증 및 F-검증 결과, 모든 문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났다. 먼저 ‘남성주도권’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긍정의 정도를 보여주었고, 30대에서는 2.73점으로 가장 낮은 긍정의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30대미만의 연령대는 2.95점으로 30대 연령층보다 더 높은 고정관념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 앞으로 젊은 연령층에서의 성 고정관념에 대한 의식개선을 위한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성별에 따른 학벌’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긍정의 척도 3.09점으로 가장 높은 고정관념에 대한 긍정을 보였으며 40대는 2.89점, 30대 및 30대미만 연령대에서는 2.60점으로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남성학벌 우위의 고정관념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50대이상의 연령대에서 3.09점으로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으며, 40대에서 2.63점, 30대미만이 2.39점, 30대가 2.36점 순으로 나타나 30대가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가장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1〉 연령에 따른 남녀관계 영역에서의 성차 인식

(단위: 명, %, 점)

		전혀 아니다 ←————→ 매우 그렇다					계	평균	t/F
		1	2	3	4	5			
남녀(이성)관계에서 여자보다는 남자가 주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30세 미만	18 (13.7)	34 (26.0)	33 (25.2)	29 (22.1)	17 (13.0)	131 (100.0)	2.95	6.981***
	30~39세	42 (18.4)	57 (25.0)	63 (27.6)	52 (22.8)	14 (6.1)	228 (100.0)	2.73	
	40~49세	37 (14.9)	44 (17.7)	74 (29.7)	69 (27.7)	25 (10.0)	249 (100.0)	3.00	
	50세 이상	13 (11.0)	15 (12.7)	30 (25.4)	37 (31.4)	23 (19.5)	118 (100.0)	3.36	
	계	110 (15.2)	150 (20.7)	200 (27.5)	187 (25.8)	79 (10.9)	726 (100.0)		
연인이나 부부관계에서 남자의 학벌이 여자보다 높은 것이 좋다	30세 미만	32 (24.2)	28 (21.2)	42 (31.8)	21 (15.9)	9 (6.8)	132 (100.0)	2.60	5.358**
	30~39세	67 (29.1)	36 (15.7)	65 (28.3)	46 (20.0)	16 (7.0)	230 (100.0)	2.60	
	40~49세	48 (19.3)	40 (16.1)	81 (32.5)	52 (20.9)	28 (11.2)	249 (100.0)	2.89	
	50세 이상	19 (16.4)	14 (12.1)	39 (33.6)	26 (22.4)	18 (15.5)	116 (100.0)	3.09	
	계	166 (22.8)	118 (16.2)	227 (31.2)	145 (19.9)	71 (9.8)	727 (100.0)		
집안일이든 바깥일이든 남자일과 여자일이 따로 있다	30세 미만	44 (33.1)	33 (24.8)	29 (21.8)	14 (10.5)	13 (9.8)	133 (100.0)	2.39	9.261***
	30~39세	75 (32.6)	56 (24.3)	50 (21.7)	39 (17.0)	10 (4.3)	230 (100.0)	2.36	
	40~49세	70 (28.2)	47 (19.0)	52 (21.0)	63 (25.4)	16 (6.5)	248 (100.0)	2.63	
	50세 이상	22 (18.6)	20 (16.9)	24 (20.3)	30 (25.4)	22 (18.6)	118 (100.0)	3.09	
	계	211 (28.9)	156 (21.4)	155 (21.3)	146 (20.0)	61 (8.4)	729 (100.0)		

*p<.05 **p<.01 ***p<.001

4) 결혼여부에 따른 남녀관계 영역에서의 성차 인식

결혼여부에 따라 남녀관계 형성 과정에서의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 본 결과, t-검증 및 F-검증 상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기혼자와 비혼자 간 문항에 대한 응답 점수를 비교해 보면, ‘남성 주도권’에 대해

여는 비혼, 미혼자가 거의 비슷한 응답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남성학별 우위’에 관한 문항에서는 기혼 응답자의 동의 정도가 2.83점으로 비혼자들의 2.62점보다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어, 기혼자들의 고정관념 정도가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 있어서도 기혼자들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상대적으로 좀 더 강한 것으로 보인다.

〈표 4-12〉 결혼여부에 따른 남녀관계 영역에서의 성 차 인식

(단위: 명, %, 점)

		←					계	평균	t/F
		전혀 아니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남녀(이성)관계 에서 여자보다 는 남자가 주 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비혼 (미혼, 사별, 이혼 등)	23 (12.8)	48 (26.7)	46 (25.6)	43 (23.9)	20 (11.1)	180 (100.0)	2.94	-0.365
	기혼(사실혼 관계 포함)	86 (16.0)	99 (18.5)	150 (28.0)	143 (26.7)	58 (10.8)	536 (100.0)	2.98	
	계	109 (15.2)	147 (20.5)	196 (27.4)	186 (26.0)	78 (10.9)	716 (100.0)		
연인이나 부부 관계에서 남자 의 학별이 여 자보다 높은 것이 좋다	비혼 (미혼, 사별, 이혼 등)	43 (23.8)	35 (19.3)	65 (35.9)	24 (13.3)	14 (7.7)	181 (100.0)	2.62	-1.936
	기혼(사실혼 관계 포함)	121 (22.6)	81 (15.1)	158 (29.5)	120 (22.4)	56 (10.4)	536 (100.0)	2.83	
	계	164 (22.9)	116 (16.2)	223 (31.1)	144 (20.1)	70 (9.8)	717 (100.0)		
집안일이든 바 깁일이든 남자 일과 여자일이 따로 있다	비혼 (미혼, 사별, 이혼 등)	57 (31.3)	42 (23.1)	43 (23.6)	26 (14.3)	14 (7.7)	182 (100.0)	2.44	-1.655
	기혼(사실혼 관계 포함)	150 (27.9)	111 (20.7)	112 (20.9)	118 (22.0)	46 (8.6)	537 (100.0)	2.62	
	계	207 (28.8)	153 (21.3)	155 (21.6)	144 (20.0)	60 (8.3)	719 (100.0)		

*p<.05 **p<.01 ***p<.001

제2절 소결

○ 이번 조사에서는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대전광역시민들의 태도를 살펴볼 수 있었다.

- ‘가정생활’, ‘직장생활’, ‘남녀관계 형성’ 영역별로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태도를 살펴본 결과, 크게 성차별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었다.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동의 정도 점수는 중간정도의 수준을 보였다.

- 가정생활에서 경험되는 ‘가사노동과 자녀양육 분담’과 ‘부부간 경제 권리 공유’ 인식에 대하여는 동의 정도가 중간 점수 이상을 보이고 있어, 다소 성평등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자녀의 성역할 기대감’에 대해서는 성차에 따른 고정관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성평등 인식 수준이 높은 반면 자녀 훈육에 있어서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나타내고 있어, 자신과 타자에 대한 이중 기준(Double Standard)의 적용을 엿볼 수 있었다. 부모교육 프로그램 구성 시 이러한 결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 직장생활에서 경험되는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시민의 동의 정도는 중간 점수 이상을 보이고 있어, 비교적 성평등적인 인식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평할 수 있다. ‘여성의 업무책임감과 퇴사율과의 관계’에 대한 동의 정도는 낮게 나타났지만, 응답자의 30%정도는 ‘직장 내 남성 리더에 대한 신뢰’ 등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및 성인지력 향상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 공공기관 및 출연기관 등의 고위직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참고할 필요가 있다.

- 관계 형성의 과정에서 경험하는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다소 낮은 동조 경향을 보였다. ‘남성 주도권,’ ‘남성 학벌우위,’ ‘성역할 고

정관념’에 대한 동의 정도가 중간 점수 이하로 나타나고 있어, 비교적 성평등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할 수 있다. 세 문항 중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동의 정도가 척도 상 가장 낮았으며, ‘남성 학벌우위,’ ‘남성 주도권’ 순으로 동의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태도는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가정생활, 직장생활, 관계 형성 영역 모두 여성에 비해 남성들의 성차에 대한 고정관념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과 남성간의 성차 인식 수준의 격차를 살펴보면, ‘가정생활’ 영역에서 가장 많은 차이를 보였으며, 그 다음이 직장생활, 남녀관계 형성 영역 순으로 나타났다.

○ 연령에 따른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동의 정도가 강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30대미만의 응답자가 30대 응답자 보다 고정관념에 보다 더 강하게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미만의 응답자들은 대부분의 영역에서 강한 성역할 고정관념 동의를 보이고 있어, 20대에 대한 성인지력 향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 혼인 상태에 있지 않는 비혼자들보다 기혼자들이 성역할 고정관념에 보다 더 강하게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5 장

대전광역시민의 성평등 실태 인식과 요구 조사결과 분석

제1절 대전광역시민의 성평등 실태에 대한 시민 의식
분석

제2절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요구 분석

제3절 소결

제5장 대전광역시민의 성평등 실태 인식과 요구

조사결과 분석

제1절 대전광역시의 성평등 실태에 대한 시민 의식 분석

1. 대전지역의 성평등 실태와 성차별 경험에 대한 인식

1) 대전지역의 성평등 실태에 대한 인식

이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생활 속에서 시민이 체감하는 성평등 실태를 점검하고, 대전지역이 보다 더 성평등해지기 위하여 시민이 바라는 정책 개선 사항은 무엇인지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우선, ‘대전은 성평등한 도시다’ 라는 문항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대전지역의 성평등 실태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물었을 때, 10점 척도 상 평균 4.80점을 보이고 있다. 성평등한 도시 대전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10점 척도 상 6점 이상)이 전체 응답 중 13.8%에 그치고 있는 데 반해, 부정적인 응답(10점 척도 상 4점 이하)은 전체 응답자 중 37.1%를 차지하고 있어, 대전지역의 성평등 실태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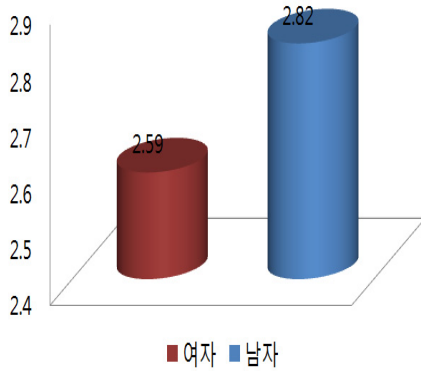
대전이 성평등한 도시인가에 대한 물음에 남성(2.82점)들보다 여성들이(2.59점)의 부정적 답변 비율이 좀 더 높았다. 여성 응답자들은 남성 응답자들에 비해 대전지역의 성평등 실태를 보다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기혼 응답자(2.64점)가 비혼 응답자(2.84점)보다 대전지역의 성평등 실태를 보다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에 따른 대전지역의 성평등 실태에 대한 종합적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유성구가 2.45점으로 가장 낮은 평균점수를 보였으며 서구와 대덕구가 2.78, 2.79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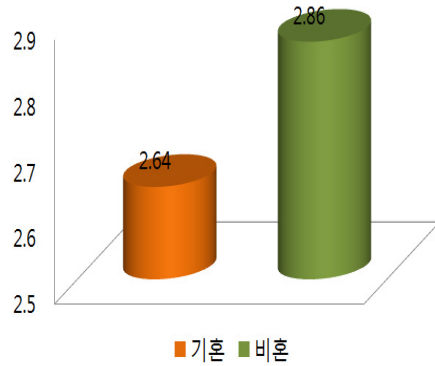
[그림 5-1] 성별에 따른 성평등 실태
종합 평가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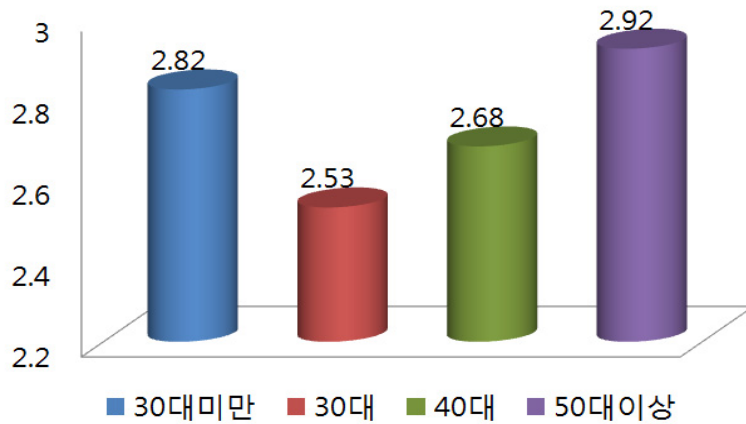


[그림 5-2] 혼인여부에 따른 성평등
실태 종합 평가

(단위: 점)



[그림 5-3] 연령에 따른 성평등 실태 종합 평가 (단위: 점)



연령별 대전지역의 성평등 실태에 대한 종합적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30대가 가장 낮게 평가하고 있었으며, 50대 이상과 30대미만의 응답자들이 성평등 실태를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 대전지역의 성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

(단위:명,% ,점)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대전은 성평등한 도시다		전혀 아니다 ←————→ 매우 그렇다					계	평균	t/F
		1	2	3	4	5			
전체 평균								2.70	
연령대	30세 미만	13 (9.8)	26 (19.7)	73 (55.3)	12 (9.1)	8 (6.1)	132 (100.0)	2.82	5.531**
	30~39세	35 (15.4)	66 (29.1)	104 (45.8)	15 (6.6)	7 (3.1)	227 (100.0)	2.53	
	40~49세	26 (10.4)	65 (26.1)	128 (51.4)	22 (8.8)	8 (3.2)	249 (100.0)	2.68	
	50세 이상	8 (6.8)	30 (25.4)	52 (44.1)	19 (16.1)	9 (7.6)	118 (100.0)	2.92	
	계	82 (11.3)	187 (25.8)	357 (49.2)	68 (9.4)	32 (4.4)	726 (100.0)		
성별	여자	46 (12.1)	117 (30.9)	174 (45.9)	30 (7.9)	12 (3.2)	379 (100.0)	2.59	-3.213**
	남자	36 (10.4)	70 (20.2)	182 (52.6)	38 (11.0)	20 (5.8)	346 (100.0)	2.82	
	계	82 (11.3)	187 (25.8)	356 (49.1)	68 (9.4)	32 (4.4)	725 (100.0)		
결혼 여부	비혼 (미혼, 사별, 이혼 등)	17 (9.4)	32 (17.8)	102 (56.7)	17 (9.4)	12 (6.7)	180 (100.0)	2.86	2.709**
	기혼(사실혼 관계 포함)	65 (12.1)	151 (28.2)	250 (46.6)	51 (9.5)	19 (3.5)	536 (100.0)	2.64	
	계	82 (11.5)	183 (25.6)	352 (49.2)	68 (9.5)	31 (4.3)	716 (100.0)		
학력	중학교 졸업	0 (0.0)	4 (36.4)	7 (63.6)	0 (0.0)	0 (0.0)	11 (100.0)	2.64	1.772
	고등학교 졸업	20 (11.5)	38 (21.8)	81 (46.6)	20 (11.5)	15 (8.6)	174 (100.0)	2.84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	51 (10.7)	131 (27.6)	236 (49.7)	40 (8.4)	17 (3.6)	475 (100.0)	2.67	
	대학원 이상	10 (16.4)	13 (21.3)	30 (49.2)	8 (13.1)	0 (0.0)	61 (100.0)	2.59	
	계	81 (11.2)	186 (25.8)	354 (49.1)	68 (9.4)	32 (4.4)	72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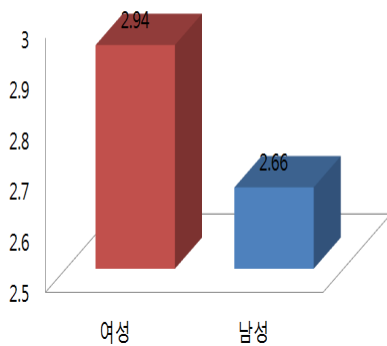
직업	판매/서비스직	18 (15.0)	24 (20.0)	57 (47.5)	13 (10.8)	8 (6.7)	120 (100.0)	2.74	1.637
	자영업	8 (9.9)	18 (22.2)	42 (51.9)	8 (9.9)	5 (6.2)	81 (100.0)	2.80	
	사무관리직	21 (10.9)	48 (24.9)	99 (51.3)	17 (8.8)	8 (4.1)	193 (100.0)	2.70	
	기능/작업직	4 (9.8)	12 (29.3)	16 (39.0)	7 (17.1)	2 (4.9)	41 (100.0)	2.78	
	전문직(연구, 교육 포함)	12 (10.0)	36 (30.0)	60 (50.0)	9 (7.5)	3 (2.5)	120 (100.0)	2.63	
	가정주부	13 (14.0)	33 (35.5)	40 (43.0)	6 (6.5)	1 (1.1)	93 (100.0)	2.45	
	학생	1 (3.2)	7 (22.6)	18 (58.1)	2 (6.5)	3 (9.7)	31 (100.0)	2.97	
	자원봉사 및 사회참여활동	1 (10.0)	1 (10.0)	6 (60.0)	0 (0.0)	2 (20.0)	10 (100.0)	3.10	
	기타	4 (11.8)	7 (20.6)	17 (50.0)	6 (17.6)	0 (0.0)	34 (100.0)	2.74	
	계	82 (11.3)	186 (25.7)	355 (49.1)	68 (9.4)	32 (4.4)	723 (100.0)		
거주지	동구	10 (10.4)	26 (27.1)	46 (47.9)	7 (7.3)	7 (7.3)	96 (100.0)	2.74	3.131*
	서구	17 (7.2)	69 (29.2)	109 (46.2)	31 (13.1)	10 (4.2)	236 (100.0)	2.78	
	중구	22 (13.6)	43 (26.5)	69 (42.6)	17 (10.5)	11 (6.8)	162 (100.0)	2.70	
	대덕구	8 (8.2)	15 (15.5)	65 (67.0)	7 (7.2)	2 (2.1)	97 (100.0)	2.79	
	유성구	25 (18.7)	34 (25.4)	67 (50.0)	6 (4.5)	2 (1.5)	134 (100.0)	2.45	
	계	82 (11.3)	187 (25.8)	356 (49.1)	68 (9.4)	32 (4.4)	725 (100.0)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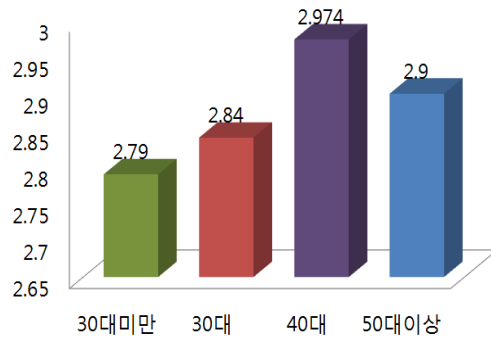
2) 대전지역 내 성차별 목격 및 경험 여부

학교나 직장, 대전지역 내 이용시설에서 성차별적 현장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적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전체 응답자의 8.3%의 응답자가 강하게 동조하였다 (10점 척도 중 9와 10). 생활속에서 성차별적인 경험을 직간접적으로 한 적이 있는가라는 응답을 1점에서 10점 척도를 활용하여 동의 정도를 물었을 때, 전체 응답자의 평균 점수는 5.05로, 일반적 의미에서 “보통”에 해당한다. 이 질문의 의미가 ‘나의 삶이 얼마나 성차별적인 요인에 노출되어 있는가 스스로 평가해 보는 것’이라고 할 때, 5.05라는 평균 점수는, 응답자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자신이 성차별적 요인들에 노출되어 있는 정도가 중간을 약간 상회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그림 5-4] 성별에 따른 성차별 목격 및 경험
(단위: 점)



[그림 5-5] 연령에 따른 성차별 목격 및 경험
(단위: 점)



10점 척도를 5점 척도로 재분류하고, 성별에 따라 자신의 삶이 얼마나 성차별적 요인들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하는지 평가해보도록 하였을 때, 남성보다 여성이 자신의 삶이 성차별적 요인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았을 때에는, 50대 응답자의 동의 정도가 더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연령 간 통계적으로 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높은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성차별적 요인への 노출 정도에 강하게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2> 성차별 현장 목격 및 경험

(단위:명,%,점)

“주변에서 성차별적 현장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이 있다”		전혀 아니다 ←————— 매우 그렇다					계	평균	t/F
		1	2	3	4	5			
전체 평균								2.80	
연령대	30세 미만	26 (19.8)	30 (22.9)	31 (23.7)	33 (25.2)	11 (8.4)	131 (100.0)	2.79	0.468
	30~39세	42 (18.3)	51 (22.2)	63 (27.4)	50 (21.7)	24 (10.4)	230 (100.0)	2.84	
	40~49세	56 (22.5)	53 (21.3)	60 (24.1)	60 (24.1)	20 (8.0)	249 (100.0)	2.74	
	50세 이상	25 (21.2)	17 (14.4)	27 (22.9)	44 (37.3)	5 (4.2)	118 (100.0)	2.90	
	계	149 (20.5)	151 (20.7)	181 (24.9)	187 (25.7)	60 (8.2)	728 (100.0)		
성별	여자	68 (17.8)	76 (19.9)	92 (24.1)	102 (26.8)	43 (11.3)	381 (100.0)	2.94	2.996**
	남자	81 (23.4)	75 (21.7)	88 (25.4)	85 (24.6)	17 (4.9)	346 (100.0)	2.66	
	계	149 (20.5)	151 (20.8)	180 (24.8)	187 (25.7)	60 (8.3)	727 (100.0)		
결혼 여부	비혼 (미혼, 사별, 이혼 등)	34 (18.9)	44 (24.4)	40 (22.2)	51 (28.3)	11 (6.1)	180 (100.0)	2.78	-0.319
	기혼(사실혼 관계 포함)	111 (20.6)	107 (19.9)	137 (25.5)	135 (25.1)	48 (8.9)	538 (100.0)	2.82	
	계	145 (20.2)	151 (21.0)	177 (24.7)	186 (25.9)	59 (8.2)	718 (100.0)		
학력	중학교 졸업	2 (18.2)	2 (18.2)	2 (18.2)	5 (45.5)	0 (0.0)	11 (100.0)	2.91	2.243
	고등학교 졸업	45 (26.0)	34 (19.7)	44 (25.4)	37 (21.4)	13 (7.5)	173 (100.0)	2.65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	89 (18.7)	105 (22.0)	122 (25.6)	121 (25.4)	40 (8.4)	477 (100.0)	2.83	
	대학원 이상	10 (16.1)	10 (16.1)	12 (19.4)	23 (37.1)	7 (11.3)	62 (100.0)	3.11	
	계	146 (20.2)	151 (20.9)	180 (24.9)	186 (25.7)	60 (8.3)	723 (100.0)		
직업	판매/서비스직	29 (24.0)	17 (14.0)	34 (28.1)	31 (25.6)	10 (8.3)	121 (100.0)	2.80	0.683
	자영업	22 (27.2)	19 (23.5)	18 (22.2)	18 (22.2)	4 (4.9)	81 (100.0)	2.54	
	사무관리직	36 (18.7)	40 (20.7)	47 (24.4)	54 (28.0)	16 (8.3)	193 (100.0)	2.87	
	기능/작업직	8 (19.5)	8 (19.5)	15 (36.6)	8 (19.5)	2 (4.9)	41 (100.0)	2.71	

	전문직(연구, 교육 포함)	24 (19.7)	24 (19.7)	24 (19.7)	43 (35.2)	7 (5.7)	122 (100.0)	2.88	
	가정주부	18 (19.4)	20 (21.5)	27 (29.0)	16 (17.2)	12 (12.9)	93 (100.0)	2.83	
	학생	4 (13.3)	10 (33.3)	8 (26.7)	5 (16.7)	3 (10.0)	30 (100.0)	2.77	
	자원봉사 및 사회참여활동	1 (10.0)	3 (30.0)	2 (20.0)	2 (20.0)	2 (20.0)	10 (100.0)	3.10	
	기타	5 (14.7)	10 (29.4)	6 (17.6)	9 (26.5)	4 (11.8)	34 (100.0)	2.91	
	계	147 (20.3)	151 (20.8)	181 (25.0)	186 (25.7)	60 (8.3)	725 (100.0)		
거주지	동구	24 (25.3)	12 (12.6)	26 (27.4)	27 (28.4)	6 (6.3)	95 (100.0)	2.78	6.888***
	서구	48 (20.3)	52 (21.9)	55 (23.2)	68 (28.7)	14 (5.9)	237 (100.0)	2.78	
	중구	36 (22.1)	32 (19.6)	42 (25.8)	36 (22.1)	17 (10.4)	163 (100.0)	2.79	
	대덕구	27 (27.8)	31 (32.0)	19 (19.6)	18 (18.6)	2 (2.1)	97 (100.0)	2.35	
	유성구	14 (10.4)	24 (17.8)	38 (28.1)	38 (28.1)	21 (15.6)	135 (100.0)	3.21	
	계	149 (20.5)	151 (20.8)	180 (24.8)	187 (25.7)	60 (8.3)	727 (100.0)		

*p<.05 **p<.01 ***p<.001

결혼여부, 학력, 직업에 따른 성차별 경험 또한 통계상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비혼과 미혼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차별 경험수준을 나타냈고, 직업유형에서는 자원봉사 및 사회참여 활동자들의 성차별 목적 및 경험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중학교 이하와 대학원 이상의 응답자들이 자신의 삶이 성차별적 요인에 노출되어 있다고 평가하는 정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저학력층과 고학력층이 성차별적 경험에 민감한 것으로 추측된다.

거주지에 따른 성차별 경험과 목적을 살펴보면 동구, 서구, 중구는 비슷한 점수 분포를 보였으며, 대덕구는 2.35점으로 성차별 경험에 대한 평가 점수가 낮았으며, 유성구 응답자는 스스로 평가한 성차별 경험에 대한 점수가 3.21점으로, 5개 구 중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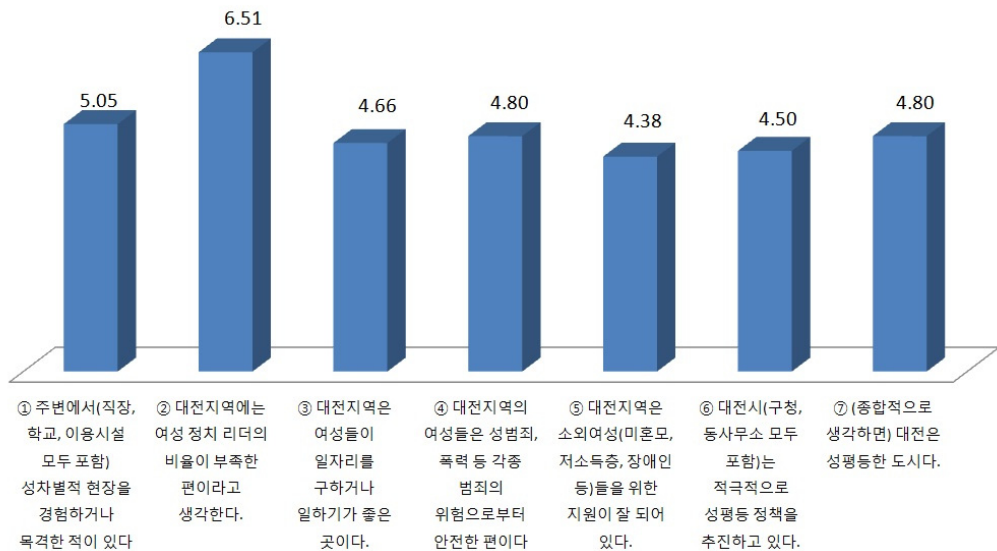
2. 대전지역의 영역별 성평등 수준에 대한 평가

설문조사를 통하여 응답자들은 주요 영역별로 대전지역의 성평등한 실태-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참여, 지원 수준-를 평가해 보았으며, 10점 척도로 각 영역별 실태에 대한 점수를 부여하였다.

지역의 성평등 실태를 평가하기 위한 주요 대상영역은 ‘여성 정치 리더의 비율은 충분한가,’ ‘여성이 일자리를 구하기에 좋은 곳인가,’ ‘범죄의 위협으로 안전한가,’ ‘소외여성에 대한 지원은 충분한가,’ ‘지방정부는 성평등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가’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5-6] 대전지역의 영역별 성평등 실태에 대한 평가

(단위: 점)



‘대전지역에는 여성 정치 리더의 비율이 부족한 편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문항에 응답자들은 (10점 만점에서) 평균 6.5점 정도의 긍정을 보였다. 여성 정치 리더가 부족하다고 강하게 느낀다는 의미이다. 응답자들은 ‘대전지역은 소외여성(미혼모, 저소득층, 장애인 등)들을 위한 지원이 잘 되어 있다’는 응답에 평균 4.4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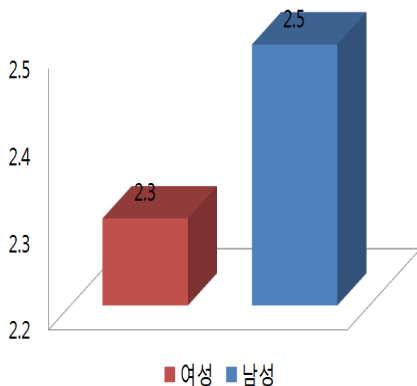
정도의 긍정을 보였다. 여성 정치 리더 문항을 제외하고, 성평등 실태를 보여주는 지표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문항이다.

1) 여성 정치 리더 및 대표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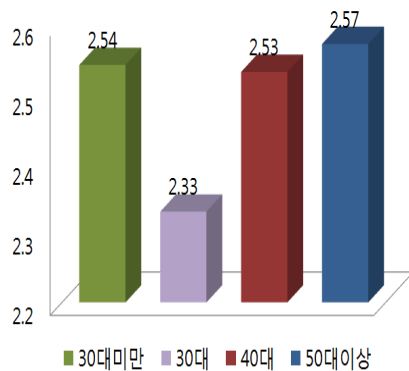
대전지역 시민들은 지역 내 여성정치 리더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여성정치리더가 부족하지 않다’는 응답비율은 13.7%에 그친 반면 부족하다는 응답비율이 44.3%로 많은 시민들이 여성리더의 부재를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여성정치리더 및 대표성에 대한 평가 정도는 통계 상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남성보다 여성이 지역 내 여성정치리더의 부족감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점수가 낮을수록 여성 정치적 대표성 부족에 강하게 동의함을 의미한다).

[그림 5-7] 성별에 따른 지역 내 여성 정치 리더와 대표성에 대한 평가 (단위: 점)



[그림 5-8] 연령에 따른 지역 내 여성 정치 리더와 대표성에 대한 평가 (단위: 점)



연령, 학력, 직업 등에 따른 여성정치리더의 부족감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평균점을 비교해 보면, 30대인 경우, 대학원의 학력인 경우, 전문직일 경우 여성정치리더에 대한 부족감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거주지별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동구지역의 시민들이 여성정치리더의 부족함을 가장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대덕구가 여성정치리더의 부족에 대해 낮은 인식 정도를 보이고 있다.

<표 5-3> 여성 정치 리더 및 대표성 영역의 성평등 실태에 대한 인식4)

(단위:명,% ,점)

“대전지역에는 여성 정치 리더의 비율이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 한다”		←					계	평균	t/F
		전혀 아니 다	1	2	3	4			
전체 평균								2.48	
연령대	30세 미만	25 (19.1)	33 (25.2)	55 (42.0)	13 (9.9)	5 (3.8)	131 (100.0)	2.54	2.077
	30~39세	61 (26.5)	73 (31.7)	60 (26.1)	30 (13.0)	6 (2.6)	230 (100.0)	2.33	
	40~49세	56 (22.5)	65 (26.1)	84 (33.7)	28 (11.2)	16 (6.4)	249 (100.0)	2.53	
	50세 이상	29 (24.6)	28 (23.7)	38 (32.2)	11 (9.3)	12 (10.2)	118 (100.0)	2.57	
	계	171 (23.5)	199 (27.3)	237 (32.6)	82 (11.3)	39 (5.4)	728 (100.0)		
성별	여자	110 (28.9)	110 (28.9)	113 (29.7)	36 (9.4)	12 (3.1)	381 (100.0)	2.30	4.703***
	남자	61 (17.6)	89 (25.7)	123 (35.5)	46 (13.3)	27 (7.8)	346 (100.0)	2.68	
	계	171 (23.5)	199 (27.4)	236 (32.5)	82 (11.3)	39 (5.4)	727 (100.0)		
결혼여부	비혼(미혼, 사별, 이혼 등)	40 (22.2)	44 (24.4)	71 (39.4)	18 (10.0)	7 (3.9)	180 (100.0)	2.49	-0.269
	기혼(사실혼 관계 포함)	129 (24.0)	155 (28.8)	162 (30.1)	60 (11.2)	32 (5.9)	538 (100.0)	2.46	
	계	169 (23.5)	199 (27.7)	233 (32.5)	78 (10.9)	39 (5.4)	718 (100.0)		

학력	중학교 졸업	2 (18.2)	3 (27.3)	5 (45.5)	1 (9.1)	0 (0.0)	11 (100.0)	2.45	0.408
	고등학교 졸업	34 (19.7)	45 (26.0)	65 (37.6)	17 (9.8)	12 (6.9)	173 (100.0)	2.58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	118 (24.7)	134 (28.1)	147 (30.8)	54 (11.3)	24 (5.0)	477 (100.0)	2.44	
	대학원 이상	16 (25.8)	17 (27.4)	20 (32.3)	7 (11.3)	2 (3.2)	62 (100.0)	2.39	
	계	170 (23.5)	199 (27.5)	237 (32.8)	79 (10.9)	38 (5.3)	723 (100.0)		
직업	판매/서비스직	29 (24.0)	33 (27.3)	41 (33.9)	11 (9.1)	7 (5.8)	121 (100.0)	2.45	0.972
	자영업	17 (21.0)	18 (22.2)	30 (37.0)	7 (8.6)	9 (11.1)	81 (100.0)	2.67	
	사무관리직	42 (21.8)	59 (30.6)	57 (29.5)	26 (13.5)	9 (4.7)	193 (100.0)	2.49	
	기능/작업직	7 (17.1)	8 (19.5)	17 (41.5)	8 (19.5)	1 (2.4)	41 (100.0)	2.71	
	전문직(연구, 교육 포함)	40 (32.8)	35 (28.7)	30 (24.6)	11 (9.0)	6 (4.9)	122 (100.0)	2.25	
	가정주부	22 (23.7)	30 (32.3)	30 (32.3)	11 (11.8)	0 (0.0)	93 (100.0)	2.32	
	학생	3 (10.0)	7 (23.3)	15 (50.0)	2 (6.7)	3 (10.0)	30 (100.0)	2.83	
	자원봉사 및 사회참여활동	2 (20.0)	2 (20.0)	5 (50.0)	0 (0.0)	1 (10.0)	10 (100.0)	2.60	
	기타	8 (23.5)	7 (20.6)	12 (35.3)	4 (11.8)	3 (8.8)	34 (100.0)	2.62	
	계	170	199	237	80	39	725 (100.0)		
거주지	동구	29 (30.5)	35 (36.8)	21 (22.1)	4 (4.2)	6 (6.3)	95 (100.0)	2.19	3.375*
	서구	57 (24.1)	64 (27.0)	79 (33.3)	25 (10.5)	12 (5.1)	237 (100.0)	2.46	
	중구	42 (25.8)	49 (30.1)	50 (30.7)	15 (9.2)	7 (4.3)	163 (100.0)	2.36	
	대덕구	10 (10.3)	18 (18.6)	44 (45.4)	19 (19.6)	6 (6.2)	97 (100.0)	2.93	
	유성구	33 (24.4)	33 (24.4)	43 (31.9)	18 (13.3)	8 (5.9)	135 (100.0)	2.52	
	계	171 (23.5)	199 (27.4)	237 (32.6)	81 (11.1)	39 (5.4)	727 (100.0)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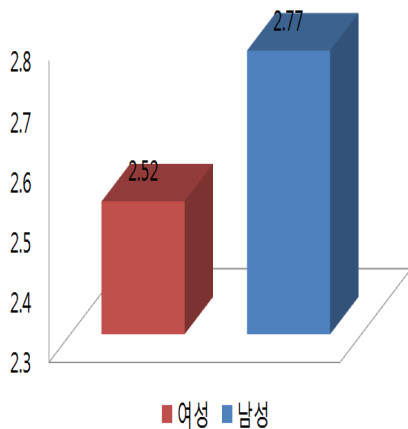
- 4) 원 설문문항은 “대전지역에는 여성 정치 리더의 비율이 부족한 편이라고 생각한다”였으나, 다른 질문 문항과의 비교를 위하여 분석 시 척도를 ‘역점화’하였다. 즉, 리더가 부족하다고 강하게 생각할수록 10점에 가까웠으나, 역점화 한 후에는 부족하다고 느낄수록 1에 가까워진다. 따라서 5점 척도 변환 후, 평점이 낮을수록 여성 정치리더의 부족함을 크게 느끼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2)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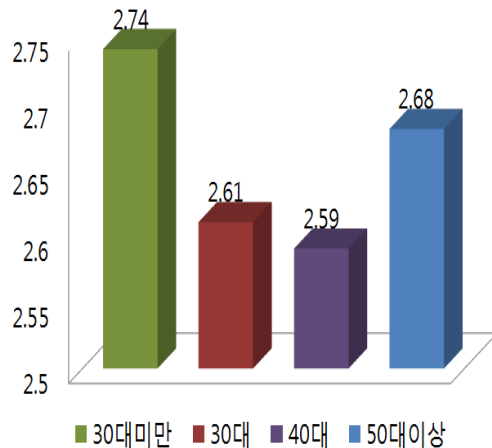
“대전지역은 여성들이 일자리환경이 좋은가” 라는 문항에 대해서 ‘일자리를 구하기 좋은 곳이다’라고 (5점 척도 상 4점과 5점) 응답한 비율이 18.8%,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다’ 혹은 ‘매우 어렵다’라고 (5점 척도 상 1점과 2점) 응답한 비율이 42.5%로, 시민들은 여성이 대전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여성 일자리 지원에 대한 평가 점수 평균도 2.64점으로 나타나, (5점 척도 중) 상대적으로 평가 점수가 낮다고 볼 수 있다.

성별에 따라 대전지역이 얼마나 여성이 일하기에 좋은지, 그 지원 환경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통계상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대전지역이 여성들이 일하기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일자리 지원 환경에 대한 평가 평균이 성별로 차이가 있었다.

[그림 5-9] 성별에 따른 지역 내 여성 경제활동 환경에 대한 평가
(단위: 점)



[그림 5-10] 연령에 따른 지역 내 여성 경제활동 환경에 대한 평가
(단위: 점)



그 외 다른 변인별 여성일자리 환경수준에 대한 인식정도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평균점수 비교 결과, 40대의 경우, 기혼자의 경우, 대학졸업의 경우 대전지역이 여성이 일자리를 구하거나 일하기에 좋은 곳이라는 생각에 가장 부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에 따른 여성 일자리 환경에 대한 인식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통계 상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평가 평균 점수가 3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중구, 동구, 대덕구, 서구, 유성구 순으로 여성 일하기 좋은 도시 대전에 대한 의견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 여성의 경제 활동 지원 관련 성평등 실태에 대한 인식

(단위:명,%집)

“대전지역은 여성들이 일자리를 구하거나 일하기가 좋은 곳이다”		←—————→					계	평균	t/F
		전혀 아니다	1	2	3	4			
전체 평균								2.64	
연령대	30세 미만	18 (13.7)	31 (23.7)	55 (42.0)	21 (16.0)	6 (4.6)	131 (100.0)	2.74	0.630
	30~39세	47 (20.4)	51 (22.2)	89 (38.7)	31 (13.5)	12 (5.2)	230 (100.0)	2.61	
	40~49세	45 (18.1)	66 (26.5)	94 (37.8)	33 (13.3)	11 (4.4)	249 (100.0)	2.59	
	50세 이상	20 (16.9)	31 (26.3)	44 (37.3)	13 (11.0)	10 (8.5)	118 (100.0)	2.68	
	계	130 (17.9)	179 (24.6)	282 (38.7)	98 (13.5)	39 (5.4)	728 (100.0)		
성별	여자	84 (22.0)	96 (25.2)	140 (36.7)	40 (10.5)	21 (5.5)	381 (100.0)	2.52	-3.043**
	남자	46 (13.3)	83 (24.0)	141 (40.8)	58 (16.8)	18 (5.2)	346 (100.0)	2.77	
	계	130 (17.9)	179 (24.6)	281 (38.7)	98 (13.5)	39 (5.4)	727 (100.0)		
결혼여부	비혼 (미혼, 사별, 이혼 등)	23 (12.8)	50 (27.8)	65 (36.1)	30 (16.7)	12 (6.7)	180 (100.0)	2.77	1.817
	기혼(사실혼 관계 포함)	107 (19.9)	123 (22.9)	214 (39.8)	68 (12.6)	26 (4.8)	538 (100.0)	2.60	
	계	130 (18.1)	173 (24.1)	279 (38.9)	98 (13.6)	38 (5.3)	718 (100.0)		

학력	중학교 졸업	1 (9.1)	3 (27.3)	6 (54.5)	0 (0.0)	1 (9.1)	11 (100.0)	2.73	1.755
	고등학교 졸업	30 (17.3)	36 (20.8)	63 (36.4)	29 (16.8)	15 (8.7)	173 (100.0)	2.79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	86 (18.0)	125 (26.2)	189 (39.6)	58 (12.2)	19 (4.0)	477 (100.0)	2.58	
	대학원 이상	12 (19.4)	11 (17.7)	24 (38.7)	11 (17.7)	4 (6.5)	62 (100.0)	2.74	
	계	129 (17.8)	175 (24.2)	282 (39.0)	98 (13.6)	39 (5.4)	723 (100.0)		
직업	판매/서비스직	20 (16.5)	28 (23.1)	48 (39.7)	17 (14.0)	8 (6.6)	121 (100.0)	2.71	1.552
	자영업	17 (21.0)	17 (21.0)	33 (40.7)	10 (12.3)	4 (4.9)	81 (100.0)	2.59	
	사무관리직	30 (15.5)	62 (32.1)	77 (39.9)	18 (9.3)	6 (3.1)	193 (100.0)	2.52	
	기능/작업직	8 (19.5)	7 (17.1)	15 (36.6)	11 (26.8)	0 (0.0)	41 (100.0)	2.71	
	전문직(연구, 교육 포함)	23 (18.9)	26 (21.3)	45 (36.9)	19 (15.6)	9 (7.4)	122 (100.0)	2.71	
	가정주부	22 (23.7)	22 (23.7)	34 (36.6)	10 (10.8)	5 (5.4)	93 (100.0)	2.51	
	학생	3 (10.0)	7 (23.3)	12 (40.0)	5 (16.7)	3 (10.0)	30 (100.0)	2.93	
	자원봉사 및 사회참여활동	0 (0.0)	2 (20.0)	4 (40.0)	2 (20.0)	2 (20.0)	10 (100.0)	3.40	
	기타	7 (20.6)	5 (14.7)	14 (41.2)	6 (17.6)	2 (5.9)	34 (100.0)	2.74	
	계	130 (17.9)	176 (24.3)	282 (38.9)	98 (13.5)	39 (5.4)	725 (100.0)		
거주지	동구	19 (20.0)	28 (29.5)	29 (30.5)	12 (12.6)	7 (7.4)	95 (100.0)	2.58	1.071
	서구	39 (16.5)	55 (23.2)	98 (41.4)	37 (15.6)	8 (3.4)	237 (100.0)	2.66	
	중구	37 (22.7)	44 (27.0)	55 (33.7)	14 (8.6)	13 (8.0)	163 (100.0)	2.52	
	대덕구	10 (10.3)	28 (28.9)	47 (48.5)	11 (11.3)	1 (1.0)	97 (100.0)	2.64	
	유성구	25 (18.5)	24 (17.8)	53 (39.3)	23 (17.0)	10 (7.4)	135 (100.0)	2.77	
	계	130 (17.9)	179 (24.6)	282 (38.8)	97 (13.3)	39 (5.4)	72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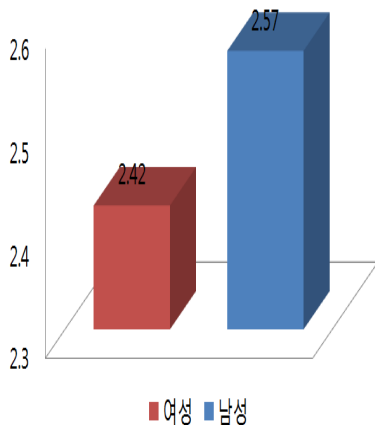
*p<.05 **p<.01 ***p<.001

3) 소외여성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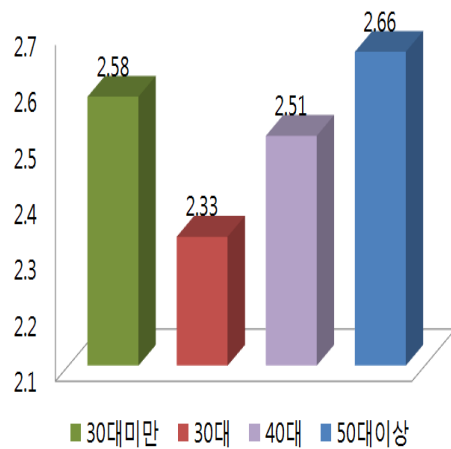
시민들은 대전지역 소외여성(미혼모, 저소득층, 장애인 등)에 대한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점 척도로 재 분류하여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소외여성에 대한 지원이 잘 되고 있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11.3%에 불과하였다. 소외여성 지원이 잘 되고 있다는 평가 점수의 평균도 2.49점으로 나타나고 있어, 소외 여성 지원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령별 소외여성 지원에 대한 평가 결과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50대 이상은 소외 여성에 대한 지원이 잘되고 있다는 평가가 다른 세대보다 두드러졌다. 평가 점수 평균점 비교에서 30대미만이 50대 응답자 다음으로 평가가 후했으며, 30대가 가장 부정적인 평가 소견을 보였다.

[그림 5-11] 성별에 따른 지역 내 소외여성 지원에 대한 평가 (단위: 점)



[그림 5-12] 연령에 따른 지역 내 소외여성 지원에 대한 평가 (단위: 점)



통계 상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평균점수를 비교에서, 비혼보다는 기혼자들이, 고졸 보다는 중졸의 학력자들이, 주부들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좀 더 대전지역 소외여성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부정적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 소외여성 지원 관련 성평등 실태에 대한 인식

(단위:명,% ,점)

“대전지역은 소외여성들을 위한 지원이 잘 되어 있다.”		전혀 아니다 ←—————→ 매우 그렇다					계	평균	t/F
		1	2	3	4	5			
전체 평균								2.49	
연령대	30세 미만	20 (15.2)	36 (27.3)	59 (44.7)	13 (9.8)	4 (3.0)	132 (100.0)	2.58	4.083**
	30~39세	45 (19.7)	84 (36.7)	83 (36.2)	14 (6.1)	3 (1.3)	229 (100.0)	2.33	
	40~49세	38 (15.3)	81 (32.5)	100 (40.2)	25 (10.0)	5 (2.0)	249 (100.0)	2.51	
	50세 이상	11 (9.3)	42 (35.6)	47 (39.8)	12 (10.2)	6 (5.1)	118 (100.0)	2.66	
	계	114 (15.7)	243 (33.4)	289 (39.7)	64 (8.8)	18 (2.5)	728 (100.0)		
성별	여자	64 (16.8)	142 (37.3)	137 (36.0)	27 (7.1)	11 (2.9)	381 (100.0)	2.42	-2.097*
	남자	50 (14.5)	101 (29.2)	151 (43.6)	37 (10.7)	7 (2.0)	346 (100.0)	2.57	
	계	114 (15.7)	243 (33.4)	288 (39.6)	64 (8.8)	18 (2.5)	727 (100.0)		
결혼여부	비혼(미혼, 사별, 이혼 등)	26 (14.4)	60 (33.1)	75 (41.4)	14 (7.7)	6 (3.3)	181 (100.0)	2.52	0.690
	기혼(사실혼 관계 포함)	87 (16.2)	181 (33.7)	209 (38.9)	50 (9.3)	10 (1.9)	537 (100.0)	2.47	
	계	113 (15.7)	241 (33.6)	284 (39.6)	64 (8.9)	16 (2.2)	718 (100.0)		
학력	중학교 졸업	2 (18.2)	3 (27.3)	5 (45.5)	1 (9.1)	0 (0.0)	11 (100.0)	2.45	0.531
	고등학교 졸업	25 (14.4)	60 (34.5)	61 (35.1)	20 (11.5)	8 (4.6)	174 (100.0)	2.57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	78 (16.4)	155 (32.5)	194 (40.7)	40 (8.4)	10 (2.1)	477 (100.0)	2.47	
	대학원 이상	7 (11.5)	22 (36.1)	29 (47.5)	3 (4.9)	0 (0.0)	61 (100.0)	2.46	
	계	112 (15.5)	240 (33.2)	289 (40.0)	64 (8.9)	18 (2.5)	723 (100.0)		

직업	판매/서비스직	22 (18.2)	33 (27.3)	48 (39.7)	14 (11.6)	4 (3.3)	121 (100.0)	2.55	0.996
	자영업	14 (17.3)	19 (23.5)	39 (48.1)	7 (8.6)	2 (2.5)	81 (100.0)	2.56	
	사무관리직	29 (15.0)	64 (33.2)	86 (44.6)	11 (5.7)	3 (1.6)	193 (100.0)	2.46	
	기능/작업직	5 (12.2)	16 (39.0)	10 (24.4)	9 (22.0)	1 (2.4)	41 (100.0)	2.63	
	전문직(연구, 교육 포함)	17 (14.0)	47 (38.8)	47 (38.8)	8 (6.6)	2 (1.7)	121 (100.0)	2.43	
	가정주부	15 (16.1)	39 (41.9)	31 (33.3)	6 (6.5)	2 (2.2)	93 (100.0)	2.37	
	학생	5 (16.1)	9 (29.0)	11 (35.5)	4 (12.9)	2 (6.5)	31 (100.0)	2.65	
	자원봉사 및 사회참여활동	1 (10.0)	2 (20.0)	4 (40.0)	2 (20.0)	1 (10.0)	10 (100.0)	3.00	
	기타	6 (17.6)	12 (35.3)	12 (35.3)	3 (8.8)	1 (2.9)	34 (100.0)	2.44	
	계	114 (15.7)	241 (33.2)	288 (39.7)	64 (8.8)	18 (2.5)	725 (100.0)		
거주지	동구	11 (11.5)	33 (34.4)	43 (44.8)	5 (5.2)	4 (4.2)	96 (100.0)	2.56	2.293
	서구	30 (12.7)	75 (31.6)	99 (41.8)	28 (11.8)	5 (2.1)	237 (100.0)	2.59	
	중구	29 (17.8)	60 (36.8)	57 (35.0)	11 (6.7)	6 (3.7)	163 (100.0)	2.42	
	대덕구	16 (16.5)	26 (26.8)	44 (45.4)	10 (10.3)	1 (1.0)	97 (100.0)	2.53	
	유성구	28 (20.9)	49 (36.6)	46 (34.3)	9 (6.7)	2 (1.5)	134 (100.0)	2.31	
	계	114 (15.7)	243 (33.4)	289 (39.8)	63 (8.7)	18 (2.5)	72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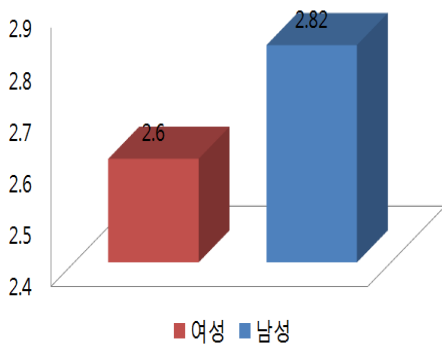
*p<.05 **p<.01 ***p<.001

4) 여성 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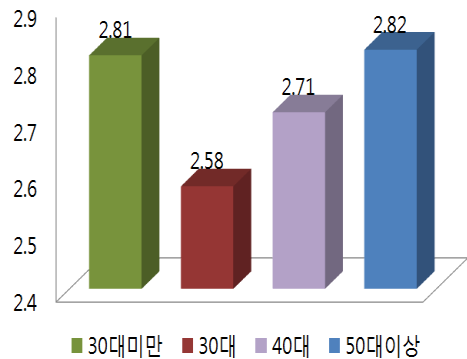
시민들은 대전지역이 여성들에게 그리 안전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대전 지역의 여성들은 성범죄, 폭력 등 각종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편인가’ 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2.5%가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답을 하였다. 5점 척도로 변환하여 살펴본 결과, 매우 안전한 편이다(5.7%), 안전한편이다(16.5%) 라고 응답한 비율이 22.2%인 반면, 안전하지 않다(27.4%), 매우 안전하지 않다(15.1%)라고 응답한 비

율이 42.5%였다. 안전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긍정적 인식 비율의 2배에 달했다.

[그림 5-13] 성별에 따른 지역 내 여성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
(단위: 점)



[그림 5-14] 연령에 따른 지역 내 여성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
(단위: 점)



5점 척도 평균비교에서, 성별에 따른 대전지역의 안전성 수준에 대한 조사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대전지역의 여성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가라는 물음에 남성은 평균 2.82점을 준 반면, 여성은 평균 2.60점을 주어, 여성이 스스로의 안전에 대하여 남성보다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집단 별로는 30대가, 비혼보다는 기혼이, 직업군에서는 가정주부들이 지역에 안정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6> 여성의 안전성 관련한 성평등 실태에 대한 인식

(단위:명,%,점)

“대전지역의 여성들은 성범죄, 폭력 등 각종 범죄의 으로부터 안전한 편이다”		전혀 아니다 ←—————→ 매우 그렇다					계	평균	t/F
		1	2	3	4	5			
전체 평균								2.70	
연령대	30세 미만	16 (12.2)	38 (29.0)	41 (31.3)	27 (20.6)	9 (6.9)	131 (100.0)	2.81	1.821
	30~39세	47 (20.4)	56 (24.3)	84 (36.5)	32 (13.9)	11 (4.8)	230 (100.0)	2.58	
	40~49세	33 (13.3)	73 (29.3)	86 (34.5)	48 (19.3)	9 (3.6)	249 (100.0)	2.71	
	50세 이상	14 (11.9)	33 (28.0)	44 (37.3)	14 (11.9)	13 (11.0)	118 (100.0)	2.82	
	계	110 (15.1)	200 (27.5)	255 (35.0)	121 (16.6)	42 (5.8)	728 (100.0)		
성별	여자	65 (17.1)	113 (29.7)	131 (34.4)	52 (13.6)	20 (5.2)	381 (100.0)	2.60	-2.654**
	남자	45 (13.0)	86 (24.9)	124 (35.8)	69 (19.9)	22 (6.4)	346 (100.0)	2.82	
	계	110 (15.1)	199 (27.4)	255 (35.1)	121 (16.6)	42 (5.8)	727 (100.0)		
결혼여부	비혼(미혼, 사별, 이혼 등)	23 (12.8)	51 (28.3)	61 (33.9)	30 (16.7)	15 (8.3)	180 (100.0)	2.79	1.371
	기혼(사실혼 관계 포함)	87 (16.2)	148 (27.5)	187 (34.8)	90 (16.7)	26 (4.8)	538 (100.0)	2.67	
	계	110 (15.3)	199 (27.7)	248 (34.5)	120 (16.7)	41 (5.7)	718 (100.0)		
학력	중학교 졸업	1 (9.1)	1 (9.1)	7 (63.6)	1 (9.1)	1 (9.1)	11 (100.0)	3.00	1.493
	고등학교 졸업	18 (10.4)	50 (28.9)	59 (34.1)	33 (19.1)	13 (7.5)	173 (100.0)	2.84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	79 (16.6)	131 (27.5)	166 (34.8)	76 (15.9)	25 (5.2)	477 (100.0)	2.66	
	대학원 이상	9 (14.5)	17 (27.4)	22 (35.5)	11 (17.7)	3 (4.8)	62 (100.0)	2.71	
	계	107 (14.8)	199 (27.5)	254 (35.1)	121 (16.7)	42 (5.8)	723 (100.0)		
직업	판매/서비스직	19 (15.7)	27 (22.3)	42 (34.7)	24 (19.8)	9 (7.4)	121 (100.0)	2.81	1.491
	자영업	10 (12.3)	21 (25.9)	31 (38.3)	13 (16.0)	6 (7.4)	81 (100.0)	2.80	
	사무관리직	32 (16.6)	53 (27.5)	70 (36.3)	28 (14.5)	10 (5.2)	193 (100.0)	2.64	

	기능/작업직	4 (9.8)	10 (24.4)	16 (39.0)	10 (24.4)	1 (2.4)	41 (100.0)	2.85	
	전문직(연구, 교육 포함)	19 (15.6)	40 (32.8)	42 (34.4)	14 (11.5)	7 (5.7)	122 (100.0)	2.59	
	가정주부	17 (18.3)	29 (31.2)	32 (34.4)	12 (12.9)	3 (3.2)	93 (100.0)	2.52	
	학생	4 (13.3)	9 (30.0)	7 (23.3)	8 (26.7)	2 (6.7)	30 (100.0)	2.83	
	자원봉사 및 사회참여활동	0 (0.0)	2 (20.0)	4 (40.0)	3 (30.0)	1 (10.0)	10 (100.0)	3.30	
	기타	5 (14.7)	8 (23.5)	9 (26.5)	9 (26.5)	3 (8.8)	34 (100.0)	2.91	
	계	110 (15.2)	199 (27.4)	253 (34.9)	121 (16.7)	42 (5.8)	725 (100.0)		
거주지	동구	13 (13.7)	25 (26.3)	31 (32.6)	17 (17.9)	9 (9.5)	95 (100.0)	2.83	2.550*
	서구	29 (12.2)	64 (27.0)	86 (36.3)	47 (19.8)	11 (4.6)	237 (100.0)	2.78	
	중구	25 (15.3)	53 (32.5)	44 (27.0)	25 (15.3)	16 (9.8)	163 (100.0)	2.72	
	대덕구	9 (9.3)	25 (25.8)	49 (50.5)	10 (10.3)	4 (4.1)	97 (100.0)	2.74	
	유성구	34 (25.2)	33 (24.4)	44 (32.6)	22 (16.3)	2 (1.5)	135 (100.0)	2.44	
	계	110 (15.1)	200 (27.5)	254 (34.9)	121 (16.6)	42 (5.8)	727 (100.0)		

*p<.05 **p<.01 ***p<.001

거주지별로 시민들은 여성안전에 대하여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통계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동구 응답자가 평점 2.83점으로 여성 안전에 대한 만족도가 5개 기초자치구 중 가장 높았다. 반면, 유성구는 2.44점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유성구의 경우는 안전에 대한 긍정적 평가 응답이 17.8%인 반면,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은 49.6%로 안정성에 대해 부정적 의견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성평등 정책의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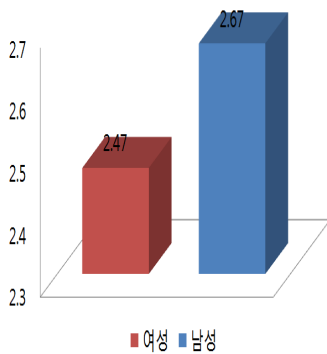
대전시의 성평등 정책 추진정도에 대해 시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해 본 결과 만족

도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구청, 동사무소 모두 포함)는 적극적으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문항에 대하여 응답자들 중 12.4%만이 긍정적인 만족 결과(5점 척도 상, ‘그렇다,’ ‘매우 그렇다’)를 보였다. 불만족스러운 평가 응답(5점 척도 상,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이 전체 응답의 44%로 절반 가까운 응답자들이 지방정부의 성평등 정책 추진에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항에 대한 만족도 평균 점수 또한 2.56점으로 낮은 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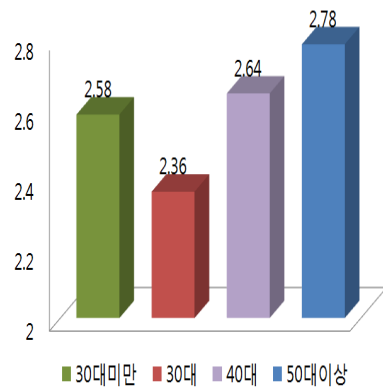
성별에 다른 성평등 정책추진에 대한 만족도는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다. 여성의 만족도 평균점은 (5점 척도 상) 2.47점으로 남성의 2.67점보다 낮았다. 연령 집단별로 살펴보면, 30대의 만족도 평가가 가장 낮았으며, 50대 이상의 연령 집단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30대미만의 응답자가 30대보다 대전시의 성평등 정책에 대하여 보다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유무, 학력, 직업군에 따른 성평등 정책 추진에 대한 만족 수준은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평균점수를 통하여 분석해 보면, 비혼의 경우보다 기혼자가, 그리고 중학교 학력자가 성평등 정책추진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15] 성별에 따른 지역 내 성평등 정책 추진에 대한 평가 (단위: 점)



[그림 5-16] 연령에 따른 지역 내 성평등 정책 추진에 대한 평가 (단위: 점)



거주지별 성평등정책 추진에 대한 만족 수준을 살펴보면, 잘 추진하고 있다는 만족감을 나타낸 응답 비율이 유성구가 가장 낮은 7.4%이며, 서구는 16.1%로 가장 높은 만족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모든 기초자치구에서 성평등 정책에 대한 만족감이 20%도 되지 않아, 지방정부의 성평등 정책 추진에 대한 만족 수준이 낮다고 평할 수 있다.

<표 5-7> 성평등 정책추진 실태에 대한 인식

(단위:명,%,점)

대전시(구청, 동사무소 모두 포함)는 적극적으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혀 아니다 ←—————→ 매우 그렇다					계	평균	t/F
		1	2	3	4	5			
전체 평균								2.56	
연령대	30세 미만	23 (17.4)	30 (22.7)	62 (47.0)	14 (10.6)	3 (2.3)	132 (100.0)	2.58	6.080***
	30~39세	46 (20.2)	72 (31.6)	94 (41.2)	14 (6.1)	2 (0.9)	228 (100.0)	2.36	
	40~49세	30 (12.0)	73 (29.3)	111 (44.6)	27 (10.8)	8 (3.2)	249 (100.0)	2.64	
	50세 이상	11 (9.3)	35 (29.7)	50 (42.4)	13 (11.0)	9 (7.6)	118 (100.0)	2.78	
	계	110 (15.1)	210 (28.9)	317 (43.6)	68 (9.4)	22 (3.0)	727 (100.0)		
성별	여자	63 (16.6)	123 (32.4)	157 (41.3)	28 (7.4)	9 (2.4)	380 (100.0)	2.47	-2.846**
	남자	47 (13.6)	87 (25.1)	159 (46.0)	40 (11.6)	13 (3.8)	346 (100.0)	2.67	
	계	110 (15.2)	210 (28.9)	316 (43.5)	68 (9.4)	22 (3.0)	726 (100.0)		
결혼여부	비혼(미혼, 사별, 이혼 등)	29 (16.0)	40 (22.1)	86 (47.5)	21 (11.6)	5 (2.8)	181 (100.0)	2.63	1.190
	기혼(사실혼 관계 포함)	81 (15.1)	168 (31.3)	224 (41.8)	47 (8.8)	16 (3.0)	536 (100.0)	2.53	
	계	110 (15.3)	208 (29.0)	310 (43.2)	68 (9.5)	21 (2.9)	717 (100.0)		
학력	중학교 졸업	3 (27.3)	3 (27.3)	3 (27.3)	1 (9.1)	1 (9.1)	11 (100.0)	2.45	2.352
	고등학교 졸업	21 (12.1)	44 (25.3)	80 (46.0)	19 (10.9)	10 (5.7)	174 (100.0)	2.73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	73 (15.3)	146 (30.7)	204 (42.9)	44 (9.2)	9 (1.9)	476 (100.0)	2.52	
	대학원 이상	12 (19.7)	16 (26.2)	27 (44.3)	4 (6.6)	2 (3.3)	61 (100.0)	2.48	
	계	109 (15.1)	209 (28.9)	314 (43.5)	68 (9.4)	22 (3.0)	722 (100.0)		

직업	판매/서비스직	25 (20.7)	26 (21.5)	61 (50.4)	6 (5.0)	3 (2.5)	121 (100.0)	2.47	1.058
	자영업	9 (11.1)	24 (29.6)	36 (44.4)	9 (11.1)	3 (3.7)	81 (100.0)	2.67	
	사무관리직	27	52	87	18	9	193	2.64	
		(14.0)	(26.9)	(45.1)	(9.3)	(4.7)	(100.0)		
	기능/작업직	5 (12.2)	15 (36.6)	15 (36.6)	5 (12.2)	1 (2.4)	41 (100.0)	2.56	
	전문직(연구, 교육 포함)	18 (14.9)	40 (33.1)	49 (40.5)	12 (9.9)	2 (1.7)	121 (100.0)	2.50	
	가정주부	14 (15.2)	36 (39.1)	34 (37.0)	6 (6.5)	2 (2.2)	92 (100.0)	2.41	
	학생	5 (16.1)	9 (29.0)	13 (41.9)	3 (9.7)	1 (3.2)	31 (100.0)	2.55	
	자원봉사 및 사회참여활동	1 (10.0)	1 (10.0)	6 (60.0)	1 (10.0)	1 (10.0)	10 (100.0)	3.00	
	기타	6 (17.6)	7 (20.6)	13 (38.2)	8 (23.5)	0 (0.0)	34 (100.0)	2.68	
계	110 (15.2)	210 (29.0)	314 (43.4)	68 (9.4)	22 (3.0)	724 (100.0)	3.537**		
거주지	동구	11 (11.5)	21 (21.9)	52 (54.2)	8 (8.3)	4 (4.2)	96 (100.0)	2.72	
	서구	25 (10.6)	78 (33.1)	95 (40.3)	32 (13.6)	6 (2.5)	236 (100.0)	2.64	
	중구	33 (20.2)	45 (27.6)	64 (39.3)	14 (8.6)	7 (4.3)	163 (100.0)	2.49	
	대덕구	7 (7.2)	31 (32.0)	50 (51.5)	7 (7.2)	2 (2.1)	97 (100.0)	2.65	
	유성구	34 (25.4)	35 (26.1)	55 (41.0)	7 (5.2)	3 (2.2)	134 (100.0)	2.33	
	계	110 (15.2)	210 (28.9)	316 (43.5)	68 (9.4)	22 (3.0)	726 (100.0)		

*p<.05 **p<.01 ***p<.001

제2절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요구 분석

1.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요구

이 연구는 대전 시민을 대상으로 대전시가 성평등한 도시가 되기 위하여 어떠한 사업 추진과 지원이 필요한 지, 몇 가지 사업과 계획에 대한 필요도를 설문조사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대전지역이 좀 더 성평등해지기 위해 요구되는 사항들을 조사한 결과, 시민들은 ‘여성의 일과 가정생활 양립을 위한 정책’ 과 ‘소외여성들을 위한 경제적, 사회적 지원확대’ 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위 두 항목에 대한 요구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요구도를 5점 척도로 전환하여 요구 정도를 점수로 살펴보았을 때, 평균 요구도 점수가 모두 4.15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여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와 위협으로부터의 안전’ 에 대한 욕구도 높았는데, 5점 척도 상 ‘그렇다’ 와 ‘매우 그렇다’ 로 응답한 비율이 67.1%에 달했으며 요구도 평균점수는 (5점 척도 상) 3.96점으로 나타났다. ‘여성발전기금의 증액과 활용영역 확대’ 문항에서는 응답자의 64.7%가 필요하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했고, 평균 요구도 점수는 3.88점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촉진 시책 강화’ 에 대한 요구도 평균점수는 3.6점이며 긍정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5.2%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여성리더 양성’ 영역과 ‘지역 공무원들의 성평등 인식 향상 및 태도 개선’,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여성참여확대’ 등에 대한 정책 요구도가 각각 3.82점, 3.81점, 3.80점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들의 60~65%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거의 대부분의 항목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8〉 대전지역의 성평등 정책에 대한 요구 순위

(단위: 명,%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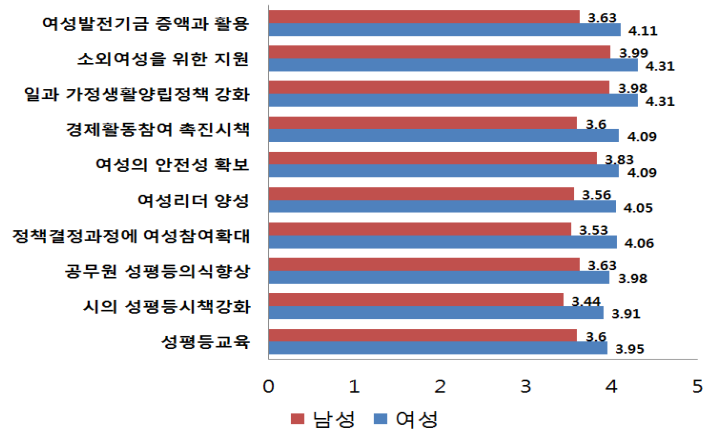
순위	항 목	←—————→					계	평균
		전혀 아니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1	여성이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가족친화기업, 보육시설 설치 등)의 강화	5 (0.7)	25 (3.5)	135 (18.5)	254 (34.8)	309 (42.3)	728 100.0	4.15
2	소외여성(폭력피해여성, 미혼모, 장애여성, 한부모가정 등)들을 위한 경제적, 사회적 지원 확대	5 (0.7)	16 (2.2)	145 (19.8)	257 (35.1)	304 (41.6)	727 100.0	4.15
3	여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와 위협으로부터의 안전	13 (1.8)	47 (6.5)	169 (23.1)	223 (30.5)	265 (37.6)	727 100.0	3.96
4	여성발전기금의 증액과 활용영역 확대	17 (2.3)	36 (5.0)	203 (27.8)	232 (31.7)	241 (33.0)	729 100.0	3.88
5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촉진 시책 추진 강화	10 (1.3)	30 (4.1)	213 (29.2)	277 (37.9)	199 (27.3)	729 100.0	3.86
6	지역 여성 리더의 양성과 사회참여 확대	11 (1.5)	43 (5.9)	208 (28.4)	272 (37.2)	193 (26.4)	727 100.0	3.82
7	지역 의사결정그룹, 공무원들의 성평등 의식 향상 및 태도 개선	6 (0.8)	45 (6.2)	214 (29.3)	286 (38.3)	184 (25.1)	729 100.0	3.81
8	대전시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확대	12 (1.7)	38 (5.2)	214 (29.3)	278 (37.9)	184 (25.2)	725 100.0	3.80
9	공공기관, 시설, 학교, 직장 등 지역 내에서의 성평등 교육 강화	7 (0.9)	46 (6.3)	230 (31.4)	261 (35.7)	185 (25.3)	729 100.0	3.78
10	중앙정부(여성가족부 등) 및 대전시의 성평등 촉진 시책 강화	16 (2.2)	50 (6.9)	241 (33.0)	261 (35.7)	159 (21.7)	727 100.0	3.68

2. 성별에 따른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요구

대전시가 보다 더 성평등해지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 필요성에의 공감정도가 성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본 결과,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모든 항목에서 남성보다 여성들의 요구 정도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17] 성별에 따른 성평등 정책 요구 정도

(단위: 점)



5점 척도로 각 항목에 제시된 정책들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평점 비교를 통하여 성별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었다. 여성들은 ‘일과 가정생활 양립을 위한 정책 확대’와 ‘소외여성들을 위한 경제적·사회적 지원확대’를 가장 강하게 요구하였다. 두 항목 모두 요구도 평균 점수가 4.31점으로 항목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여성 응답자들은 ‘여성발전기금의 증액과 활용영역확대’를 강하게 요구하였으며, (평점 4.11점) ‘지역 내 여성들의 안전성 강화’, ‘여성 경제활동 참여 촉진시책 강화’가 모두 동일하게 평점 4.09점, ‘대전시 성평등 시책 촉진’,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여성의 참여’가 평점 4.06점, ‘지역여성리더양성’ 항목이 4.05점 ‘공무원들의 성평등의식 개선’이 3.98점, ‘성평등 교육확대’가 3.91점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는 ‘소외여성을 위한 지원’ 항목을 가장 필요한 정책 항목으로 꼽았다 (5점 척도 중 평점 3.99점). 그 다음으로 ‘일과 가정생활 양립을 돕는 정책 확대’였는데, 요구도 점수는 평점 3.98점이었다. ‘여성을 위한 안전성 강화’가 3.83점, ‘지역 내 공무원의 성평등 의식 향상 및 개선’이 3.63점, ‘여성발전기금 증액과 활용 확대’이 3.63점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시책 강화’ (3.60점), ‘지역여성리더 양성’ (3.56점),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3.53점), ‘대전시의 성평등 정책 강화’ (3.44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여성 응답자들은 대부분의 성평등 정책 항목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모두 요구도가 5점 척도 상 4점이 넘었다. 반면, 남성들은 모든 항목에서 3점대의 요구도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9> 성별에 따른 성평등 정책에 대한 요구 순위

순위	여성	평점	순위	남성	평점
1	소외여성을 위한 지원	4.31	1	소외여성을 위한 지원	3.99
2	일과 가정생활양립 정책 강화	4.31	2	일과 가정생활양립 정책 강화	3.98
3	여성발전기금 증액과 활용	4.11	3	여성의 안전성 확보	3.83
4	여성의 안전성 확보	4.09	4	여성발전기금 증액과 활용	3.63
5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4.09	5	공무원 성평등 의식 향상	3.63
6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확대	4.06	6	성평등 교육	3.60
7	여성리더 양성	4.05	7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촉진 시책	3.60
8	공무원 성평등의식 향상	3.98	8	여성리더 양성	3.56
9	성평등 교육	3.95	9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3.53
10	시의 성평등 시책 강화	3.91	10	시의 성평등 시책 강화	3.44

<표 5-10> 성별에 따른 성평등 정책에 대한 요구 정도

(단위: 명,%,점)

문항	구분	전혀 아니다 ←—————→ 매우 그렇다					계	평균	t/F
		1	2	3	4	5			
성평등 교육에 대한 요구	여자	2 (0.5)	17 (4.5)	100 (26.2)	141 (37.0)	121 (31.8)	381 (100.0)	3.95	5.125***
	남자	5 (1.4)	29 (8.4)	129 (37.2)	120 (34.6)	64 (18.4)	347 (100.0)	3.60	
	계	7 (1.0)	46 (6.3)	229 (31.5)	261 (35.9)	185 (25.4)	728 (100.0)		
중앙정부 및 대전시의 성평등 촉진 시책 강화	여자	3 (0.8)	16 (4.2)	103 (27.1)	150 (39.5)	108 (28.4)	380 (100.0)	3.91	6.638***
	남자	13 (3.8)	34 (9.8)	137 (39.6)	111 (32.1)	51 (14.7)	346 (100.0)	3.44	
	계	16 (2.2)	50 (6.9)	240 (33.1)	261 (36.0)	159 (21.9)	726 (100.0)		
지역 의사결정그룹, 공무원들의 성평등 의식 향상 및 태도 개선	여자	2 (0.5)	15 (3.9)	93 (24.4)	151 (39.6)	120 (31.5)	381 (100.0)	3.98	5.177***
	남자	4 (1.2)	30 (8.6)	120 (34.6)	129 (37.2)	64 (18.4)	347 (100.0)	3.63	
	계	6 (0.8)	45 (6.2)	213 (29.3)	280 (38.5)	184 (25.3)	728 (100.0)		
대전시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여성참여 확대	여자	2 (0.5)	9 (2.4)	85 (22.4)	154 (40.5)	130 (34.2)	380 (100.0)	4.06	7.843***
	남자	10 (2.9)	29 (8.4)	128 (37.2)	123 (35.8)	54 (15.7)	344 (100.0)	3.53	
	계	12 (1.7)	38 (5.2)	213 (29.4)	277 (38.3)	184 (25.4)	724 (100.0)		
지역 여성 리더의 양성과 사회참여 확대	여자	2 (0.5)	10 (2.6)	86 (22.7)	150 (39.6)	131 (34.6)	379 (100.0)	4.05	7.154***
	남자	9 (2.6)	33 (9.5)	121 (34.9)	122 (35.2)	62 (17.9)	347 (100.0)	3.56	
	계	11 (1.5)	43 (5.9)	207 (28.5)	272 (37.5)	193 (26.6)	726 (100.0)		
여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와 위협으로부터의 안전	여자	6 (1.6)	20 (5.3)	84 (22.1)	95 (25.0)	175 (46.1)	380 (100.0)	4.09	3.437**
	남자	7 (2.0)	27 (7.8)	84 (24.3)	128 (37.0)	100 (28.9)	346 (100.0)	3.83	
	계	13 (1.8)	47 (6.5)	168 (23.1)	223 (30.7)	275 (37.9)	726 (100.0)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촉진 시책 추진 강화	여자	1 (0.3)	10 (2.6)	83 (21.8)	146 (38.3)	141 (37.0)	381 (100.0)	4.09	7.462***
	남자	9 (2.6)	20 (5.8)	129 (37.2)	131 (37.8)	58 (16.7)	347 (100.0)	3.60	
	계	10 (1.4)	30 (4.1)	212 (29.1)	277 (38.0)	199 (27.3)	728 (100.0)		
여성이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가족친화기업, 보육시설 설치 등)의 강화	여자	1 (0.3)	11 (2.9)	57 (15.0)	112 (29.5)	199 (52.4)	380 (100.0)	4.31	5.064***
	남자	4 (1.2)	14 (4.0)	77 (22.2)	142 (40.9)	110 (31.7)	347 (100.0)	3.98	
	계	5 (0.7)	25 (3.4)	134 (18.4)	254 (34.9)	309 (42.5)	727 (100.0)		
소외여성(폭력피해여성, 미혼모, 장애여성, 한부모가정 등)들을 위한 경제적, 사회적 지원 확대	여자	2 (0.5)	6 (1.6)	55 (14.5)	128 (33.7)	189 (49.7)	380 (100.0)	4.31	4.978***
	남자	3 (0.9)	10 (2.9)	89 (25.7)	129 (37.3)	115 (33.2)	346 (100.0)	3.99	
	계	5 (0.7)	16 (2.2)	144 (19.8)	257 (35.4)	304 (41.9)	726 (100.0)		
여성발전기금의 증액과 활용영역 확대	여자	3 (0.8)	10 (2.6)	89 (23.4)	118 (31.0)	161 (42.3)	381 (100.0)	4.11	6.583***
	남자	14 (4.0)	26 (7.5)	113 (32.6)	114 (32.9)	80 (23.1)	347 (100.0)	3.63	
	계	17 (2.3)	36 (4.9)	202 (27.7)	232 (31.9)	241 (33.1)	728 (100.0)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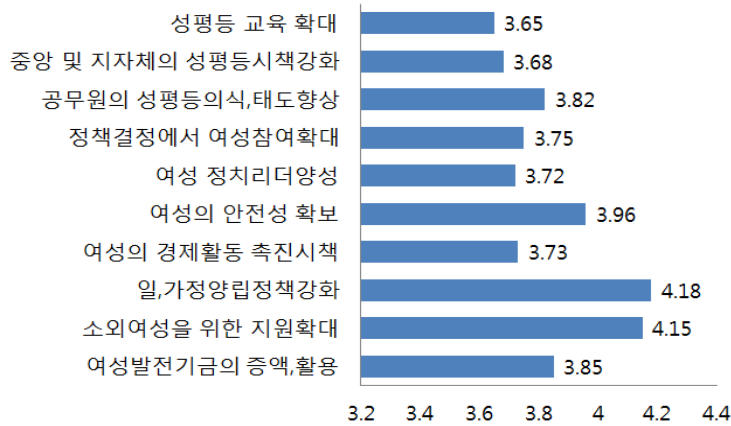
3. 거주지별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요구

거주지별 대전지역의 성평등 향상을 위한 시민들의 요구도 수준은, t-검증 및 F-검증 결과,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별 성평등 정책 요구 항목 중 4점 이상의 요구수준을 비교해 보면, 중구지역 응답자들이 6개 정책 요구 항목에서 4.0점 이상의 평균점수로 보였다. 그 외 지역(서구, 동구, 유성구, 대덕구)에서는 2개 요구항목에서 4점 이상의 요구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구의 경우는 ‘여성의 일, 가정 양립정책 강화’ 정책에 대한 요구가 4.1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소외여성을 위한 지원 확대’ (4.15점), ‘여성의 안전성 확보’ (3.96점) ‘, ‘여성발전기금의 증액과 활용’ 순으로 높은 요구수준을 보였다.

[그림 5-18] 지역별 성평등 정책에 대한 요구-동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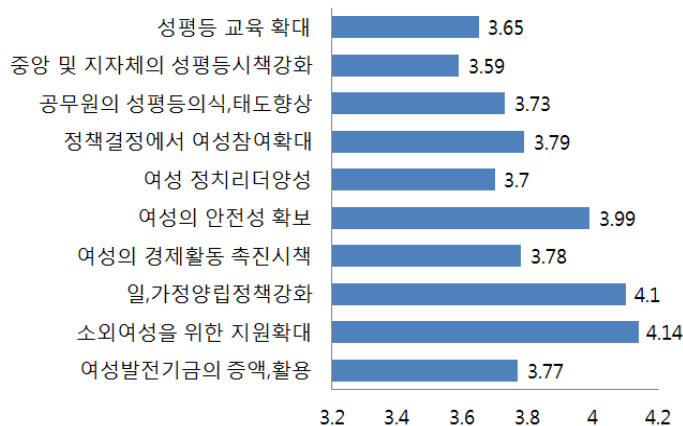
(단위: 점)



유성구의 경우는 ‘소외여성을 위한 지원확대’에 대한 요구수준이 4.1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일.가정 양립정책 강화’가 4.1점으로 높은 필요 정도를 나타냈다. ‘여성을 위한 안전성 확보’ (3.99점)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확대’ (3.79 점),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촉진시책’ (3.78점)순으로 요구 정도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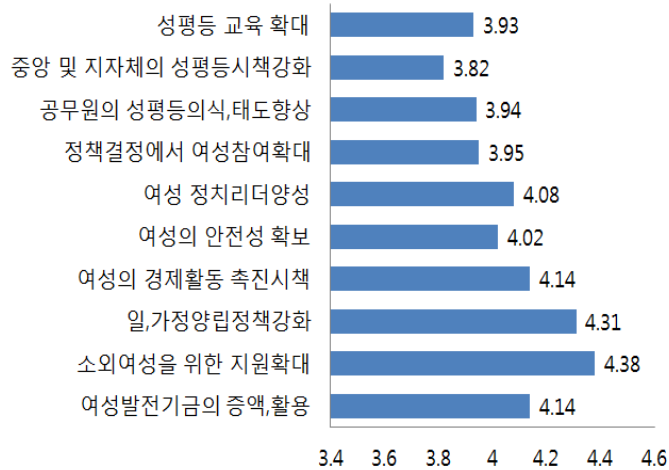
[그림 5-19] 지역별 성평등 정책에 대한 요구-유성구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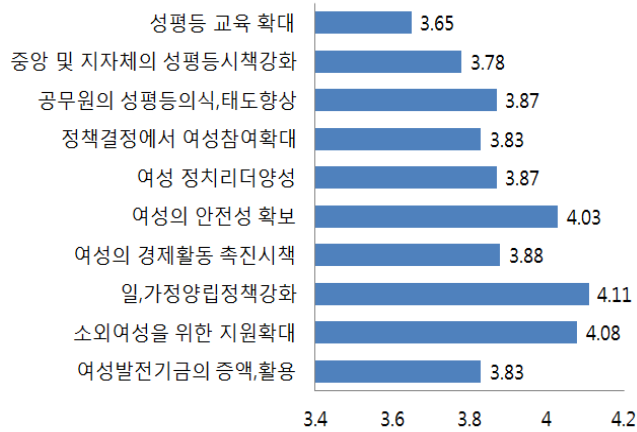
[그림 5-20] 지역별 성평등 정책에 대한 요구-중구

(단위: 점)



중구는 대부분의 정책 항목에서 고르게 높은 요구 수준을 보이고 있다. 가장 요구도 평점이 높은 항목은 ‘소외여성을 위한 지원확대’로 4.38점이었으며, ‘일·가정양립지원정책 강화’가 4.31점으로 역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 외에도 ‘여성발전기금의 증액과 활용’, ‘여성리더양성’, ‘여성의 안전성 확보’ 등의 영역에서 4.14점, 4.08점, 4.02점 등 모두 4점 이상의 요구 점수가 나타났다.

[그림 5-21] 지역별 성평등 정책에 대한 요구-서구
(단위: 점)



서구 응답자들은 ‘일과 가정 양립 정책의 강화’ 항목을 가장 필요한 성평등 정책 항목으로 꼽았다 (평균 4.11점). ‘소외여성을 위한 지원’이 4.08점, ‘여성의 안전성 확보’ 영역이 4.03점으로 세 항목에서 4점대이상의 요구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5-22] 지역별 성평등 정책에 대한 요구-대덕구
(단위: 점)



대덕구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요구도 수준이 타 자치구에 비해 낮은 편이었으며, ‘일과 가정 양립 정책 강화’에 대한 요구 수준이 4.02점으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소외여성에 대한 지원’ (3.98점)과 ‘여성발전기금 확충과 활용’ (3.78점) 순의 요구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표 5-11> 지역별 성평등 정책에 대한 요구

(단위: 명,%점)

문항	구분	전혀 아니다 ←—————→ 매우 그렇다					계	평균	t/F
		1	2	3	4	5			
성평등 교육에 대한 요구	동구	1 (1.0)	8 (8.3)	36 (37.5)	30 (31.3)	21 (21.9)	96 (100.0)	3.65	4.067**
	서구	1 (0.4)	8 (3.4)	70 (29.5)	95 (40.1)	63 (26.6)	237 (100.0)	3.89	
	중구	3 (1.8)	10 (6.1)	37 (22.7)	59 (36.2)	54 (33.1)	163 (100.0)	3.93	
	대덕구	2 (2.1)	9 (9.3)	33 (34.0)	38 (39.2)	15 (15.5)	97 (100.0)	3.57	
	유성구	0 (0.0)	11 (8.1)	53 (39.3)	39 (28.9)	32 (23.7)	135 (100.0)	3.68	
	계	7 (1.0)	46 (6.3)	229 (31.5)	261 (35.9)	185 (25.4)	728 (100.0)		
중앙정부 및 대전시의 성평등 촉진 시책 강화	동구	3 (3.2)	6 (6.3)	33 (34.7)	29 (30.5)	24 (25.3)	95 (100.0)	3.68	4.769**
	서구	3 (1.3)	10 (4.2)	72 (30.5)	101 (42.8)	50 (21.2)	236 (100.0)	3.78	
	중구	6 (3.7)	5 (3.1)	50 (30.7)	54 (33.1)	48 (29.4)	163 (100.0)	3.82	
	대덕구	2 (2.1)	17 (17.5)	31 (32.0)	39 (40.2)	8 (8.2)	97 (100.0)	3.35	
	유성구	2 (1.5)	12 (8.9)	55 (40.7)	37 (27.4)	29 (21.5)	135 (100.0)	3.59	
	계	16 (2.2)	50 (6.9)	241 (33.2)	260 (35.8)	159 (21.9)	726 (100.0)		

지역 의사결정그룹, 공무원들의 성평등 의식 향상 및 태도 개선	동구	1 (1.0)	11 (11.5)	24 (25.0)	28 (29.2)	32 (33.3)	96 (100.0)	3.82	3.413**
	서구	0 (0.0)	11 (4.6)	66 (27.8)	104 (43.9)	56 (23.6)	237 (100.0)	3.87	
	중구	3 (1.8)	10 (6.1)	35 (21.5)	60 (36.8)	55 (33.7)	163 (100.0)	3.94	
	대덕구	0 (0.0)	5 (5.2)	42 (43.3)	42 (43.3)	8 (8.2)	97 (100.0)	3.55	
	유성구	2 (1.5)	8 (5.9)	47 (34.8)	45 (33.3)	33 (24.4)	135 (100.0)	3.73	
	계	6 (0.8)	45 (6.2)	214 (29.4)	279 (38.3)	184 (25.3)	728 (100.0)		
대전시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여성참여 확대	동구	3 (3.1)	7 (7.3)	27 (28.1)	33 (34.4)	26 (27.1)	96 (100.0)	3.75	2.829*
	서구	3 (1.3)	12 (5.1)	59 (25.0)	109 (46.2)	53 (22.5)	236 (100.0)	3.83	
	중구	5 (3.1)	4 (2.5)	43 (26.5)	52 (32.1)	58 (35.8)	162 (100.0)	3.95	
	대덕구	0 (0.0)	6 (6.3)	39 (41.1)	41 (43.2)	9 (9.5)	95 (100.0)	3.56	
	유성구	1 (0.7)	9 (6.7)	45 (33.3)	42 (31.1)	38 (28.1)	135 (100.0)	3.79	
	계	12 (1.7)	38 (5.2)	213 (29.4)	277 (38.3)	184 (25.4)	724 (100.0)		
지역 여성 리더의 양성과 사회참여 확대	동구	4 (4.2)	9 (9.4)	22 (22.9)	36 (37.5)	25 (26.0)	96 (100.0)	3.72	6.957***
	서구	3 (1.3)	10 (4.2)	62 (26.3)	101 (42.8)	60 (25.4)	236 (100.0)	3.87	
	중구	2 (1.2)	3 (1.8)	38 (23.3)	57 (35.0)	63 (38.7)	163 (100.0)	4.08	
	대덕구	1 (1.0)	8 (8.2)	38 (39.2)	41 (42.3)	9 (9.3)	97 (100.0)	3.51	
	유성구	1 (0.7)	13 (9.7)	47 (35.1)	37 (27.6)	36 (26.9)	134 (100.0)	3.70	
	계	11 (1.5)	43 (5.9)	207 (28.5)	272 (37.5)	193 (26.6)	726 (100.0)		
여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와 위험으로부터의 안전	동구	2 (2.1)	4 (4.2)	27 (28.1)	26 (27.1)	37 (38.5)	96 (100.0)	3.96	1.887
	서구	2 (0.8)	13 (5.5)	55 (23.2)	74 (31.2)	93 (39.2)	237 (100.0)	4.03	
	중구	6 (3.7)	13 (8.0)	27 (16.7)	42 (25.9)	74 (45.7)	162 (100.0)	4.02	
	대덕구	2 (2.1)	9 (9.4)	30 (31.3)	29 (30.2)	26 (27.1)	96 (100.0)	3.71	
	유성구	1 (0.7)	7 (5.2)	30 (22.2)	52 (38.5)	45 (33.3)	135 (100.0)	3.99	
	계	13 (1.8)	46 (6.3)	169 (23.3)	223 (30.7)	275 (37.9)	726 (100.0)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촉진 시책 추진 강화	동구	4 (4.2)	5 (5.2)	26 (27.1)	39 (40.6)	22 (22.9)	96 (100.0)	3.73	7.384***
	서구	0 (0.0)	10 (4.2)	68 (28.7)	100 (42.2)	59 (24.9)	237 (100.0)	3.88	
	중구	2 (1.2)	3 (1.8)	36 (22.1)	51 (31.3)	71 (43.6)	163 (100.0)	4.14	
	대덕구	2 (2.1)	5 (5.2)	36 (37.1)	44 (45.4)	10 (10.3)	97 (100.0)	3.57	
	유성구	2 (1.5)	7 (5.2)	47 (34.8)	42 (31.1)	37 (27.4)	135 (100.0)	3.78	
	계	10 (1.4)	30 (4.1)	213 (29.3)	276 (37.9)	199 (27.3)	728 (100.0)		
여성이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가족친화기업, 보육시설 설치 등)의 강화	동구	2 (2.1)	4 (4.2)	15 (15.6)	29 (30.2)	46 (47.9)	96 (100.0)	4.18	2.089
	서구	0 (0.0)	8 (3.4)	48 (20.3)	91 (38.4)	90 (38.0)	237 (100.0)	4.11	
	중구	3 (1.9)	4 (2.5)	24 (14.8)	40 (24.7)	91 (56.2)	162 (100.0)	4.31	
	대덕구	0 (0.0)	3 (3.1)	22 (22.7)	42 (43.3)	30 (30.9)	97 (100.0)	4.02	
	유성구	0 (0.0)	6 (4.4)	26 (19.3)	52 (38.5)	51 (37.8)	135 (100.0)	4.10	
	계	5 (0.7)	25 (3.4)	135 (18.6)	254 (34.9)	308 (42.4)	727 (100.0)		
소외여성(폭력피해여 성, 미혼모, 장애여성, 한부모가정 등)들을 위한 경제적, 사회적 지원 확대	동구	2 (2.1)	3 (3.1)	19 (19.8)	27 (28.1)	45 (46.9)	96 (100.0)	4.15	4.348**
	서구	1 (0.4)	6 (2.5)	54 (22.9)	87 (36.9)	88 (37.3)	236 (100.0)	4.08	
	중구	1 (0.6)	2 (1.2)	26 (16.0)	38 (23.5)	95 (58.6)	162 (100.0)	4.38	
	대덕구	0 (0.0)	2 (2.1)	22 (22.7)	49 (50.5)	24 (24.7)	97 (100.0)	3.98	
	유성구	1 (0.7)	3 (2.2)	24 (17.8)	55 (40.7)	52 (38.5)	135 (100.0)	4.14	
	계	5 (0.7)	16 (2.2)	145 (20.0)	256 (35.3)	304 (41.9)	726 (100.0)		
여성발전기금의 증액과 활용영역 확대	동구	4 (4.2)	6 (6.3)	24 (25.0)	28 (29.2)	34 (35.4)	96 (100.0)	3.85	3.464**
	서구	4 (1.7)	12 (5.1)	68 (28.7)	89 (37.6)	64 (27.0)	237 (100.0)	3.83	
	중구	3 (1.8)	7 (4.3)	33 (20.2)	42 (25.8)	78 (47.9)	163 (100.0)	4.14	
	대덕구	1 (1.0)	5 (5.2)	31 (32.0)	37 (38.1)	23 (23.7)	97 (100.0)	3.78	
	유성구	5 (3.7)	6 (4.4)	46 (34.1)	36 (26.7)	42 (31.1)	135 (100.0)	3.77	
	계	17 (2.3)	36 (4.9)	202 (27.7)	232 (31.9)	241 (33.1)	728 (100.0)		

*p<.05 **p<.01 ***p<.001

4. 연령별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요구

대전지역이 보다 더 성평등해지기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한 요구 정도는 연령 집단별로도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30대가 성평등 정책에 대한 요구 정도가 연령 집단 내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표 5-12〉 연령에 따른 성평등 정책에 대한 요구 순위

순위	30대 미만	평점	순위	30대	평점
1	여성의 안전성	4.24	1	일, 가정양립 정책 강화	4.27
2	소외여성 지원	4.17	2	소외여성 지원	4.24
3	일, 가정양립 정책 강화	4.15	3	여성의 안전성	4.12
4	여성발전기금 증액 및 활용	3.91	4	공무원의 성평등 의식 및 태도개선	3.98
5	공무원 성평등 의식 및 태도개선	2.89	5	여성발전기금 증액 및 활용	3.97
6	성평등 교육 강화	3.83	6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시책	3.96
7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시책	3.77	7	여성리더 양성	3.93
8	여성리더 양성	3.75	8	여성의 정책결정 참여 확대	3.89
9	여성의 정책결정 참여 확대	3.74	9	성평등 교육 강화	3.87
10	중앙 및 대전시 성평등시책추진	3.71	10	중앙 및 대전시 성평등시책 추진	3.75
순위	40대	평점	순위	50대 이상	평점
1	일,가정양립 정책 강화	4.12	1	소외여성 지원	4.09
2	소외여성 지원	4.09	2	일,가정양립 정책 강화	3.99
3	여성발전기금 증액 및 활용	3.88	3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시책	3.82
4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시책	3.83	4	성평등 교육 강화	3.75
5	여성리더 양성	3.83	5	여성의 안전성	3.73
6	여성의 정책결정 참여 확대	3.82	6	공무원 성평등 의식 및 태도개선	3.69
7	여성의 안전성	3.78	7	여성발전기금 증액 및 활용	3.69
8	성평등 교육 강화	3.69	8	여성의 정책결정 참여 확대	3.67
9	공무원 성평등 의식 및 태도개선	3.67	9	여성리더 양성	3.64
10	중앙 및 대전시 성평등시책 추진	3.65	10	중앙 및 대전시 성평등시책 추진	3.59

연령별로 원하는 성평등 정책의 항목과 순위를 살펴보면, 30대의 경우 ‘일·가정양립정책 강화’와 ‘소외여성 지원’에 대한 요구가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과 양육을 일과 병행하면서 가장 힘든 연령대가 3대이고, 특히 여성에 있어 3대에 들어 경력을 중단하면서 M-curve를 그리는 현상을 고려할 때, 일관성 있는 결과이다. 또한, 3대 응답자들이 강하게 원하는 성평등 정책 항목은 ‘여성을 위한 안전성 확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30대미만의 경우는 ‘여성을 위한 안전성 확보’ 정책을 가장 우선적으로 원하고 있었으며 ‘소외여성 지원’, ‘일·가정양립정책’이 그 다음 순위로 나타났다. 4대, 5대에서는 ‘일·가정 양립 정책의 강화’, ‘소외여성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3절 소 결

○ 대전지역의 성평등 실태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 및 평가

- 여성 정치리더, 경제활동 지원, 범죄로부터의 안전, 소외여성 지원 등 모든 영역에서 5점 척도 상 2점대의 낮은 만족도 수준을 보였다.

- 지역의 성평등 현황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 여성들의 만족보다 남성들보다 모든 항목에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30대미만의 연령층보다 30대와 40대가 지역의 성평등 실태에 대한 만족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설문 조사에서 30대미만 응답자의 낮은 성평등 인식 수준 결과를 고려할 때, 성평등 인식수준이 높을수록, 더 민감할수록, 지역의 성평등 실태에 대한 만족감이 더 떨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전체 응답자의 1/3정도가 지역 내에서 성차별을 목격 혹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그리고 연령이 높은 50대 이상과 40대의 연령층에서 보다 많이 성차별적 요인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의 성평등 실태를 나타내는 지표별로 응답자들의 만족감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의 정치리더 및 대표성’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여 낮은 평가 점수를 받았으며, ‘소외여성에 대한 지원’ 분야와, ‘성평등 정책추진’ 분야가 그 다음으로 낮은 만족감과 평가 점수를 보였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분야와 ‘여

성을 위한 안전성 확보' 분야가 그 뒤를 이어 낮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 성평등 정책에 대한 요구

- 대전지역이 보다 더 성평등해지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과 그에 대한 요구도를 살펴보면, '여성의 일·가정생활 양립을 위한 정책'과 '소외여성들을 위한 경제적, 사회적 지원확대', '여성을 위한 안전성 확보'를 가장 강하게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모든 정책 항목에서 요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별로는 30대가 전반적인 성평등 정책에 대한 요구수준이 가장 높았다.

- 30대, 40대 응답자들은 '일·가정양립을 위한 정책', '소외여성 지원'을 가장 필요한 성평등 정책으로 꼽았으며, 30대 미만의 응답자들은 '여성을 위한 안전성 확보' 정책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대전시민들의 성평등 정책에 대한 요구 정도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대전의 성평등 지표" 연구 결과와 연관 있다고 볼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보고서에서 대전광역시 '낮은 여성 고용률'과 '낮은 여성 관리직 비율'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이는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여성 정치 리더 부족'이나 '여성 경제활동 지원 부족' 등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보고서 상 '범죄안전도'와 '육아휴직 비율', '한 부모 가구 저소득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었는데,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시민들은 '소외여성에 대한 지원'을 가장 필요한 성평등 정책으로 꼽았으며, '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 '여성을 위한 안전성 확보 정책'에 대한 높은 요구로 의견을 피력했다.

제 6 장

성 주류화 전략 확산을 위한 제언

제6장 성 주류화 전략 확산을 위한 제언

1. 성 주류화 추진 의지 선언 및 성평등 가치와 비전 공유

최근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서 작성 등 성 주류화 실현을 위한 제도들이 법제화되어 책무성이 강조되고는 있지만, 다양한 성 주류화의 수행주체들-지방정부와 전문가, NGO, 언론과 의회 등-의 의식 전환과 실질적 변화에 대한 의지 없이는 실효성이 약해질 수 밖에 없다. 대전광역시가 보다 실천적이고 강력한 성 주류화 제도를 추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중앙 및 지방정부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성 주류화 전략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 및 정책결정 및 수행자들의 성평등 의지가 우선 중요하며, 성 주류화의 다양한 주체들을 참여시켜 이들 간에 지역의 성평등 비전과 발전을 근거로 한 성인지적 가치가 공유될 수 있는 방안과 계기가 필요하다.

대전광역시는 이미 2003년 ‘대전양성평등 현장’ 을 선포하여 지역의 성평등 실현의지를 표명한 바 있으며, 이를 지표화하여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실현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왔다. 앞으로도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 추진의지와 가치를 지역 사회 구성원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공유하는 도구로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장이 성평등 정착을 위한 도구로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사회적 상황과 요구에 맞게 점검,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선언의 의미만을 갖는 현장이 아니라 현장을 통해 성평등 실천적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연구를 통하여 실시된 대전광역시민 대상 성차인식 및 성평등 정책 요구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하여, 대전광역시가 표명할 수 있는 성 주류화 확산의 의지를 담은 비전의 핵심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정치와 공공부문에서 성평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는 실천방안 마련

둘째, 모든 정책과정에 여성과 남성의 삶의 경험과 조건을 반영하고 이를 위한 소통의 기회 마련

셋째,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고용기회 및 대우 보장과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 강화

넷째, 임신·출산, 가사·돌봄 노동의 가치 인정과, 일과 가정 양립 정책 강화

다섯째, 생활 속에서 성평등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및 문화 활동 지원

여섯째, 성인지 관점을 반영한 사회 복지 체계 강화

일곱째, 여성과 남성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고 생활의 안전이 보장되는 지역 공동체 구현

2. 대전시 및 기초자치구의 상황과 욕구에 근거한 성평등 목표와 비전 설정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지방재정법 개정 이후 본격적으로 성 주류화 관련 제도들을 수행해 오고 있다. 두 제도의 특성 상 지역에 적합한 성평등 목표를 구축하고 이를 중심으로 각 제도가 운영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 특성과 현황에 맞는 성평등 목표와 비전을 설정하여 이를 근거로 지역의 핵심 또는 선도 사업을 발굴·선정함으로써 성인지적 관점이 정책에 개입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 대전지역의 5개 기초자치구(중구, 동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별 시민들의 성평등 정책 요구 순위를 보면, ‘소외여성지원’ 과 ‘일·가정양립을 위한 지원’ 에 대한 요구가 모든 구에서 최우선 순위로 유사하게 선정되었지만, 그 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구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서구와 대덕구의 경우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시책’ 에 대한 요구보다 ‘여성의 안전성’ 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중구와 유성구는

‘여성의 안전성’ 보다 ‘여성리더 양성’, ‘여성의 정책결정 참여’, ‘여성발전 기금 증대’ 항목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기초자치구별 시민들의 욕구를 보다 상세히 파악하고, 지역민들의 요구, 지역적 특성과 자원 등을 고려하여 성 주류화 전략 추진에 적합한 성평등 목표와 비전, 전략 등을 수립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3. ‘젠더 이슈’ 중심의 접근 전략

지역 내에서 성 주류화 전략이 보다 더 강하게 시민 공감대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행정가 중심, 엘리트 중심의 접근보다 지역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여겨지는 문제들, 그리고 성평등적 변화가 필요한 문제들부터 정책적으로 이슈화시켜 개선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고 생활 체감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대전지역의 시민들이 지역의 성평등화를 위해 최우선 요건 혹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영역부터 지역사회의 중요한 의제로 이슈화시켜 관련된 정책들에 대해 성 주류화 전략을 확대시켜나가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협조와 각 부서간의 연계, 젠더 거버넌스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역의 성 주류화 확산은 여성정책 담당 부서만의 업무가 아니라 지방 정부의 모든 부서, 그리고 지역의 전문가와 NGO, 언론과 의회 등이 연계해서 이슈를 인식하고 거버넌스의 형태로 추진해 나가는 과정 또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

4.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전략

이번 조사에서 특이할만한 점은 30대 미만 응답자들의 성평등에 대한 태도와 성평등 실태에 대한 인식이었다. 이들은 30대 이상 연령층에 비하여 성인지적 감수성

이나 성평등에 대하여 민감하지 못했고, 성평등 정책에 대한 인식도 낮게 나타났다. 연령별 성평등 인식수준을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성평등적 인식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30대미만의 경우는 30대보다 성평등 실태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있어, 30대미만의 연령집단에 대한 성인지력 향상 전략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가정생활, 직장생활, 남녀관계 영역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성평등 실태와 요구에 대하여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고, 요구 정도도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정생활 영역에서의 여성과 남성들간의 인식의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어, 남성들의 가정생활 영역에서의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공공의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성인지 관점은 성별, 연령별, 직업별 등 여러 가지 변인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대상의 특성과 분야에 따라 성평등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개입 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 즉, 다양한 교육 콘텐츠 개발과 대상별, 시간별로 차별화된 교육 매뉴얼이 개발되어야 한다.

집단별로도 성 주류화 확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 성 주류화는 모든 정책과 사업에 성평등적 관점을 통합하여 지역사회에 성평등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결정을 추진·수행하는 관계 공무원들과 의회 의원들의 성평등적 의식과 관심 등 성인지적 마인드와 함께 성 주류화 관련 제도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전략적으로 함양해야 한다.

5. 젠더 거버넌스의 구축을 통한 성 주류화 확산 전략

성 주류화의 지역 내 확산을 위해서는 젠더 이슈의 발굴, 성인지력 향상 교육도 중요하지만, 모든 정책의 결정과 수행 과정에 있어서의 성평등 제고도 중요하다. 정책의 계획과 결정, 집행과 평가 과정에서 젠더 이슈가 주류화되는 것 뿐 아니라, 이 과정에 다양한 지역사회의 주체들 평등하게 참여하고 협력하는, 지역 차원의 젠

더 거버넌스 구축이 절실하다.

젠더 거버넌스는 여성정책의 영역만이 아니라 모든 정책 영역에서 구축과 실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정부의 페모크라트(김경희 외, 2009), 전문가, NGO, 의회, 언론 등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어떤 정책 사업의 구상과 계획 수립 집행과 사후 평가 과정에 각 주체들이 소통하고 상호 협력을 통하여 성인지적인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한다.

젠더 거버넌스 구축의 가장 핵심적 요소는 각 참여 주체들의 '평등한 파트너십의 구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성 주류화 관련 제도들을 이끌어가는 젠더 거버넌스의 주체들은 각기 성평등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성 주류화 확산은 정부관료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최종적으로는 지역 현황에 맞는 이슈들을 가지고 성인지적인 정책 환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NGO 및 의회, 언론 등 다양한 거버넌스 주체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지역 성 주류화 확산의 성패는 이들이 얼마나 역량을 키워, 평등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젠더 거버넌스의 주체로 활동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각 주체별 강화시켜야 할 역량들을 제안한다면 다음과 같다.

- 페모크라트 : 최근 성 주류화 전략 확산의 주요 주체는 정부의 관료, 즉 공무원이다. 정책의 결정과 수행에서 성 주류화 전략을 추진하는 주요 주체로서 이번 조사 결과에서도 공무원의 성평등 의식개선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공무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은 '페모크라트'로서의 발전을 의미하며, 이들의 성인지적 정책 능력 향상과 정확한 분석 평가능력 강화는 현재 전문가 집단이 주력해야할 연구 분야이기도 하다.

- 전문가 : 지역 내 성 주류화 전략 추진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 제공 및 정책사업들에 대한 성인지적 컨설팅 제공이 전문가들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지역의 여성정책전문연구기관들은 지역 성평등 실태를 점검하기위한 지표 연구 개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실태 조사 등 연구지원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에서 다양한 영역에 있는 젠더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또한, 전문가들은 지역사회에서 성 주류화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방법론적 접근과 과제 발굴, 홍보 전략 도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동이 요구된다.

- 의회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정책 집행 과정을 감시하고, 조례 제정, 예산 심의 및 의결 등 정책결정과정에서도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구로서 시의회의 성인지력 향상은 매우 중요한 거버넌스 구축 과제가 된다. 이번 연구 결과에서 시민들은 지역 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부재 등을 주요하게 지적하고 있어, 지방 의회 내 여성의원 수적 증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의원들의 성인지력 향상 기회와 성평등 이슈의 의제화 등 성 주류화 전략을 확산시킬 수 있는 역량 증진이 필요하다.

- NGO : 지역의 여성단체들은 지역 내에서 젠더 이슈를 발굴하고, 실제 성평등 정책의 수행 결과와 그에 대한 평가, 모니터링이 주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다. NGO의 역량강화는 NGO 내 인재 발굴의 문제이면서, 또한 민간영역이 취약한 부분을 보강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정부와 전문가와 같이 수평적 파트너십을 NGO가 발휘하려면, 정보와 공유와 참여 기회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성 주류화는 NGO와의 협력 없이 성공적이기 어렵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민간영역에 있는 자원과 능력의 성인지적 활용이 젠더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하나의 기본 과정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 언론 : 일반 시민들의 성평등 체감도를 높이는 과정에 언론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매우 크다. 성평등 정책 성과에 대한 홍보는 시민의 관심을 증진시키며, 이는 인식을 전환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전문가, 의회, 민간단체 등의 적극적 홍보 전략이 전제되어야 하며 언론을 통한 성평등 정책 정보의 공유와 교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경희 외(2009), 성 주류화 관련 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연구(II) : 성 주류화 실행모델 개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경희 외(2010), 성 주류화 관련 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연구(III) :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성과와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경희 외(2011), 성 주류화 관련 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연구(IV) : 성별영향평가 중심의 성 주류화 전략 활성화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양희 외 (2006), 국가균형발전모델의 성 주류화 전략 개발 :성평등한 균형발전과 지역혁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양희 외(2007), 국가균형발전모델의 성 주류화 전략 개발: 성평등한 지역발전을 위한 사례 분석과 가이드라인 개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영주 (2012), 충남 성 주류화 젠더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추진 주체들의 역할과 과제, 충남성주류화기반구축을 위한 포럼 자료집. 충남여성정책개발원
- 김혜순(2006), 지역혁신의 성인지성, 성 주류화의 지방인지성,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성인지적 혁신과제 토론회 자료집, 한국여성개발원, 대구경북연구원.
- 남승희(2000), 양성평등 가치관 정립을 위한 여성교육 정책, 강원교육, 165호.
- 여성가족부(2011), 2011년 16개 시·도별 성평등수준 및 정책과제.
- 원숙연(2009), 성 주류화 기반으로 공공정책 영역의 현실, 국가와 젠더, 한울출판부
- 이갑숙(2005), 공무원의 양성평등의식 및 성 인지력 향상 방안 연구, 대전광역시 여성정책위원회
- 조선주(2012), 대전지역 성 주류화 제도의 효과적 정착 방안,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포럼세미나 자료집.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 주혜진 외(2010), 대전지역 성별영향 평가의 성과와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한정원(2010), 성주류화 제도 논의와 발전방향 연구, 여성학연구, 20(1). pp161-192
- Corner, Lorraine(1999), Capacity Building for Gender Minstreaming in Development, UNIFEM East and Southeast Asia Regional Office, Technical Paper.

부 록

부록 1. 대전광역시민 성평등인식 및 실태조사
설문지

부록 2. 대전광역시민 성평등인식 및 실태조사
결과표

부록 1. 대전광역시민 성평등인식 및 실태조사 설문지

--	--	--	--

대전광역시민 성평등인식 및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 출연 정책연구개발기관인 대전발전연구원에서는 대전광역시민을 대상으로, 대전광역시민의 성평등 인식과 성평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대전 지역사회의 성평등 현황과 시민의 성평등 실현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대전시 성평등정책의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귀하의 응답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각 설문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솔직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귀하의 성의 있는 응답은 대전광역시의 정책안 개발과 성평등정책 발전에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본 조사에서 사용되는 귀하의 응답내용은 통계목적 외에는 절대로 사용되는 일이 없음을 약속드리며, 번거롭더라도 이 조사에 적극 참여하여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 4.

대전발전연구원장 이 창 기

연락처 : (302-280)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본1길 39 (대전도시철도공사 2층)
Tel : 042-530-3522 (주혜진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장)



면접일시			
면 접 원		검 증 원	
에 디 팅		코 디 원	

Ⅱ. 다음은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대전지역에 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귀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전혀 아니다 /없다 ←————→ 매우 그렇다 /많이 봤다 </div>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주변에서(직장, 학교, 이용시설 모두 포함) 성차별적 현장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대전지역에는 여성 정치 리더의 비율이 부족한 편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대전지역은 여성들이 일자리를 구하거나 일하기가 좋은 곳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대전지역의 여성들은 성범죄, 폭력 등 각종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	대전지역은 소외여성(미혼모, 저소득층, 장애인 등)들을 위한 지원이 잘 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6	대전시(구청, 동사무소 모두 포함)는 적극적으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7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대전은 성평등한 도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IV. 다음은 일반적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시거나 직접 기입해주시오.

1. 귀하가 사시는 곳은 어디십니까?

- 1) 동구 2) 서구 3) 중구 4) 대덕구 5) 유성구

2. 귀하의 연령은? (만)세

3. 귀하의 성별은?

- 1) 여자 2) 남자

4. 귀하는 결혼을 하셨습니까?

- 1) 비혼(미혼, 사별, 이혼 등) 2) 기혼(사실혼 관계 포함)

5. 귀하는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 1) 중학교 졸업 2) 고등학교 졸업 3)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 4) 대학원이상

6. 귀하는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 1) 판매/서비스직
2) 자영업
3) 사무관리직
4) 기능/ 작업직(건축작업원, 기계조작원, 우편배달원, 운전기사 등)
5) 전문직(연구, 교육 포함)
6) 가정주부
7) 학생
8) 자원봉사 및 사회참여활동
9) 기타()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2. 대전광역시민 성평등인식 및 실태조사 결과표

I. 귀하는 다음의 각 문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문항에 대한 평균 점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4.532	3.918	5.740	5.335	4.928	7.367	5.006	4.335

① 집안일이든 바깥일이든 남자일과 여자일이 따로 있다.

(단위:명,%)

	빈도(명)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1(전혀아니다)	137	18.8	18.8
2	74	10.2	28.9
3	99	13.6	42.5
4	57	7.8	50.3
5	107	14.7	65.0
6	48	6.6	71.6
7	87	11.9	83.5
8	59	8.1	91.6
9	20	2.7	94.4
10(매우그렇다)	41	5.6	100.0
합계	729	100.0	

② 맞벌이를 해도 가사와 자녀양육은 아내가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위:명,%)

	빈도(명)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1(전혀아니다)	191	26.2	26.2
2	88	12.1	38.3
3	100	13.7	52.1
4	63	8.7	60.7
5	97	13.3	74.0
6	44	6.0	80.1
7	51	7.0	87.1
8	46	6.3	93.4
9	21	2.9	96.3
10(매우그렇다)	27	3.7	100.0
합계	728	100.0	

③ 남자아이는 ‘남자답게,’ 여자아이는 ‘여자답게’ 자라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위:명,%)

	빈도(명)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1(전혀아니다)	69	9.5	9.5
2	39	5.4	14.8
3	69	9.5	24.3
4	65	8.9	33.2
5	135	18.5	51.8
6	53	7.3	59.1
7	70	9.6	68.7
8	73	10.0	78.7
9	52	7.1	85.9
10(매우그렇다)	103	14.1	100.0
합계	728	100.0	

④ 남녀(이성)관계에서 여자보다는 남자가 주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단위:명,%)

	빈도(명)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1(전혀아니다)	72	9.9	9.9
2	38	5.2	15.2
3	86	11.8	27.0
4	64	8.8	35.8
5	136	18.7	54.5
6	64	8.8	63.4
7	97	13.4	76.7
8	90	12.4	89.1
9	42	5.8	94.9
10(매우그렇다)	37	5.1	100.0
합계	726	100.0	

⑤ 연인이나 부부관계에서 남자의 학벌이 여자보다 높은 것이 좋다.

(단위:명,%)

	빈도(명)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1(전혀아니다)	117	16.1	16.1
2	49	6.7	22.8
3	74	10.2	33.0
4	44	6.1	39.1
5	149	20.5	59.6
6	78	10.7	70.3
7	73	10.0	80.3
8	72	9.9	90.2
9	40	5.5	95.7
10(매우그렇다)	31	4.3	100.0
합계	727	100.0	

⑥ 결혼 중에 얻은 재산은 부부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위:명,%)

	빈도(명)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1(전혀아니다)	26	3.6	3.6
2	15	2.1	5.7
3	27	3.7	9.4
4	32	4.4	13.8
5	107	14.8	28.6
6	44	6.1	34.7
7	60	8.3	43.0
8	96	13.3	56.3
9	86	11.9	68.2
10(매우그렇다)	230	31.8	100.0
합계	723	100.0	

⑦ 직장에서 남성들이 주요 보직 및 리더의 위치에 있어야 업무 효율성이 높아진다.

(단위:명,%)

	빈도(명)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1(전혀아니다)	109	15.0	15.0
2	60	8.3	23.2
3	79	10.9	34.1
4	49	6.7	40.9
5	131	18.0	58.9
6	65	8.9	67.8
7	70	9.6	77.4
8	82	11.3	88.7
9	34	4.7	93.4
10(매우그렇다)	48	6.6	100.0
합계	727	100.0	

⑧ 여성들의 퇴사율이 높고 승진이 더딘 것은 직업에 대한 여성들의 책임성 결여 때문이다.

(단위:명,%)

	빈도(명)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1(전혀아니다)	138	18.9	18.9
2	75	10.3	29.2
3	98	13.4	42.7
4	75	10.3	52.9
5	124	17.0	70.0
6	59	8.1	78.1
7	62	8.5	86.6
8	43	5.9	92.5
9	24	3.3	95.7
10(매우그렇다)	31	4.3	100.0
합계	729	100.0	

II. 다음은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대전지역에 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귀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문항에 대한 평균 점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045	6.510	4.66	4.80	4.382	4.50	4.80

① 주변에서(직장, 학교, 이용시설 모두 포함) 성차별적 현장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이 있다

(단위:명,%)

	빈도(명)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1(전혀아니다)	97	13.3	13.3
2	52	7.1	20.5
3	78	10.7	31.2
4	73	10.0	41.2
5	102	14.0	55.2
6	79	10.9	66.1
7	105	14.4	80.5
8	82	11.3	91.8
9	29	4.0	95.7
10(매우그렇다)	31	4.3	100.0
합계	728	100.0	

② 대전지역에는 여성 정치 리더의 비율이 부족한 편이라고 생각한다.

(단위:명,%)

	빈도(명)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1(전혀아니다)	18	2.5	2.5
2	21	2.9	5.4
3	29	4.0	9.3
4	53	7.3	16.6
5	158	21.7	38.3
6	79	10.9	49.2
7	96	13.2	62.4
8	103	14.1	76.5
9	90	12.4	88.9
10(매우그렇다)	81	11.1	100.0
합계	728	100.0	

③ 대전지역은 여성들이 일자리를 구하거나 일하기가 좋은 곳이다.

(단위:명,%)

	빈도(명)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1(전혀아니다)	64	8.8	8.8
2	66	9.1	17.9
3	101	13.9	31.7
4	78	10.7	42.4
5	205	28.2	70.6
6	77	10.6	81.2
7	59	8.1	89.3
8	39	5.4	94.6
9	18	2.5	97.1
10(매우그렇다)	21	2.9	100.0
합계	728	100.0	

④ 대전지역의 여성들은 성범죄, 폭력 등 각종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편이다.

(단위:명,%)

	빈도(명)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1(전혀아니다)	46	6.3	6.3
2	64	8.8	15.1
3	100	13.7	28.8
4	100	13.7	42.6
5	193	26.5	69.1
6	62	8.5	77.6
7	82	11.3	88.9
8	39	5.4	94.2
9	22	3.0	97.3
10(매우그렇다)	20	2.7	100.0
합계	728	100.0	

⑤ 대전지역은 소외여성(미혼모, 저소득층, 장애인 등)들을 위한 지원이 잘 되어 있다.

(단위:명,%)

	빈도(명)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1(전혀아니다)	41	5.6	5.6
2	73	10.0	15.7
3	129	17.7	33.4
4	114	15.7	49.0
5	217	29.8	78.8
6	72	9.9	88.7
7	40	5.5	94.2
8	24	3.3	97.5
9	9	1.2	98.8
10(매우그렇다)	9	1.2	100.0
합계	728	100.0	

⑥ 대전시(구청, 동사무소 모두 포함)는 적극적으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단위:명,%)

	빈도(명)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1(전혀아니다)	48	6.6	6.6
2	62	8.5	15.1
3	124	17.1	32.2
4	86	11.8	44.0
5	230	31.6	75.7
6	87	12.0	87.6
7	47	6.5	94.1
8	21	2.9	97.0
9	9	1.2	98.2
10(매우그렇다)	13	1.8	100.0
합계	727	100.0	

⑦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대전은 성평등한 도시다.

(단위:명,%)

	빈도(명)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1(전혀아니다)	33	4.5	4.5
2	49	6.7	11.3
3	90	12.4	23.7
4	97	13.4	37.1
5	255	35.1	72.2
6	102	14.0	86.2
7	40	5.5	91.7
8	28	3.9	95.6
9	15	2.1	97.7
10(매우그렇다)	17	2.3	100.0
합계	726	100.0	

Ⅲ. 귀하께서 대전시가 성평등한 도시가 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지원 및 사업들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필요 정도에 따라 점수로 표현해 주십시오. 점수가 높아질수록 필요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 문항에 대한 평균점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7.056	6.901	7.093	7.098	7.140	7.495	7.232	7.883	7.902	7.329

① 공공기관, 시설, 학교, 직장 등 지역 내에서의 성평등 교육 강화

(단위:명,%)

	빈도(명)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1(전혀필요하지않다)	3	0.4	0.4
2	4	0.5	1.0
3	20	2.7	3.7
4	26	3.6	7.3
5	145	19.9	27.2
6	85	11.7	38.8
7	131	18.0	56.8
8	130	17.8	74.6
9	73	10.0	84.6
10(매우필요하다)	112	15.4	100.0
합계	729	100.0	

② 중앙정부(여성가족부 등) 및 대전시의 성평등 촉진 시책 강화

(단위:명,%)

	빈도(명)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1(전혀필요하지않다)	7	1.0	1.0
2	9	1.2	2.2
3	15	2.1	4.3
4	35	4.8	9.1
5	124	17.1	26.1
6	117	16.1	42.2
7	125	17.2	59.4
8	136	18.7	78.1
9	68	9.4	87.5
10(매우필요하다)	91	12.5	100.0
합계	727	100.0	

③ 지역 의사결정그룹, 공무원들의 성평등 의식 향상 및 태도 개선

(단위:명,%)

	빈도(명)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1(전혀필요하지않다)	2	0.3	0.3
2	4	0.5	0.8
3	21	2.9	3.7
4	24	3.3	7.0
5	133	18.2	25.2
6	81	11.1	36.4
7	152	20.9	57.2
8	128	17.6	74.8
9	77	10.6	85.3
10(매우필요하다)	107	14.7	100.0
합계	729	100.0	

④ 대전시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여성참여 확대

(단위:명,%)

	빈도(명)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1(전혀필요하지않다)	5	0.7	0.7
2	7	1.0	1.7
3	18	2.5	4.1
4	20	2.8	6.9
5	117	16.1	23.0
6	97	13.4	36.4
7	136	18.8	55.2
8	141	19.4	74.6
9	94	13.0	87.6
10(매우필요하다)	90	12.4	100.0
합계	725	100.0	

⑤ 지역 여성 리더의 양성과 사회참여 확대

(단위:명,%)

	빈도(명)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1(전혀필요하지않다)	5	0.7	0.7
2	6	0.8	1.5
3	14	1.9	3.4
4	29	4.0	7.4
5	118	16.2	23.7
6	90	12.4	36.0
7	133	18.3	54.3
8	139	19.1	73.5
9	87	12.0	85.4
10(매우필요하다)	106	14.6	100.0
합계	727	100.0	

⑥ 여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와 위협으로부터의 안전

(단위:명,%)

	빈도(명)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1(전혀필요하지않다)	7	1.0	1.0
2	6	0.8	1.8
3	18	2.5	4.3
4	29	4.0	8.3
5	84	11.6	19.8
6	85	11.7	31.5
7	108	14.9	46.4
8	115	15.8	62.2
9	96	13.2	75.4
10(매우필요하다)	179	24.6	100.0
합계	727	100.0	

⑦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촉진 시책 추진 강화

(단위:명,%)

	빈도(명)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1(전혀필요하지않다)	4	0.5	0.5
2	6	0.8	1.4
3	10	1.4	2.7
4	20	2.7	5.5
5	119	16.3	21.8
6	94	12.9	34.7
7	136	18.7	53.4
8	141	19.3	72.7
9	83	11.4	84.1
10(매우필요하다)	116	15.9	100.0
합계	729	100.0	

⑧ 여성이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가족친화기업, 보육시설 설치 등)의 강화

(단위:명,%)

	빈도(명)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1(전혀필요하지않다)	2	0.3	0.3
2	3	0.4	0.7
3	7	1.0	1.6
4	18	2.5	4.1
5	78	10.7	14.8
6	57	7.8	22.7
7	113	15.5	38.2
8	141	19.4	57.6
9	103	14.1	71.7
10(매우필요하다)	206	28.3	100.0
합계	728	100.0	

⑨ 소외여성(폭력피해여성, 미혼모, 장애여성, 한부모가정 등)들을 위한 경제적, 사회적 지원 확대

(단위:명,%)

	빈도(명)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1(전혀필요하지않다)	3	0.4	0.4
2	2	0.3	0.7
3	11	1.5	2.2
4	5	0.7	2.9
5	72	9.9	12.8
6	73	10.0	22.8
7	115	15.8	38.7
8	142	19.5	58.2
9	94	12.9	71.1
10(매우필요하다)	210	28.9	100.0
합계	727	100.0	

⑩ 여성발전기금의 증액과 활용영역 확대

(단위:명,%)

	빈도(명)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1(전혀필요하지않다)	5	0.7	0.7
2	12	1.6	2.3
3	10	1.4	3.7
4	26	3.6	7.3
5	111	15.2	22.5
6	92	12.6	35.1
7	112	15.4	50.5
8	120	16.5	66.9
9	81	11.1	78.1
10(매우필요하다)	160	21.9	100.0
합계	729	100.0	

IV. 다음은 일반적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시거나 직접 기입해주시오.

응답자	
평균	39.3세
연령	

1. 귀하가 사시는 곳은 어디십니까?

(단위:명,%)

	빈도(명)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동구	97	13.3	13.3
서구	238	32.6	45.9
중구	163	22.3	68.2
대덕구	97	13.3	81.5
유성구	135	18.5	100.0
합계	730	100.0	

2. 귀하의 연령은?

(단위:명,%)

	빈도(명)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30세 미만	133	18.2	18.2
31~39세	230	31.5	49.7
40~49세	249	34.1	83.7
50세 이상	119	16.3	100.0
합계	731	100.0	

3. 귀하의 성별은?

(단위:명,%)

	빈도(명)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여자	382	52.3	52.3
남자	348	47.7	100.0
합계	730	100.0	

4. 귀하는 결혼을 하셨습니까?

(단위:명,%)

	빈도(명)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비혼(미혼, 사별, 이혼 등)	182	25.2	25.2
기혼(사실혼 관계 포함)	539	74.8	100.0
합계	721	100.0	

5. 귀하는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단위:명,%)

	빈도(명)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중학교 졸업	11	1.5	1.5
고등학교 졸업	174	24.0	25.5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	479	66.0	91.5
대학원이상	62	8.5	100.0
합계	726	100.0	

6. 귀하는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단위:명,%)

	빈도(명)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판매/서비스직	121	16.6	16.6
자영업	81	11.1	27.7
사무관리직	194	26.6	54.4
기능/작업직(건축작업원, 기계조작원, 우편배달원, 운전기사 등)	41	5.6	60.0
전문직(연구, 교육 포함)	122	16.8	76.8
가정주부	93	12.8	89.6
학생	32	4.4	94.0
자원봉사 및 사회참여활동	10	1.4	95.3
기타	34	4.7	100.0
합계	728	100.0	

정책연구보고서 2012-08

성차 인식 및 성평등 실태조사를 통한
성 주류화 전략 확산 방안

발행인 이 창 기

발행일 2012년 7월

발행처 대전발전연구원

302-846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본1길 39(월평동160-20)

전화: 042-530-3500 팩스: 042-530-3528

홈페이지 : <http://www.djdi.re.kr>

인쇄: (주)인커뮤니케이션즈 TEL 042-478-7894 FAX 042-478-7896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